

I. 서론

1. 가정 수련활동 연구의 필요성

가장 중요한 교육기관은 학교가 아니라 가정이다. 가정은 인간 형성의 터전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가정은 인간의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첫번째 장이고, 또한 제일 중요한 장이다. 청소년의 건전한 정신적 신체적 안정은 가정에서 형성되어야 한다. 현대에 와서 가정은 이러한 중요한 사회화 기능을 학교나 다른 기관에 빼앗기고 있으며, 그 기능이 소홀히 되고 있다. 마치 학교의 부수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가정은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당사자인 부모들도 가정의 이러한 중요성을 자칫 간과하고 있으며, 가정에서의 수련활동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가정에서의 수련활동은 다른 어느 곳에서의 수련활동보다 중요하다. 가정에서의 학습은 주로 경험, 체험, 그리고 모방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청소년들은 체험을 원한다. 어떤 체험은 따분할지라도 그들은 그 결과가 보고 싶기 때문에 수고를 한다. 부모가 이러한 체험활동의 중요성을 깨닫고, 체험활동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청소년들은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가정에서의 체험활동을 가정에서의 수련활동으로 지칭하기로 한다. 체험활동은 수련활동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지만 가정 영역에 있어서는 수련활동의 영역을 체험활동에까지 넓혀서 다루기로 한다.

가정은 제일 중요한 교육 장소일 뿐 아니라, 직장생활에 지친 부모에게나 학업에 지친 자녀에게 재충전을 위한 휴식의 장소이다. 지나치게 경쟁적인 입시교육은 청소년들에게 많은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또한 도시화, 대기 및 수질 오염 등의 자연 환경적 변화는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의

심신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가시간을 선용할 시설이나 공간의 부족으로 청소년들이 주로 찾게 되는 전자오락, 심야극장, 락카페와 같은 도시과 밀지역의 유해한 흥행위주의 상업적 여가활동은 오히려 청소년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

가정에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수련활동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가정이 이러한 역할을 잘하려면 가족 구성원이 서로를 이해하고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며, 그렇게 함께 하는 시간이 재미있고 의미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분위기 조성과 활동이 바로 가정 수련활동의 기본을 이룬다.

가정에서의 첫번째 수련활동은 가족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이다. 두번째 수련활동은 가족들이 함께 행하는 활동들이다. 가정에서의 수련활동은 주로 가족이 모이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여가활동으로 실시되거나, 가족이 함께 하는 저녁 시간에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가정에서의 수련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는:

- 가족이 함께 하는 수련활동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수련활동의 공동목표를 갖고 있지 않다.
- 부모는 직장 일에, 자녀는 학업에 바쁘다.
-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수련활동을 하려 하지 않는다.
-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가족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모르거나, 프로그램의 시행 방법을 모른다.

가정에서의 수련활동을 위하여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는 1992년부터 가정에서 실시할 수 있는 청소년 수련활동 거리들과 실시 방법을 담은 많은 청소년 수련거리 기본형을 개발하여 왔으나 가정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본원은 연구 주체로, 가정은 실행 주체로 함께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협력사업을 통하여 가정 수련활동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 가정에서의 수련활동 연구의 목적

가정에서의 수련활동은 가정에서의 바람직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데 그 목적이 있고, 문화는 생활 양식으로 실천이나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이 연구의 목표는 가정에서 이러한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족들이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수련거리와 수련거리 실시 방법을 개발하고 보급하는데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을 항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가정 수련활동의 이론적 기틀을 마련하는 것.
- 2) 가정에서 가족 모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수련활동거리와 수련활동 방안을 찾는 것.
- 3) 개발원에서 개발한 수련거리들을 가정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 4) 가정이 실행주체가 되어 수련활동을 직접 실시하고, 한국청소년개발원은 연구주체로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을 하는 협력사업을 통하여 모범사례를 만드는 것.
- 5) 가정수련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것.

3. 연구 방법

가정에서 부모가 지도자로서 자신의 자녀들이 덕체지를 두루 갖춘 전인으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수련활동을 함께 해나가는 방법을 부모에게 알게 하고, 수련활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함을 그 목표로 연구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가정에서의 수련활동 활성화 방안을 위해 가정수련활동 전문가 및 부모들과의 긴밀한 접촉을 통하여 연구를 진행하여 왔다. 1995년 7월 29일(토)에는 가정에서의 수련활동 활성화 작업의 일환으로 '가정에서의 수련거리 운영에 관한 부모 지도자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로 자료집이 나왔다. 그리고

1995년 8월 7일(월)부터 9일(수)까지 2박 3일간 ‘가정 수련활동 활성화’의 일환으로 가족들이 함께 꾸며보는 ‘경주가족자전거문화기행’을 개최하였다. 이 행사의 결과로 많은 가족들이 좋은 체험담을 보내주었다. 그리고 1995년 8월 19일(토) 한국청소년개발원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경주가족자전거문화기행 평가회’에서는 ‘경주가족자전거문화기행’을 통하여 평소 느끼지 못했던 우리가족의 특징들, 우리가정에 도움이 되었던 점, 앞으로 우리가족들의 수련활동에서 좀더 보충하고 싶은 점, 혹은 수련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가정문화를 만들어내고 보급하는 방안 등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다. 이와 더불어 국내외에서 활성화가 잘된 수련활동 사례들과 좋은 프로그램들을 정리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을 항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문헌연구: 국내외의 책들과 연구 속에서 ‘수련거리 운영’에 관한 보편적이고 핵심적인 부분들을 뽑아내어 정리하였으며, 자녀의 나이별로 적합한 수련거리 및 활동방안을 정리하였다.
- 2) 개별 자문: 가정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수련거리 기본형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다. 기존에 개발된 수련거리 기본형 중에서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실제 수련활동에 참여한 지도자나 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였다. 예로 ‘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모임’이나 ‘어머니회’ 운영과 관련된 전문인사, 청소년단체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개별자문을 실시하였다.
- 3) 수련거리 시범운영: 열두 가정의 46명의 참여하에 경주가족자전거문화기행을 개최하였다.
- 4) 사례: 현장 적용자, 혹은 활동 체험자의 체험과 수련활동을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진술하게 하여 잘 된 것을 그대로 심도록 하였다. 될 수 있으면 구체적인 현장감을 살려서, 생생하고 세세한 상황을 그리려고 노력하였으며, 또한 쉽게 읽혀질 수 있는 문체를 사용하여 기술하려고 노력하였다. 사례들을 통하여 수련활동을 하는 방법을 깨닫게 될 뿐 아니라, 수련활동을 시행해 보고 싶은 동기도 유발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 5) 워크샷: 경주가족자전거문화기행에 참여하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부모 지도자 워크샷을 실시하였다.

Ⅱ. 가정 수련활동의 배경

자유를 주면서도, 공동의 시간과 활동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는 자녀들의 행복에 대한 책임이 있고,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 사랑해 주고 책임감도 길러주어야 한다. 그러나 자녀를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여, 자녀들의 자유와 행복할 권리를 자신의 욕망을 위해 억압하여서는 안된다.

부모가 지도자인 동시에 활동의 공동참여자로 참가할 수 있는 가정에서의 수련활동은 자녀와 부모의 상호의존적인 활동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가정 내에서 부모와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장소와 시간, 조건 등이 필요하지 않은 수련활동들이 특히 적합하다.

수련활동의 활성화, 특히 가정에서의 수련활동의 활성화에는 지도자인 부모의 동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동기가 있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가정에서의 수련활동이 활성화되려면 무엇보다도 부모가 가정에서의 수련활동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가정 수련활동은 전인 교육적 측면, 재충전적인 측면, 동기 유발적인 측면, 윤리적 측면을 가진다. 수련활동의 이러한 측면들은 가정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특성들이다.

1장 가정수련활동의 배경

가정에서의 수련활동은 부모들의 삶의 재 충전, 자녀들의 체험 영역의 확대, 그리고 가족 화합의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 수련활동은 재 충전의 기능과 전인적 발달을 돕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청소년들의 경험과 체험은 청소년들의 심신에 휴식과 균형을 가져다주며, 이러한 체험 활동은 청소년의 저

변과 이해의 폭을 넓히고, 청소년들의 공부에도 도움이 된다. 실제로 봉사활동에 참여한 많은 중학생들이 더욱 열심히 공부하는 현상을 보였다.

가정에서의 수련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가정에서의 수련활동의 활성화가 무엇을 의미하며,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한다.

1. 가정에서의 수련활동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가족간의 언어적, 행동적, 태도적 상호작용이 가정에서의 첫번째 수련활동이며 이는 두번째 수련활동의 바탕이 된다. 두번째 수련활동은 가족이 같이하는 활동들이다.

가정 수련활동은 자발성에 의한 체험이며, 생활 속의 활동 및 교육이다. 체험은 부분적인 경험이나 배움이 아니라 온몸과 마음으로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정에서의 수련활동은 가족 간의 개방적이고 서로 수용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며, 또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한 가정 전체가 공동적으로 여가를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내어 가족이 같이하는 여가활동, 체험활동을 말한다. 가정에서의 수련활동은 가족 구성원 각자에게 여가가 주체적이고, 자발적이고, 자유롭고, 재미있는 시간인 동시에 평생을 통하여 인격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가정에서의 수련활동은 가족들에게 흥미로운 것이 되어야 하며 또한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2. 가정수련활동의 목적은?

아이들을 착하게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이 행복감을 느끼게 해 주는 것이다. 교육의 목표는 자유롭고 행복한 인간을 만드는 것이다. 수련활동의 목표도 마찬가지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사회전체의 행복 및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사람

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성장해 나가고, 자신을 형성시켜나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교육이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가정에서의 수련활동의 목표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자녀와의 대화 기회 마련
- 가족 구성원간의 유대강화와 민주적 가정으로 가는 기회 제공
- 자녀와 친밀감을 갖는 기회 마련
- 부모와 자녀의 여가활동의 기회 마련
- 부모 및 자녀가 함께 배우는 교육적 기회 마련
- 자녀의 의사결정 능력을 포함한 다양한 능력을 키워주는 기회 마련

3. 가정 수련활동의 중요성이 무엇인가?

가정 수련활동은 특히 동기적, 휴식적, 교육적, 윤리적 측면에 있어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차례로 설명하기로 하겠다.

1) 동기적 측면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을, 사랑하는 것을 찾는 것이 자신과 인류에 대한 의무이다. 어떤 일이 자신의 본능과 적성에 맞을 때, 그 일을 하는 것은 기쁨이다. 깊은 의미의, 온몸으로 느끼는 이러한 기쁨은 많이 향유하면 할수록 그만큼 삶이 더 깊고 풍부해지며, 난관에 봉착했을 때에도 더욱 강해진다. 아이들을 고달프게 만들면 강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2차 세계 대전 후 독일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 형은 아주 근면하게 일하면서 벌은 돈을 꼬박 꼬박 저축을 하였는데, 동생은 벌은 돈으로 매일 술을 마셔 마당에 술병만 수북하게 쌓였다. 그런데 물자는 귀하고, 인플레이

션이 너무 심하여 형이 저축한 돈은 얼마 안되고, 동생의 술병은 큰 돈이 되었다. 전후 독일의 인플레이션에 관한 말도 안되는 우스개 소리겠지만, 이 이야기를 교육에 관한 이야기로 바꾸어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형은 열심히 학교 공부만 하였고, 동생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즐겁게 열심히 하면서 살았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형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은 별로 쓸모가 없게 되어 버렸고, 동생이 열심히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체득한 경험들은 창조력, 유연성, 쾌활성, 정열 등의 아주 귀한 재산이 되어, 결국은 동생이 더 성공하고 행복하게 되었다.

자기가 진정으로 잘하고 원하는 것을 할 때, 정열과 동기와 창조성, 참신성이 되살아난다. 존 가드너(1979)는 그의 저서 ‘자아 혁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 또는 어떤 일에 의미나 의의를 찾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단한 정력의 원천이 생기고 있음을 여실히 목격할 바 있을 것이다. 자아 혁신적 인간은 만일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서 커다란 자신을 갖지 못할 때에는 다른 일로써 커다란 관심을 가질만한 일을 발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물론 누구나가 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만을 추구하면서 모든 시간을 다 소비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누구든 본업으로서 또는 부업으로서 자기가 깊은 관심을 갖는 무엇인가를 마땅히 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만일 그가 자아의 감옥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본질적으로 자기 중심의 것이 아닌 무엇인가를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수입이 많아지거나 지위가 높아지거나 또는 권력이 강해진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몹시 좋아하는 일을 그만두고까지 하등 흥미 없는 일터로 옮겨간다. 또한 중년기의 사람들이 전혀 취미가 없는 활동의 틀 속에 사로잡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사람들은 과거를 일체 청산하고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조그만 한 가지 일, 즉 불타는 자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조그만 한 가지 일을 하게 된다면 청신해지고 혁신을 이룩하게 될 것이다.

자신의 활기의 원천에 되돌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인생의 그릇된 표면을 찢고 들어가서 그가 진실로 믿고 있으며 또한 그가 온 정성을 바칠 수 있는 일

들을 이해하려고 시도한다.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삶에 대한 정열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 또한 현명한 사람은 때때로 자신이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을 찾는다. 즉 자연과 직접 접촉하고 동료 인간들과 정면으로 교섭할 수 있는 관계를 맺고 스스로의 손으로 무엇인가를 형성함으로써 자신을 혁신하려고 노력한다.

2) 휴식적 측면

강철왕 카네기는 자기가 어렸을 때의 가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의 집은 어린이 놀이터의 본거지이기도 했다. 어머니는 항상 가정의 영향이야말로 아이들을 올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는 가장 훌륭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방법은 가정을 즐거운 낙원으로 정화하는 것이 첫째 되는 일이라고 언제나 이야기했다. 그래서 우리 부모는 우리들을 중심으로 모여드는 근처의 어린이들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무한히 노력하였다.”

수련활동은 휴식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람은 계속적으로 일만 할 수는 없다. 휴식을 해야지만 비로소 열심히 땀을 흘릴 수 있다. 공부도 마찬가지이다.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풀 기회를 가져야만 한다. 그래야 청소년들의 생활과 공부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 휴식이 있어야 하고,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무의식이 비명을 지른다. 인간 속에 있는 자연이 비명을 지른다. 제발 멈추라고.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탈이 생긴다. 청소년들의 삶이 최소한 때로는 즐거워야 하고, 또 자유로워야 하며, 자신의 삶과 생활에 있어서 자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실험학교 이야기’의 저자인 윤병구는 다음과 같은 말들을 마을 어른신네들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자랐다고 한다.

어려서 잘 노는 사람이 커서 일도 잘한다. 실컷 놀아라.

혼자 놀지 말고 여럿이 어울려 놀아라.

방 안에서 혼자 뒹구는 것은 노는 것이 아니라 게으름을 피우는 것이다.

부지런히 놀되 게으름을 피워서 안된다.

일과 놀이는 하나다. 부지런히 손발을 놀리고 몸을 놀리는 사람을
우리는 일 잘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노래는 놀이와 같은 말에서 나왔다.

노래를 부를 줄 모르는 사람은 놀 줄 모르는 사람이다.

놀이판은 한마디로 노래와 춤이 어우러지는 판인데

노래가 앞서야 춤이 뒤따르는 법이다.

사람은 놀이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목숨을 나누고 목숨을 함께 하는
공동체 정신을 익히는 것이다.

어린 아이들을 눈여겨 보아라. 건강한 아이들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손을 놀리고 몸을 놀린다. 이렇게 우리 몸을 놀리는 힘, 우리 몸이 자유롭게
놀게 하는 힘, 이것이 생명의 힘인데 생명의 힘은 스스로 노는 힘이다. 우리
몸 안에 끊임없이 노는 힘이 없으면 우리는 손발을 놀릴 수도, 몸을 놀릴 수
도, 입을 놀릴 수도 없다. 놀지 못하는 사람은 산 송장이나 다름없다.

윤구병은 또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려서 제대로 놀지 못하는 녀석은 커서
일도 못해. 한끼 밥 못 먹는다고 죽지 않아. 하루밤을 새웠다고 해서 목숨에
지장이 없어. 그렇지만 아이들을 하루라도 못 놀게 하면 아이의 생명력은 그
만큼 시드는 게야. 도시 학부모 가운데 ‘자지 말고 공부해라’, ‘밖에 나가 놀지
말고 책상머리에만 붙어 있어라’, ‘누구누구는 한시 반시도 놀지 않고 공부만
하는데 너는 어찌자고 그렇게 놀려고만 하니?’ 하고 아이들을 닦달하는 사람
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자식들에게 ‘너 죽어라’, ‘너 병신이 되어라’, ‘너 살
아 있는 기계가 되어라’하고 저주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의미에서 김창완의 ‘땅강아지’란 노래는 그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땅강아지

애들아, 놀자.

땅거미질 때까지 땅강아지가 되자
엄마가 이 골목 저 골목 이름 부를 때까지
아빠가 자전거 타고 찾으러 다닐 때까지
우리는 눈이 빨개서 노는거야.

애들아, 놀자.

꽃이 피는 동산에 꽃놀이를 가보자
무지개 뜨며는 무지개를 잡으러 가야지
울챙이 놀며는 울챙이 구경하러 가야지
우리는 가고픈 곳을 가는거야.

애들아, 놀자.

참외가 노랗지면 참외서리를 가야지
원두막 아저씨 낮잠 주무실 때를 기다려
어린걸 놔두고 머리통만한 걸 하나 따지
우리는 하고 싶은 걸 하는거야.

애들아, 놀자.

흰눈이 내리면 눈밭에를 가보자
산과 들 하얗게 꿈속처럼 변해 버리고
마음도 하얗게 거짓말은 모두 사라지고
우리는 하얀 사람이 되는 거야.

3) 교육적 측면

짐승의 새끼들을 보면 장난을 많이 하고 또 잘 노는 데 그것이 사실은 자라서 할 일들을 배우는 과정이다. 자연은 역시 현명하다. 재미가 있어야 많이 배우고 잘 배운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장난하고 노는 가운데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비교적 원시 종족(원시라는 말이 적절한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다)의 어린아이들도 신나게 노는 가운데 아주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다. 문명인의 눈으로 보면 혹독하고 삭막한 환경 속에서 훌륭히 그리고 풍족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블룸에 의하면 나중에 학문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어렸을 때 공부에 대한 강요보다는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라고 한다. 완전 학습의 창시자인 블룸은 여러 분야를 빚낸 사람들의 어린 시절에서 공통점을 하나 발견하였는데, 그것은 그들이 공부에 대해서 타율적인 강요를 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다양한 경험을 하다가 어떤 분야에 흥미를 느끼고 그것을 온몸으로 추구하였다는 것이다. 자기가 관심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탐구하고 공부할 때, 눈부신 발전이 있는 것이다.

자유와 사랑 속에서만 아이들은 온몸으로 배울 수 있다. 많이 배운다. 쉽고 빠르게 배운다. 실험 학교인 영국의 섬퍼힐에서는 학생들에게 전혀 강요를 하지 않는 기숙학교이다. 이 학교에서는 교실에 들어가고 싶지 않으면 12년 동안 한번도 안 들어 갈 수 있다. 아이들은 나무에 집을 만들거나, 다른 활동을 하면서, 그야말로 하루종일 체험활동을 하면서 행복하게 생활한다. 그런데 공부를 전혀 하지 않던 학생이 갑자기 대학이 들어가고 싶어서 공부를 자발적으로 시작하였을 때, 그는 12년 동안에 할 공부를 2~3년 안에 다 완료한다고 한다.

가정에서의 교육이 너무 타율성과 강제성에만 치우쳐서 아이들이 배움에 식상하게 만드는 것은 잘못이다. 학교에서의 교육이 미래에 대한 준비에, 상급학교의 진학을 위한 준비에 치우치고 있다면 가정교육은 체험활동으로 그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현재를 깊이 사는 것, 현재를 충분히 사는 것이 체험

활동이다. 학교에서의 교육이 지식 교육에 치우쳤다면 가정에서는 청소년들이 자유롭고 편안하면서도 넓고, 깊고, 풍부해 질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교육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각 개인에게 스스로의 교육을 추구하는 수고를 전가시키는 데에 있다. 그러나 교육이란 학교의 교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밖의 곳에서는 진행될 수 없다는 기묘한 신념을 극복하지 않는 한 스스로의 교육태도를 널리 보급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인간은 꼬치꼬치 캐기를 좋아하는 탐색적인 동물이며 설사 해결을 필요로 하는 문제가 없을지라도 그 활동적인 마음을 무활동적인 상태로 내버려둘 수 없는 존재이다. 인간은 일을 이것 저것 찾아보고, 그 착상을 이모저모로 생각해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새로 결합해 보고 새 견해를 얻으려고 헤매지 않고는 건널 수 없는 동물이다.

배우는 일은 삶에서 가장 큰 즐거움 중에 하나이다. 가장 중요한 배움은 배움의 즐거움을 아는 것이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 중요한 기능에 내재적 가치, 즉 즐거움이 부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동물에게도 자신이 속한 환경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특히 새끼 때에는 더욱 중요하다. 그래서 어린 새끼들은 호기심이 많고, 장난치기를 좋아한다.

사람에게는 배움이 특히 중요하다. 사람의 머리가 커서 태어날 때 어머니를 고생시키는 이유도 사람에게는 무엇보다도 배움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벌거벗은 원숭이’라는 책을 쓴 데스몬드 모리슨은 인간의 유년기가 다른 동물에 비해서 아주 긴 이유를 사람에게는 그만큼 배울 것이 많고, 배움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어서 배움은 그만큼 큰 쾌락을 준다. 평생의 즐거움인 것이다.

‘가르치지 않아도 꽃들은 피어나고, 까닭도 없이 파도는 밀려오는 데....’라는 노래가사에도 나오듯이 아이들은 부단히 배운다. 특히 어린 아이들은 행동과 감각을 통하여 배운다. 청소년들도 경험과 체험을 통하여 온몸으로 배우기를 갈망한다. 그리고 이렇게 온몸으로 배운 것들은 쉽게 잊어버리지 않는다. 조지 F 켈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집으로 가는 도중에, 그가 어두워가는 하늘로 무리 지어 날아가는 새 떼의 광경을 보았다면, 정원의 벽에 비치는 눈부신 햇빛을 바라보았다면, 멀리 저녁 대기 속으로 퍼져 나가는 차들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다면, 그는 이러한 인상들을 가슴 속에 담아 둘 것이며, 이러한 것들은 그에게 사물의 신비를 막연한 그리고 말없는 방식으로 가르쳐 줄 것이다. 삶의 표현 보다 광대한 삶 그 자체는 수많은 나름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한다. 친구의 말 속에서, 교향악의 흐름 속에서, 꽃밭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속에서, 도시의 광경 속에서, 공장의 사이렌 속에서, 고통의 속삭임 속에서, 환희의 외침 속에서. 만일 우리들의 학생들을 창조적이 되게 하려면, 그들로 하여금 삶에 귀를 기울이게 하라.

아들에게 원하던 장난감을 사 주었더니, 글씨도 잘 모르면서 설명서의 그림과 글씨를 보고 열심히 작동을 해 보고 시험을 하면서 작동 법을 배우려고 노력한다. 이것은 학자가 연구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 이 글을 쓰고 있으니까 아들이 설명서 보기를 그치고 내가 쓰는 글씨를 더듬거리며 읽기 시작한다. 옆에 앉아서 장난감 이름을 써보라고 주문까지 한다.

아들은 전자게임이 컴퓨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컴퓨터를 배우고 싶어한다. 컴퓨터에 관한 설명이 나오는 영어로 된 비디오 테이프를 보고 있어서, “재미있니?”하고 물었더니, “재미 없어, 하지만 컴퓨터를 배우고 싶어서 보는거야”하고 대답한다. 요즘 아들은 컴퓨터의 한글 워드프로세서로 글씨 쓰고 편지 쓰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그렇게 쓴 글씨를 프린터로 뽑아낸다. 자신이 프린트를 잘 못하겠으면 프린트로 뽑아달라고 요구한다. 며칠전 아들은 친구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조재현 예쁘게 자라서 슈퍼맨이 대.”

아이들은 항상 배운다. 길을 걸으면서도 배우고,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도 배운다. 특히 놀면서 많이 배운다. 잘 놀면 그만큼 많이 배운다. 온 정신이 다 팔려서 놀 수록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체형적 배움을 얻는다. 부모들의 무리한 계속적인 강요로 배움이라는 평생 즐거움을 평생 괴로움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이들이 일단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고, 주의를 기울이기를 배우고 나면,

그들이 일단 자신을 열고 자신들의 감정들을 자각하고 나면, 배움은 흥미진진하고 유일한 것이 된다. 배움은 개인적인 모험이 된다. 아이들이 개인으로서 완전히 존재하면, 그리고 즉각적인 상황을 자각하고 있다면, 거기에는 진정으로 흥미 있는 것을 탐구하고 적절한 자원과 재능을 사용할 내부로부터의 자유가 생겨나게 된다. 자각과 존재는 창조적인 에너지의 표현과 진정한 능력의 발전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좋아함과 욕망을 통하여 배울 자유를 갖는 것은 아동으로 하여금 갈등과 고통을 직면할 수 있게 하며, 실수를 할 수 있게 하며, 부정적인 경험과 긍정적인 경험 양자를 통하여 성장할 수 있게 한다. 배움은 삶의 만남이 되며, 자신에 대한 자신의 흥미진진한 펼쳐짐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자신의 흥미진진한 피어남이 된다. 그의 확장된 자각을 통하여, 아동은 그의 주요 관심사가 되는 자신의 세계의 측면들을 발견하고 동일시하게 된다. 유일한 자아로 성장하고, 중요한 관계를 발전시키고, 자신에게 의미가 있고 자아-가치감에 기여할 활동과 기획을 만들어 내고, 어떤 능력이 가장 만족스러운가를 발견하게 된다.

만일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고정된 지식과 신조만을 세세하게 주입시킨다면 우리는 젊은이들로 하여금 일찍이 폐퇴하여 버리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안되게 하려면 청소년들이 계속하여 성장하고 변화하는데 수단이 될 수 있는 자세, 사고의 습관, 지식, 이해력, 능력을 계발시켜 주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독자적으로 계속적인 혁신을 이룩할 수 있는 한 체계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곧 모든 교육의 효율성을 판단할 수 있는 한 기준을 암시해 준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에 의할 때 오늘날의 대부분의 교육은 엄청나게 비효율적이다.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그들 스스로 꽃나무를 가꾸는 방법을 가르쳐주어야 할 때 오히려 꺾은 꽃을 제공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우리는 그들에게 쇠신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보다는 이미 쇠신된 기성품을 머리 속에 가득히 채워주고 있다. 우리는 머리를 하나의 가용수단으로 생각하게 될 때 그것을 저장창고처럼 생각한다.

4) 윤리적 측면

수련활동은 그 목표로 청소년을 자유롭고도 도의적이고 책임 있는 존재로 만들고, 그들의 내부의 성품을 함양해야 한다. 그리고 자아를 초월하는 제 가치를 존중하도록 하여야 한다. 폴 탈릿히는 이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외면상 모순같이 보이는 자기공정과 자아를 초월한 헌신이라는 요구조건은, 인간이 스스로를 보다 큰 조화를 반영하는 존재로 보고, 또 우주의 창조과정에서 책임을 부담한 존재이며 또한 대우주의 창조과정에 대한 현미경적 참여자라고 간주할 때 거의 완전히 해결된다.”

윌리엄 제임스의 말에 따르면 ‘성숙한 개인은 그의 격동적인 작은 자아에 대한 봉사보다도 좀 더 큰 무엇에 대한 헌신, 즉 종교적인 헌신,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헌신, 사회적인 계획과 도덕적인 질서를 위한 헌신을 한다’고 한다.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행복의 상태 혹은 조건들, 즉 만족을 주는 것, 안락, 오락 그리고 모든 목표를 달성한 상태는 실상 인간의 행복을 이루지 못한다. 완전한 만족으로 본 행복은 인간이 열망할만한 상태가 아닌 것이다. 행복은 단순히 안락과 유쾌함이고 모든 것을 충분히 소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망상이다.

이야기 책의 행복은 욕망이 충족됨을 뜻하는 데 반하여 보다 진정한 행복은 뜻있는 목표, 즉 개인을 보다 큰 체제에서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도록 관련시키는 것이 내포된다. 이야기 책의 행복은 유쾌한 휴가에 관련되기 보다 진정한 행복은 목적 있는 노력을 추구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야기 책의 행복은 하릴없이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는 모든 형태의 유쾌를 포함하나, 진정한 행복은 개인의 역량과 재능을 완전히 발휘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4. 어떻게 가정에서의 수련활동을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를 이룰 수 있는가?

가정에서 수련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는 주어진 상태에서 재미있고 의미있는 체험활동을 정기적으로 행하며, 이러한 체험활동에서 최소의 비용(노력, 시간 및 예산 등)으로 최대의 효과(의미있고 즐거운 활동, 생활의 활력 및 재충전의 기회를 갖는 것)를 얻어내는 것을 말한다.

위와 같은 상태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우선, 부모와 자녀들이 같이 직업이나 공부 외의 삶의 질, 즉 체험활동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체험활동의 목표를 세울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세워진 목표를 잘 성취해 나가서,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때, 가정에서의 수련활동이 활성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에서의 수련활동의 활성화는 체험활동의 목표를 세울 수 있을 만큼의 동기, 그리고 그러한 목표를 잘 성취해 나갈 수 있는 기술들을 습득하는 것에 달려 있다. 가정에서의 수련활동 활성화는 좋은 프로그램과 부모의 능력과 성의가 있어야 한다.

가정에서의 수련활동은 우선 부모가 지도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처음에는 시간적, 경제적 여건이나 준비가 전혀 없이도 부모가 자녀들과 쉽게 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 아침에 일어나 같이 맨손체조를 하고 배드민턴과 같은 운동을 같이 한다거나, 같이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서 책을 빌리거나 사서 읽은 다음에 나중에 그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산책을 같이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이 진행되는 대로 내버려 둘 수도 있다. 혹은 산책을 하면서 꽃이나 나무 이름, 구름 이름, 별자리 등을 가르쳐 줄 수 있고, 또 자녀의 이야기를 듣거나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다.

조금 더 노력과 동기 및 경제적인 투자가 필요한 활동이라면 근처의 좋은 곳으로 가족이 나들이 가는 것이다. 조그만 야산이라도 좋고, 큰 산이나 바다나 강이 근처에 있으면 그곳으로 약간의 계획을 세워서 많은 준비를 하지 않

고 비교적 홀가분하게 가는 것이다. 아이들은 아주 가까운 곳이라도 나들이 간다고 하면 좋아한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여유나 시간적인 여유가 많을 때 2박 3일이나 3박 4일 시간을 내서 국토 탐사나 문화권 탐방, 가족 캠프와 같은 활동을 하면 될 것이다. 찾아보면 이렇게 생활 속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활동이 많이 있다. 중요한 것은 부모의 성의와 동기이다.

체험활동에 있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을 하기 원하는가를 아이들에게 물어보고, 아이들 각자의 의향을 가능한 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정 수련활동에서는 가족의 합의를 끌어내는 과정이 중요하며, 그것이 또한 아이들이 가정에서부터 민주주의를 배우게 하는 길인 것이다.

5. 수련활동의 이상

수련활동의 이상을 첫째는 청소년의 자율성 신장이라는 측면, 둘째는 청소년들에게 삶의 전체 과정을 이해시키려는 노력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수련활동은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들에 의한, 청소년의 체험활동이 되어야 한다. 물론 전적으로 청소년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더라도 청소년들의 자율성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APT의 작은 놀이터에 청소년들이 많이 모여서 농구도 하고, 여러가지 놀이를 하면서 놀고 있다. 이것이 수련활동의 이상이 아닐까? 수련활동에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유대, 더불어 사는 삶이 중요하다.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스스로 조직하여, 아무 간섭이나 지시없이 자유롭게 즐겁게 활동하는 것이 수련활동의 이상 중에 하나가 아닐까?

교육의 목표는 행복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수련활동의 목표도 마찬가지로 행복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행복한 사람은 남을 구박하거나 욕하지 않는다. 행복한 사람은 도둑질하거나 살인을 하지 않는다. 행복한 청소년은 비행이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행복은 행복을 낳고 불행은 불행을 낳는다. 행복은 아이들이 하고 싶은대로 다 들어주는 데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

랑과 규율 속에서 생겨나는 책임감과 자기-가치감에서 생겨난다. 수련활동의 목적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을 자율성과 책임감을 지닌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교육은 종래의 획일적이며 입시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인성을 중시하며 창조성과 다양성, 자율성과 진취성을 기르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지·덕·체·예를 겸비한 조화로운 성장을 위해서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과를 중심으로 한 교실에서의 학업활동과 더불어 다양한 수련활동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된다. 청소년들의 전인교육은 탐구하고, 놀고, 이야기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다. 단지 암기와 복종만을 강요해서는 청소년들의 전인교육은 힘들다.

입시 경쟁, 수많은 ‘하지마라’들은 청소년들을 찌들고 미숙하게 만들고, 청소년들보다 더 미숙한 성인을 만들어 낸다. 과중한 학업에 자유를 박탈당한 불행한 청소년들은 알게 모르게 스스로의 삶을 파괴한다. 청소년들에게도 자유가 가능하다. 너무 많은 자유를 빼앗아 청소년들을 불행에 빠뜨리고, 과중한 학업으로 청소년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삶을 파괴하고, 자신의 삶으로부터 도피하게 만드는 것을 아닐까?

청소년들에게는 통제나 규율 못지 않게 자유가 중요하다. 자유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의지력을 심어준다. 자유로운 생활은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든다. 자유로울 때 청소년은 전인격으로 세상에 대처하며 살게 된다. 청소년들에게는 지적인 것 뿐 아니라 감성적인 것도 중요하다. 사람은 느끼고 생각하는 데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행동의 원천이 되는 느낌과 생각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 어른의 행복이 중요한 만큼 청소년의 행복도 중요하다. 수련활동에는 기본적으로 자유와 사랑과, 자유와 사랑에서 파생되는 기쁨이 존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유와 사랑과 기쁨으로부터 청소년들은 스스로 피어난다.

청소년들에게는 모든 부담과 간섭을 벗어 던지고 긴장에서 벗어나 자유로움과 활동의 기쁨에 온전히 잠길 시간이 있어야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밝은 미래를 위해 준비할 필요가 있겠지만, 청소년들의 지

금-여기(현재)의 삶이 행복하고 기쁜 것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마음이 병들고 탈선하게 되는 것이다.

수련활동은 청소년들이 호연지기와 기상을 기르는 활동으로서 그 기본 정신은 신라시대의 화랑 정신과도 일맥상통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타고르는 ‘동방의 등불’이라는 시에서 수련활동이 지향해야 할 이상을 보여주고 있다.

동방의 등불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고
머리는 높이 쳐들린 곳
지식은 자유스럽고
좁다란 담벽으로 세계가 조각조각 갈라지지 않은 곳
진실의 깊은 속에서 완성을 향하여 팔을 벌리는 곳
지식의 맑은 흐름이
굳어진 습관의 모래 벌판에서 길 잃지 않은 곳
무한히 퍼져 나가는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인도되는 곳
그러한 자유의 천국으로
내 마음의 조국 코리아여 깨어나소서

수련활동의 이상은 청소년들에게 삶의 전체 과정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삶이 직장이나 직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다. 삶은 보다 넓고 심오한 어떤 것이며, 거대한 신비이며, 우리가 그 속에서 인간으로서 기능하는 광대한 영역이다. 우리가 단지 생계를 얻기 위한 준비만을 한다면, 우리는 삶의 전체성을 놓칠 것이다. 삶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지 시험을 준비하고 수학이나 물리학이나 다른 학과목을 잘하는 것보다 한층 더 중요하다.

우리가 삶의 그 모든 미묘성, 그 놀라운 아름다움, 그 슬픔과 기쁨을 포함

하는 광대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그 교육은 의미가 없다. 청소년들은 삶이 의미하는 모든 것을 알려고 노력하여야 하며, 수련활동은 청소년들의 그러한 노력을 돕는 활동이 되어야 한다.

삶이란

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다니는 것

축구장에서 환호하는 것

달리기 시합에서 꼴찌하는 것

바로 그런 것이다.

그리고 삶이란

강아지와 함께 놀고 강에서 수영하는 것

모래알 뜨거운 백사장에서 맨발로 달리는 것

바로 그런 것이다.

삶이란 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닦아내는 것과 같았다.

삶이란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한 호기심이며

삶을 잘 아는 사람들이 생각해 낸 것이기도 했다.

(한스 게오르그 노악)

삶과 앎과 사랑이 모두 한 어원인 삶에서 나왔다. 깊고 풍부하게 사는 것이 곧 배움이요 사랑이요 수련활동인 것이다. 청소년들이 끊임없이 묻고, 관찰하고, 배울 때, 그래서 진정으로 살아 있을 때 비로소 진리, 신, 혹은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진리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이 지성적이 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이 세계에 단지 적응하지 않고, 그것을 직면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유의 분위기를 창출해 내야 한다. 청소년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면, 청소년들은 탐구할 수 없으며, 관찰할 수 없으며, 배울 수 없으며, 깊은 자각 상태에 있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수련활동의 기능의 하나는 외적으로 뿐 아니라 내적으로 인간의 사고, 인간의 관계, 사랑

을 파괴하는 그러한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두려움이 없는 환경에서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들 대부분은 어떤 형태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두려움이 있는 곳에서는 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청소년들이 두려움이 없는 자유의 분위기, 원하는 것을 모두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삶의 전체 과정을 이해하는 자유가 있는 환경에 속하는 경험을 갖는다는 것은 중요하다. 이상적인 수련활동은 그런 두려움이 없는 자유의 분위기를 창출해 내어야 한다.

6. 수련거리의 방향

청소년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여가시간에 TV나 비디오를 시청하거나 책을 보거나, 노래방에 가거나 기타 다른 활동을 하는 선택의 기준이 무엇일까? 그 선택의 기준으로 세가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접근 용이성이다. 둘째는 재미이다. 셋째는 의미이다. 따라서 수련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세가지 방향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접근을 쉽게 만드는 것이다. 수련시설이나 활동에의 접근을 쉽게 만드는 것이고, 쉽게 할 수 있는 수련거리를 만드는 것이다. 둘째는 수련거리를 흥미있게 만드는 것이다. 셋째는 수련활동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수련활동은 우선 재미가 있어야 한다. 물론 수련활동이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하지만 수련활동이 학교의 수업과 차별이 되는 것이 압박, 경쟁, 타율성에서 벗어나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자기가 좋아서 참여하여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수련활동이라기보다는 학교수업의 연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그렇게 자유롭게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그 자체가 즐겁기 때문에 열심히 해보는 경험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러한 경험이 중요한데, 학교나 가정에서 그러한 경험을 할 기회가 적기 때문이다.

활동의 효과성과 의미의 기준도 청소년들이 활동에 얼마나 자발적으로 참

여하여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하였는가가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활동을 통하여 얻은 것이 많다면 그것이 활동의 의미와 기쁨을 더하여 주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것으로 여겨야 하고, 청소년들이 자유와 사랑의 순간을 가졌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의미는 충분한 것이다. 그러한 자유와 사랑의 경험을 통하여 청소년들은 스스로 피어나게 되는 것이다.

수련활동에서는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맞추어야 한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 학생으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된다. 요즘 학교 수련활동 기간의 2/3 이상을 유격 훈련과 비슷한 극기 훈련을 시키는 바람에 많은 학생들이 수련활동을 꺼린다고 한다.

학교에서 청소년들은 주로 수업에 의해서 배우지만, 수련활동에서는 창조적인 놀이와 사고를 통하여 환경 속에서 배우고, 놀고 활동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수련활동에서 청소년들은 경쟁이 아니라 협동을 통하여 자신감, 가치감, 자애심 등을 배우게 되어야 한다.

7. 참여에 의한 의사결정

라이덴 브라이슨은 말했다: “민주주의의 목적은 위대한 인간을 만드는 데 있다. 어떤 일을 하거나 민주주의 방식은 인간의 내재적 역량을 가장 잘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방법이 된다.” 개방사회가 마련하는 제도는 그 자체로서 혁신의 수단이 되지 않는다. 그 장점은 그것이 자유인을 양육하는 데 있다. 그리고 그러한 자유인은 그 최상의 상태에서 혁신의 무진장한 원천이 된다.

학생들이 민주적으로 생활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것이, 자신의 생활에 대해서 발언권이 전혀 없는 것이 현재 우리 사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학생들은 졸업 후에도 어떻게 민주주의에 참여해야 할 줄을 모르게 된다. 오늘날 민주주의가 진정한 민주주의가 되지 못하는 것은 학교와 가정에서 그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청소년 수련활동의 목적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 나

날이 새로와 지는) 능력을 갖추게 되어, 자율적으로 성장하고 배울 수 있게 만드는 데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자율권을 행사하고, 경험하고, 길러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특히 수련활동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자율 능력을 시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의도적으로 마련해 주어야 한다. 청소년들이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참여 정신을 신장시켜주어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자치권을 가지고 자신이 지켜야 할 규칙을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청소년들은 스스로 결정한 것은 잘 지킨다.

수련활동에서는 무엇보다도 자유가 필요하다. 자유로운 생활은 청소년들에게 의지력을 심어주며,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 지금 현재 우리사회의 청소년들은 생활의 모든 국면에서 타율성과 수동성을 강요받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너무 많은 자유를 빼앗아 청소년들을 불행에 빠뜨리고, 과중한 학업으로 아이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삶을 파괴하고, 삶에서 도피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자유대신 풍부한 물질로 아이들을 영원한 젖먹이로 전락시키는 것은 아닐까?

교육이나 수련활동이 똑같이 청소년에게 더 많은 책임의 능력을 부여해주는 활동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갖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교육이고 수련활동이다. 청소년들에게도 자유가 가능하다.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책임을 지고 자율적으로 수련활동을 하고, 배우는 청소년의 모습은 얼마나 멋진 모습일까?

지도자는 청소년들이 자율의 능력, 자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만 청소년들을 믿는 자유의 분위기가 창조될 수 있다. 청소년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청소년에게 신뢰를 보이는 태도일 것이다. 자신의 존재가 인정받고 있고, 사랑받고 있다는 것이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

청소년들이 책임있고 자율적인 성인으로 취급을 받는다면 청소년들은 자신의 성격자원의 한계 내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성숙하게 행동하려고 한다. 이것은 중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결정에 관여할 기회를 갖거나 찾게 된 많은 학생들의 아주 자립적이고 용기있는 행동에 의해서 더욱더 잘 설명될 수 있다.

그들에게 진지함, 관심, 그리고 적지않은 조직적, 정치적 기술이 나타났다. 책임있는 사회적 행동의 기대와 요구를 가진 집단 환경 내의 호의적이고 자아 지지적인 상황은 관계와 행동상의 성숙을 도모시킨다(전재일, 1991).

8. 청소년과 여가활동

현대인은 가속화 되어가는 생활 패턴 속에서 자칫 피로와 긴장에 쌓이기 쉽다. 이러한 피로와 긴장을 풀기 위해 여가생활의 선�용은 현대 생활의 필수로 여겨지고 있다. 이것은 청소년도 마찬가지이다. 여가를 단순히 놀이로 간주하거나 아무 일도 안하는 시간으로 여기는 통상적인 견해는 시정되어야 한다. 여가를 잘 이용할 줄 아는 것은 청소년의 행복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여가활동은 개인 혹은 집단활동이거나 간에 일반적으로 여가시간에 행해지는 제반 활동이다. 청소년들에게는 자기 발전을 위해서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다. 여가는 쉬도록 허용된 시간이 아니고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스스로 선택하는 시간’이다. 그 이유는 여가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자문 자답함으로써 자신의 태도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가 생활을 무쾌도하게 헛된 시간으로 낭비하지 않고 잘 이용할 수 있어야 하겠다.

청소년을 포함한 현대인은 대개 하루 24시간을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 활용하고 있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시간은 근본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일상생활의 시간으로 수면과 식사시간을 들 수 있다. 둘째로, 인간으로서의 생계와 생활 수단으로 노동, 학습 등 생산적인 일과 관계되는 시간을 들 수 있다. 셋째로, 일상생활에서 개인이 자유롭게 보낼 수 있는 구속받지 않는 여가시간이 있다. 여가시간은 삶의 질을 높여주고 생활을 다양하게 할 수 있으며 생산력을 높여주기 위한 힘을 재생하고 축적하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여가활동의 목적은 ① 기분전환하다 ② 마음을 상쾌하게 하다 ③ 위안을 주다 등이다. 여가활동의 내용은 ① 오락 ② 놀이 ③ 휴양 ④ 스포츠 ⑤ 취미 ⑥ 독서 ⑦ 산책 ⑧ 게임 ⑨ 재창조 ⑩ 즐거운 노동 ⑪ 봉사 ⑫ 원기회복

⑬ 기분전환 ⑭ 예술(음악, 미술) 등 다양하다.

여가활동은 신체적, 지적, 정서적 활동 등 여러 종류의 활동을 포함하며 사람의 욕구, 희망, 기호가 다양한 것 같이 그 형태도 다양하다. 여가를 어떻게 활용하는가는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다. 질 높은 삶이란 여가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달려 있다. 많아지는 여가를 잘못 활용하면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청소년들은 여가활동을 통하여 지능개발, 신체적인 건강, 사회적인 성숙, 성격발달 등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도 있지만, 약물 사용이나 비행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여가활동 시에는 올바른 선택이 중요하다. 수련활동은 청소년들이 여가를 의미있게 활용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한다.

젠슨(Jensen, 1977)은 여가활동에 대한 유형을 그 위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여섯가지로 구분하였다.

긍정적	봉사하는 여가활동	타인을 위함
	창조하는 여가활동	자신을 위함
	다른 사람이 계획한 활동에 참여	자신을 위함
	다른 사람의 활동이나 창작을 감상	자신을 위함
	시간을 보내기 위한 여가활동	자신을 위함
부정적	부정적인 가치를 포함한 여가활동	타인에게 피해를 줌

여가지도란 여가의 의의를 인식시키는 지도, 보다 많은 여가시간의 확보, 여가시간의 효율적인 활용, 여가활용의 내용과 방법의 지도 등을 말한다. 그러니까 여가활용의 의의를 이해하고 활용의 기초가 되는 흥미, 관심, 기능을 신장시켜 여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태도를 기르게 하는 것이다. 여가지도는 독서, 서도, 실험, 관찰, 조사 등과 같은 지적, 교양적 신장과 관련된 여가, 테니스, 수영, 등산, 요가, 단련 등 스포츠와 같은 건강과 관련된 여가, 음악감상, 영화감상, 그림 그리기 등 정서교육과 관련된 여가, 우표수집, 사진촬영, 채집, 여행 등과 관련된 여가, 특별활동, 특기활동, 발표회 등 교육을 흥미

롭게 하기 위한 여가 등 다양하다. 여가활동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하고 흥미로워야 한다. 청소년들의 체험은 건전한 여가활동에 의해서 풍부해 진다.

2장 지역사회 여건 문제

가정에서의 수련활동은 지역사회에서의 수련활동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왜냐하면 지역사회의 여건이 가정에서의 수련활동 여건의 큰 부분이 되기 때문이다. 자전거 타기나 여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사회에 자전거 전용 도로라든가 그 밖에 자전거 정류장 등의 시설이 되어 있지 않다면 자전거를 탄다는 것 자체가 교통에 방해를 주고, 자신에게도 큰 위험이 되기 때문이다. 그 밖에 가족이 함께 운동을 한다거나 산책을 한다거나 하더라도 산책을 할 수 있는 코스나 공원, 지역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실내 체육관과 같은 시설이 지역 사회에 있다면 그러한 활동은 한층 쉽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별로 큰 결심을 하지 않더라도 가정에서의 체험활동들이 자연스럽게 시행될 것이다.

이제 지방자치가 시행되어 지역은 지역 주민이 어느 정도는 꾸려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지역 단체장이나 위원들은 지역 주민의 여가활동을 도울 수 있는 시설 및 여건 마련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주민의 피부에 가장 와닿는 지역사회 향상 프로그램이다. 가정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울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성공을 거둔 단체장은 틀림없이 주민의 호응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닿는 지방 정부의 활동이기 때문이다. 새로 만든 주변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해 본 지역주민이나, 주변에 새로 만든 체육시설에서 아들과 같이 농구나 탁구를 해 보았다거나, 지역사회 회관에서 아프리카 춤 활동에 딸과 같이 참여해 보았던 사람들은 누구나 지방 정부의 활동을 직접 피부로 느끼게 된다.

이제 우리사회는 경제적인 향상은 어느 정도 이루었다. 이제 사람들은 여가 활동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청소년들과 성인들이 다 같이 공감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는 건전한 놀이 문화, 놀이 공간, 놀이 시설이 너무 없다는 것이다. 휴일에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 놀이 시설이 없다. 집에 있으면 근처에 쉽게 가서 운동을 할 장소도 별로 없고, 그저 TV나 책을 보거나 비디오를 빌려다가 보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나라 성인들이 앉으면 고스톱을 치는 이유도, 청소년들이 전자오락에 매달리는 이유도, 거리를 맥없이 방황하는 이유도, 모처럼 여가 시간이 생겼을 때, 이 황금같은 여가를 건전하게 보낼 시설이나 공간,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이 한 원인일 것이다. 지역사회의 이러한 필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호응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앞으로는 개성이, 개인주의가 점점 더 강조되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러면 집단적으로 하는 수련활동도 서서히 줄어들게 될 것이다. 수련활동도 개인이 선택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으로 될 것이다. 따라서 그것에 맞추어, 수련활동도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시설 및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다. 좋은 교육 및 수련활동 환경은 청소년들이 좋아서 찾게 되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솔선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프로그램을 갖춘 환경이 아닐까?

외국의 경우를 들어보자. 네덜란드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잘되어 있다. 독일, 프랑스, 미국 등 거의 모든 선진국들이 자전거 전용도로를 잘 만들어 놓고 있다. 이는 환경 보존을 위해서도 좋지만,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에도 그 효과가 대단히 클 것으로 여겨진다. 자전거는 교통수단도 되지만, 그 자체가 상당한 재미와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가져다 준다. 특히 자전거로 달리는 길의 주변 경치가 좋으면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자전거 타기는 자전거 전용도로와 같은 여건 마련이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협조가 필요하다. 다음은 지역사회 여건에 관한 독일의 한 사례이다.

1. 독일

독일의 어느 작은 도시를 처음 찾은 저녁 7시경 도시가 텅 비어 있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나중해야 그 이유를 알았다고 한다.

독일에서의 학교 수업은 대개 4시면 모두 끝난다. 그러면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저녁을 먹고 학교의 체육관으로 하나 둘씩 걸어서, 혹은 자전거를 타고 몰려온다. 체육관 안에서 먼저 몸을 푼다. 잠시 후에는 지역사회 자원봉사자가 나타나 피구, 탁구 등의 스포츠를 가르쳐 준다. 운동 선수를 기르기 위한 활동이 아니고 단순히 재미를 위한 활동들이다. 그래도 즐길 수 있는 스포츠 능력 향상에는 꽤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예를들면 아이들은 탁구대를 빙글빙글 돌면서 한명씩 탁구공을 받아넘기는 활동을 하는 데 받아넘기지 못한 아동들은 팔꿈치 펴기를 하는 벌칙을 받는다. 학교 체육관을 학생들 뿐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도 개방함으로써 학생들이 저녁 때의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게 하고 있다.

프리츠 스포츠 센터는 지역사회의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아동들은 레슬링을 한다거나, 유도를 배운다거나, 부모를 따라 에어로빅 및 댄스를 배운다거나 하는 활동들을 하는 데, 이러한 활동들은 심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재미로 하고, 아동들도 저녁 시간을 따분하게 혼자 지내느니, 이곳 스포츠 센터에 와서 재미있게 즐긴다. 레슬링이라고 해도, 그것은 아이들이 집에서 이불을 깔아놓고 하는 레슬링과 같은 기분이 들게 하고, 유도도 주로 게임을 위주로 하고, 기술은 약간씩만 가르쳐 주는 것 같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전부 자원 봉사자들이 운영을 하고 있다.

또한 동네의 어귀에는 청소년 카페가 있는 데, 이곳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지어준 것이라고 한다. 이 곳은 청소년들 뿐 아니라, 아동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와서 편안하게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 한쪽에서는 아동들이 모여서 숙제를 하고 있고, 청소년들이 모여서 즐겁게 환담을 하는 모습도 눈에 들어온다. 음식이나 마실 것의 값이 아주 싸서 아무 부담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천장에는 마치 천장을 뚫고 나가고 있는 듯한 모형 사

람 다리가 보이는데, 이는 ‘담배를 피울 사람은 지붕 밖으로 나가서 피우시오’라는 표시라고 한다. 운영하는 사람은 목사나 기타 지역 주민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독일에서는 지역 공동으로, 혹은 지역사회단체에서 청소년 복지시설을 제공하고,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주로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여가 생활에 지역사회에서 관심을 기울여, 청소년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시설과, 청소년들이 기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확보될 때 건전한 청소년 문화가 형성되고, 청소년들의 탈선 방지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다음은 진용석의 ‘현장에서 본 프랑스 교육’에서의 발췌 내용과 프랑스 유학생과의 면담을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프랑스 청소년 수련활동의 지역 사회 여건에 관하여 상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2.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그랑 바캉스가(여름방학이) 6월말부터 9월 초까지 근 80일이 나 된다. 방학 때에는 공부를 하지 않고 주로 열심히 노는 일을 한다고 한다. 그 후에는 6주 공부하고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등을 기준으로 2주 쉬는 식으로 학기가 진행된다. 학기 중에는 주 5일 수업인데, 수요일 쉬는 학교도 있고, 토요일 쉬는 학교도 있다.

프랑스에서는 맞벌이 부부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레저 센터’가 있어서 연령별로 수영, 그림 그리기, 연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취학전 아동들이나 방과후 혹은 휴일에 학생들에게 실시하고 있다. 연극은 얼굴만 분장하고 주변에 있는 간단한 소도구만을 가지고 부담없이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레저 센터를 이용하는 비용은 이용자가 조금 부담하고, 많은 부분을 시에서 보조한다.

레저 센터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자원봉사하는 청소년들로서 고등학생, 대학

생들이 대부분이고, 간혹 성인들도 있다. 이렇게 일한 것은 경력으로 인정
된다. 또한 이러한 경험을 쌓음으로써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수련시설의 지도
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자원봉사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 7~8명
당 한명의 지도자가 함께 한다. 그래서 숲이나 바다, 산으로 피크닉이나 수영
혹은 하이킹을 가는 아이들을 보면 마치 형제 자매들이 같이 놀러가는 것 같
이 보인다고 한다. 어린 학생들의 손을 다 잡고 갈 정도로 자원봉사자가 많기
때문에, 활동을 해도 통제는 거의 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자유롭게 자연스럽
게 수영을 하고, 모래성을 쌓는 등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놀게 하며,
지도자들은 둘러보면서 안전에 유의하고, 좀더 재밌게 노는 방법을 가르쳐 주
는 정도의 일을 한다고 한다.

숲이나 공원 등에서 놀이도 하고, 노래도 하고 노는 데 프랑스의 어린이들
은 신나게, 조금은 심하게 논다고 한다. 지도자들이나 교사들은 보통 아이들
이 그냥 멋대로 놀게 놔둔다. 하지만 그렇게 자유롭게 놔두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에 스스로 주의를 하고, 무질서 속에서 질서가 나타난다고 한다.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시설의 운영은 대부분 많은 자생적 단체들이 운영하
고 있고, 더 큰 단체에서 인력, 프로그램, 재정적 지원 등을 한다. 그랑 바캉
스의 경우, 그 지점들이 전국적인 망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 시청에는 이러한
많은 프로그램들이나 수련시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학생들을 수련시
설 혹은 활동들과 연결시켜주는 부서가 있어서, 시청에만 찾아가면 쉽게 자기
가 원하는 수련시설의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할 수가 있다. 또한 사정에 있어
서 바캉스를 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바캉스 보내는 국민적인 운동도 자주 하
고 있다고 한다.

지역사회에 자전거 도로가 잘되어 있어서, 아이들은 대부분 자전거를 한대
씩 가지고 있다. 아버지를 선두로 가족들이 같이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다. 파리 시 안에 있는 큰 숲을 한바퀴 둘러면 한시간 이상이 걸리고,
베르사이유 궁전은 오후 한나절을 잡아야 한다고 한다. 주변에 녹지, 운동시설
등이 잘되어 있어서, 가족들이 그런 시설을 이용하여 여가활용을 할 수 있다.

1) 그랑 바캉스(여름 방학)

프랑스의 교육성을 비롯한 정부기관에서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휴일이나 바캉스를 보람있게 지낼 수 있게 하는 것도 교실에서의 교육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기관이나 사회단체에서는 어린이들이 보람있는 바캉스를 즐길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배려를 아끼지 않는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보다 유익하고 보람있으며 편한 바캉스를 보낼 수 있게 하기 위해 바캉스 전담부서까지 둘 정도로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2) 바캉스 촌(Regis Renault)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부모들을 따라 약 한 달 동안에 걸친 그랑 바캉스를 떠난다. 직장을 가진 사람이라도 여름철에는 사 주일간의 유급휴가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부모를 따라 바캉스를 다녀온 어린이들의 상당수는 나머지 방학 기간을 어린이들만을 위한 바캉스 촌으로 가기도 한다.

어린이를 위한 바캉스 촌은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간혹 르노 자동차공사 같은 대기업에서도 직원들의 자녀를 위한 바캉스 촌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다음의 이야기는 아들이 바캉스 촌에 있을 때 그곳을 방문한 한국 아버지의 이야기에서 발췌한 내용들이다.

지중해 연안 생 라파엘 부근에 자리잡고 있는 파리 시의 바캉스 촌에 도착했을 때 인상적이었던 것은, 소나무 사이의 널따란 공지에 어린이들이 지낼 수 있는 건물 대신 들창도 제대로 없는 간이 건물들이 몇 개 세워져 있던 것이었다. 30명의 어린이들이 함께 잘 수 있을 정도의 간이 건물의 들창은 안에서 열어서 나무막대기로 걸쳐놓게 되어 있었고, 이중 침대가 열댓 개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이것이 어린이들을 위한 숙박시설의 전부였다.

아들(영재)에게 “그래 그 동안 재미있게 지냈니?”하고 묻자 ‘이곳에 오지 않았다면 크게 후회할 뻔했다’고 어른스러운 대답을 하면서 식사도 아주머니가

매일 맛있게 마련해주어서 대만족이며 항상 넉넉하게 먹을 수 있다고 했다.

마르세이유에서 대학을 다니는 자크는 여름방학의 아르바이트로 바캉스 촌의 책임자가 되어, 같은 나이 또래의 청년 네 명과 함께 어린이들의 여름철 선생님이자 친구로 같이 생활하고 있었다.

변소도 간이식으로 되어 있고 수도물도 나오지 않는 바캉스 촌에는 전기는 물론 들어오지 않았다. 어린이들은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지면 잠자리에 드는, 글자 그대로의 원시생활을 하고 있었다. 자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도중 영재와 친구녀석들은 다시 소나무 숲 쪽으로 뛰어가더니 콧속의 나무토막을 하나씩 들고 전쟁놀이를 시작하였다. 어떤 어린이는 돌까지 던져 투석전으로까지 전쟁놀이가 확대되었고, 나무칼에 찔린 녀석들은 죽은 시늉을 하면서 그 자리에 쓰러지고 같은 편 어린이가 뛰어가서 응급치료를 해주면 다시 일어나 참전하는 것이었다. 어린이들의 전쟁놀이가 너무도 위험스럽게 보였기 때문에 자크에게 ‘그냥 내버려 둘 참이냐’고 물었더니, 당연하다는 듯 ‘위’하고 웃는 것이다....어린이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고 금지사항을 늘어놓는 일은 하지 않으며, 그냥 내버려두니까 오히려 어린이들 자신들이 서로 조심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바캉스 촌에는 어디를 가나 흔해빠진 어린이 놀이터와 같은 시설은 없었고 스포츠 시설도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각지에 산재해 있는 바캉스 촌에 따라서는 여러가지 스포츠 또는 오락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어 어린이들이 이들 시설을 이용하고 즐길 수 있게 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이 바캉스 촌은 자연 그대로의 환경에서 어린이들이 뛰어 놀게 하는 것이 특색인 것 같았다. 시설을 마련하려면 그 정도의 예산은 어디서든 염출할 수 있을 법도 했지만 자연 그대로의 바캉스 촌을 마련한 것은 그대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저 잠자고, 먹고, 뛰어 놀고, 수영하면서 한 달을 보내는 것이다.

마침 점심시간의 호각소리가 나자.... 간이숙소 건물 옆에 마련된 나무의자와 통나무 식탁에 백여명의 어린이들이 자리를 잡고 접시에 가득 찬 야채 샐러드와 그날 주식으로 나온 큼직한 양고기 한 점씩을 맛있게 먹기 시작하였

다.

점심시간이 끝나자 어린이들은 약속이나 한 듯 제각기 숙소로 들어가더니, 수건과 수영복을 들고 나왔다. 오후에는 수영을 가는 것 같아서 자크에게 어디에 가느냐고 물어 보니까 약 4킬로미터가 넘는 길을 걸어가서 수영을 한 후 다시 걸어온다는 것이었다. 아침에는 공차기 또는 전쟁놀이로 시간을 보내고 오후에는 먼 길을 터벅터벅 걸어서 수영을 하고 나서 저녁을 먹는 바캉스촌 생활이 어린이들에게는 정말 재미있는 모양이었다.

국민소득이 세계의 최상권에 속하는 프랑스에서는 다소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어린이들을 원시적인 생활환경에서 마음껏 뛰어 놀고먹고 마시게 함으로써 건강한 시민으로 키우는 것을 현장에서 지켜본 인상은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다.

위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프랑스의 바캉스 촌에서는 100명이 넘는 어린이들에 지도자 5명 정도가 배정되어 있지만 그리 많은 통제를 하지 않고 대강의 시간 일정한 정해주고, 저희들끼리 놀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민학교 3학년 때 영재가 갔던 부르타뉴 지방의 바캉스 촌은 생 라파엘 부근에 있던 자연 그대로의 바캉스 촌과 비슷한 곳이었는데 숙박시설은 현대식으로 갖추어진 곳이었다. 유스 호스텔 비슷하게 건립된 바캉스 촌의 숙박소에는 샤워장과 화장실도 깨끗이 갖추어져 있었고 방마다 침대가 4개씩 있었는데, 식사도 큼직한 규모의 식당에서 모두 함께 들도록 되어 있었다.

부르타뉴의 바캉스 촌은 해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루에 한차례씩 바닷가로 나가 수영을 하기 위해서는 버스 편을 이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영재는 시설이 좋다고 해도 생라파엘 바캉스 촌이 훨씬 재미있었다고 몇 차례나 이야기했었다.

역시 어린이들에게는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각종 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바캉스 촌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환경이 더욱 좋은 모양이었다. 프랑스에서는 이와 같은 어린이들의 취향을 이해하고 생 라파엘에 있는 것과 같은 바캉스 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영재가 난생 처음으로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4학년 때 다른 프랑스의 어린이들과 함께 바캉스를 보냈던 아일랜드는, 바캉스 촌이라기보다는 제각기 민박을 하면서 오전에는 영어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가며 영어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자전거를 타고 해변으로 가거나 들판으로 가서 마음껏 뛰어 노는 그런 곳이었다. 민박을 하기 때문에 집에서도 영어를 쓰고 선생님들이 정식으로 영어 공부를 가르치기 때문에 한 달 동안의 아일랜드 생활에서 영재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영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영재의 이야기에 따르면 매일 오후시간에는 같이 간 친구들과 함께 자전거를 세 내어 빌려 타고 이곳저곳을 다녔는데 부근에는 프랑스 뿐 아니라 유럽 각국에서 온 어린이들이 많이 있어서 그들과는 주로 아일랜드에서 배운 영어로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이다.

한 달 정도의 바캉스 촌을 가는 데 소요되는 경비는 육백여 프랑(1프랑이 160원 정도임) 전후였고 영어나 독어도 배울 겸 외국으로 떠나는 바캉스 비용은 천프랑에서 천 오백 프랑 사이였다고 기억된다. 물론 이 금액은 국가의 보조금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보다 싼 값이다.

3) 상트르 아에리(종합 바캉스촌)

파리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가정 사정 또는 부모들의 직업 때문에 부모들과 같이 바캉스를 떠나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파리 교외의 여러 곳에다가 상트르 아에리라는 종합 바캉스 촌을 만들어 어린이들을 아침에 데리고 가서 마음껏 놀게 하고 저녁에 데리러 온다. 각 학군마다 상트르 아에리에 가는 어린이들이 모이는 학교가 한 개씩 지정되는데, 영재는 물론 경제와 명재도 간혹 상트르 아에리에 가서 몇 주일씩을 지낸 적이 있었다. 역시 지도 선생님은 대학생들이 대부분인데, 어린이들은 이들 대학생 선생님들을 무척이나 따랐다.

상트르 아에리에 가기 위해 어린이들이 모이는 학교에는 아침 시간이 되면 평소에는 시내버스로 운행되는 버스가 행선지를 떼어버리고 ‘어린이 운송용’이란 팻말을 붙이고 도착한다. 어린이들은 파리 시에서 마련해 주는 버스를 타고 상트르 아에리에 가서 하루를 즐기고 다시 버스를 타고 학교로 돌아온

다. 버스는 무료이다.

상트르 아에리는 간이 식당까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따로 도시락을 싸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되며, 숲속에서 또는 들판에서 점심 때가 되면 아주머니들이 마련해 주는 점심식사로 즉석 피크닉을 즐기는 것이다.

4) 클라스 드 네주(설국의 교실)

프랑스의 국민학교 어린이들이 일생 동안 기억에 남는 겨울 바캉스는 클라스 드 네주라고 불리는, 글자 그대로 겨울철 교실을 눈이 많이 내리는 알프스 쪽의 산장으로 옮겨서 오전에는 정상수업을, 오후에는 스키 타기를 배우고 즐기는 특별 바캉스라고 할 수 있다.

국민학교 졸업반 어린이들에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국에서는 3주일 간에 걸친 클라스 드 네주를 마련해 준다.

클라스 드 네주 같은 겨울 바캉스 제도야말로 프랑스의 성인들이 그들의 2세들에게 베푸는 값비싼 호화판 바캉스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재정적 여유가 있다고 해서 가능한 것만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었다. 2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해주어야겠다는 기성세대의 결단과 국가 경영상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클라스 드 네주의 비용에서 교통비, 숙식비, 스키 타기에 드는 비용 중 약 70퍼센트는 국가에서 부담해 주고 나머지는 부모들의 부담이 되지만, 30퍼센트의 비용도 내지 못할 형편의 가정에 대해서 따로 보조금이 지급된다.

5) 미술 아틀리에

수요일(혹은 토요일)은 프랑스 전체 국민학교와 중·고등학교가 노는 날이므로 이 날을 이용하여 어린이들은 여가활동에 열중하게 된다. 미술 아틀리에에서는 그림도 그리고 도자기와 같은 오브제도 만든다. 미술 관계 아틀리에에는 아주 많이 있으며, 약 20-30평 정도의 공간에 어린이들이 이것저것을 그리거

나 만들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으며, 미술을 전공한 선생님들이 특별히 지도하는 것이다. 그럼만 그리는 경우는 한 달에 50프랑 정도이며, 도자기와 같은 오브제를 만들게 되면 재료값이 추가되어 백프랑 정도를 내게 되어 있다.

아틀리에의 임대료 일부를 시에서 보조하고 있다. 어린이들의 예능 관계 활동을 진작시켜 주기 위해 시청 교육국에서 미술관계 아틀리에나 음악 지도에 까지도 보조금을 지급한다. 교육성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교에서의 예능 교육만으로는 어린이들의 창작능력을 계발하는 데 불충분하다고 간주하고 사립 아틀리에까지도 임대료의 일부를 보조하는 식으로 어린이들의 과외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사실 아틀리에뿐만 아니라 시립 어린이 도서관에서도 어린이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어 있고 간단한 공작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퐁피두 문화 센터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현대 미술 센터로 꼽히고 있는데, 여기에도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특별실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어린이들은 부모들을 따라 또는 자기들끼리 퐁피두 문화 센터에 가서 전시된 그림들을 감상하고 어린이를 위한 특별실에 와서 그림을 그리거나 오브제를 만든다.

시립 도서관이나 퐁피두 문화 센터에 마련된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무료이며 간단한 재료까지도 무상으로 제공해 준다.

6) 음 악

파리 시에서 주관하는 음계 공부반은 초급, 중급, 고급의 세 반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수업료는 의외로 싸서 한 달에 20여 프랑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다. 정부에서는 문화성 음악국과 교육성이 합동으로 국민 음악교육의 청사진을 마련하여 각 행정구역 단위로 어린이들에게까지도 수준 높은 음악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와같은 국가 정책에 의해 파리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물론 중소도시에 이르기까지 어린이들을 위한 음악과외가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었다. 이렇게 음악이나 미술 공부의 과외는 국가에서 주선하고 장려하지만, 과외공

부에 드는 비용이 부모에게는 큰 부담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는 치밀한 배려를 하고 있다.

미술이나 음악 또는 체육 관계 과외활동 말고도 수요일이나 토요일 오후에는 외국어를 특별히 공부하는 어린이들도 많다. 이와같이 프랑스에서는 과외활동을 잘 활용하고 있다. 외국어 교육, 예술교육, 체험활동 등 학교의 체제로는 효율적으로 할 수 없는 활동들을 과외활동을 통하여 하고 있다.

프랑스의 어린이들은 무척 바쁘다. 시험지옥에 대비하기 위한 치열한 시험 공부 때문에 바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성인으로 키우기 위한 학업과 예능 또는 체육활동으로 바쁘다. 앞으로의 그 나라의 문화력에 의해서 국가 경쟁력이 좌우된다고 한다. 이러한 정책은 아이들의 삶을 풍요롭게 할 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증가시키는 데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Ⅲ. 가정 수련활동의 운영모형

1장 부모에게 필요한 태도 및 기술

가정에서의 첫번째 체험활동은 가족간의 상호작용이다. 그것은 말, 태도, 미소, 행동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문을 잠그고 방안에 혼자 틀어박혀 있는 것도 체험활동이다. 이러한 일상에서의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두번째 가정 체험활동인 가족이 함께 행하는 활동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간의 상호작용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술이나 태도를 부모나 청소년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

1. 상호작용으로서의 체험활동에 필요한 태도와 기술

1) 대화

가정에서 부모-자녀간의 대화와 인간관계의 형성으로 자녀 문제와 가정의 문제를 예방하고 가족 응집력도 강화할 수 있다. 여가시간에 가족 간의 대화는 단순한 문제해결과 의견조정차원을 넘어서 소속감, 의지력, 동일시, 긴장해소 등 심리적 효과가 크다. 가족 간에 대화를 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대화는 가정에서의 수련활동의 기본이다. 가정에서의 수련활동의 모든 과정은 대화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한 가족 간의 대화를 통하여 가정에서의 분위기, 즉 가정 수련활동의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들은 바람직한 대화의 자세와 기법을 습득하여야 한다. 대화의 자세와 방법을 살펴보면: ①경청하고, ②이해하고 공감하고, ③그 다음에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말하는 것이다.

대화의 기본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고, 상대방의 체험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가족 관계에서 논리란 한계가 있다. 아이의 감정, 마음의 세계를 인정하고 그것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아이들의 체험 세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논리와 설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세계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공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용해야 한다. 부모는 아이의 옹호자이다. 잘못된 행동을 봐 주거나 비행을 허용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법칙 안에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2) 비판의 방법

부모의 비판은 대부분 무익하다. 그것은 분노, 적개심, 복수심을 불러일으킨다. 부모의 비판을 계속해서 받은 자녀는 자신이 가망 없다고 믿게 되고 다른 이에게서 결점을 찾아내게 된다. 아이는 자기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가볍게 보게 된다. 타인을 의심하게 되며 자신의 파멸을 기대하게 된다. 자녀가 길을 잘못 들었을 경우라도 비판은 마지막 방법으로나 사용하여야 한다.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바른 길을 안내해 줄 친절한 인도자이다. 건설적인 비판이란 현재의 사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 도움이 되는 비판이란 성격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어려움에 처한 사건 자체만을 다룰 뿐이다.

아들이 물을 쏟았다. 아들: 이런, 나는 조심성이 없지요. 아버지: 물을 쏟았을 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아들: 그럼 뭐라고 해요? 아버지: 이렇게 말해야지. 물이 쏟아졌네. 닦아야지. 아들: 그냥 그러게요? 아버지: 그냥 그러게. 아들: 고마워요, 아버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 가장 큰 것은 각자 특정한 특질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이다. 저 사람은 친절하고, 저 사람은 지독하고, 현명하고, 바보같고, 정열적이고, 냉담하고 등등. 인간은 그렇지 않다. 인간은 강과 같은 것이다. 어느 강이나 다 여기가 좁아졌는가 하면 저곳에서는 넓어지고, 여기

서는 빨리 흐르고 저기서는 서서히 흐르고, 이제 맑아지고 이제 차고 이제 미지근하고 이제 따뜻해지는 것이다. 사람도 그와 같다.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인간적인 특질을 다 지니고 다닌다. 어떤 때는 이런 특질을 나타내고 어떤 때다른 특질을 나타낸다. 그리고 사람이란 자기 자신으로 남아 있으면서 가끔 다른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비판의 방법을 살펴보면: ①성품상의 특징을 공격하지 말 것 ②성품상의 특성을 비판하지 말 것 ③사건 자체를 다룰 것 ④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일반화시키지 말고, 사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라.

3) 분노처리 방법

나는 친구에게 화가 났다.

나는 화났다고 말했다. 내 분노는 가라앉았다.

나는 원수에게 화가 났다.

나는 화났다고 말하지 않았다. 내 분노는 끓어올랐다.

화를 진정시키려면 우리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솔직히 시인하고 점잖게 받아들여야 한다. 분노를 억누르기만 하는 대신에 부모는 비파괴적인 방법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이러한 표현은 부모에게는 어떤 해방감을 주어야 하고 아이에게는 깨달음을 주어야 하고 쌍방간에 어떠한 쓴 뒷맛을 남기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비난의 처리에서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화가 났다 하더라도 아이의 성품이나 성격에 관해서 모욕하지 말아야 한다.

분노를 다루는 방법은 어떤 속상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다른 말을 덧붙이지 않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거슬리는 것을 계속할 때엔 어떻게 할까? 포크로 접시를 두드리기 시작하는 아이에게 엄마가 “그 소리가 내게 몹시 거슬리는구나.”라고 말했고, 아들은 몇 번 더하고는 그만 두었다. 이 방법은 효과적인데 왜냐하면 엄마는 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엄마는 자기의 불쾌감을 표시한 것이고 아들이 반응을 보인 것에 만족했다. 중요한 점은 아이

들은 그 당장에 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잘못된 행동을 잠시 동안은 계속하도록 놔두는 것이 필요하다. 자발적으로 멈추려면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말을 했는데도 거슬리는 행동을 계속하면 “거슬린다.” “애, 굉장히 거슬린다.” “화난다.” “정말 화가 난다.”와 같이 점증적인 표현을 사용한다. 이러한 점증적인 표현의 목적은 우리의 긴장감을 줄이고 어떤 해방감을 가져오는데 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우리 인내심의 한계로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경고를 아이에게 주는 것이다.

우리의 인내심이 한계에까지 부딪혔을 때, 분노가 갑자기 솟구쳐 올라 부글부글하고 터지기 직전일 때는 다음과 같이 반응하도록 노력한다: ①당신이 본 것을 묘사하라 ②당신이 느끼는 것을 설명하라 ③무엇이 필요한지를 말하라 ④공격하지 마라.

4) 칭찬

칭찬은 사람이나 행동에 대한 진실되고 긍정적인 평가이다. 칭찬은 비판과 마찬가지로 파괴적일 수 있다. “넌 항상 착해.” “넌 항상 마음이 넓어.” “넌 항상 정직해.” 이러한 칭찬들은 불안감을 조성한다. 그것은 사람을 불가능한 것에 매달리며 살게 한다. 아무도 항상 착하고, 항상 관대하고, 항상 사려 깊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건 인간이 아니다. 성품이나 성격을 평가하는 칭찬은 불쾌하며 안전하지 못하다. 성격에 대한 직접적인 칭찬은 직사광선과 같아서 불편하고 눈을 감게 한다. 노력이나 성취, 느낌에 대한 칭찬은 유익하며 안전하다.

평가하지 말고 다면 묘사하라. 사건 자체를 다루어라. 느낌을 묘사하라. 성취한 것에 대한 현실적인 묘사를 하고 사람을 칭찬하지 마라. 사건에 대한 묘사는 현실적인 자기 이미지를 갖도록 해 준다. 칭찬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우리의 애기와 아이의 결론이다. 어떤 점에서 칭찬이란 우리가 말로 한 후 아이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다.

우리는 아이의 일, 노력, 성취, 사려깊음, 창의력을 높이 산다는 걸 분명하

게 묘사하여야 한다. 우리는 특정한 일과 우리의 특정한 느낌을 묘사하여야 한다. 그러면 아이 자신이 자기의 성품과 성격에 대한 전반적인 결론을 얻어 낼 것이다. 우리의 얘기가 현실적이고 이해심 있는 것이라면 아이의 추리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것이 될 것이다. 예를 보자.

유익한 칭찬: 네가 만든 책꽂이가 참 좋다. 실용적이고 보기도 아주 좋다.

긍정적인 추론: 나는 일을 잘 해냈어. 나는 능력 있어.

(해로운 칭찬: 너는 훌륭한 목수야.)

5) 아이들의 자유와 자율성 존중

부모는 아이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자율성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려면 부모가 아이들이 자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될 수 있으면 많은 선택권을 주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자유라는 것은 대안이나 선택권의 존재를 뜻한다. 아이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이 주어질 때 비로소 아이들이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아이들에 대하여

그대들의 아이들이라 해서 그대들의 아이는 아닌 것.
아이들이란 스스로 갈망하는 삶의 딸이며 아들인 것.
그대들을 거쳐왔을 뿐 그대들에게서 온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비록 지금 그대들과 함께 있을지라도 아이들이란
그대들의 소유가 아닌 것을.

그대들은 아이들에게 사랑을 줄 수는 있으나
그대들의 생각까지 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그들 자신의 생각을 가졌으므로.

그대들은 아이들에게 육신의 집은 줄 수 있으나
영혼의 집마저 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영혼은 내일의 집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대들은 결코 찾아갈 수 없는, 꿈에서도 가 볼 수 없는
내일의 집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대들은 아이들과 같이되려 애쓰되
아이들을 그대들과 같이 만들려 애쓰진 마라.
왜냐하면 삶이란 결코 뒤로 돌아가진 않으며,
어제에 머물지도 않는 것이므로.

그대들은 활이요, 그대들의 아이들은 살아있는 화살처럼
그대들로부터 앞으로 쏘아져 나아간다.
그리하여 사수이신 신은 무한의 길 위에 한 표적을 겨누고
그분의 온 힘으로 그대들을 구부리는 것이다.
그분의 화살이 보다 빨리, 보다 멀리 날아가도록.
그대들 사수이신 신의 손길로 구부러짐을 기뻐하라.
왜냐하면 그분은 날아가는 화살을 사랑하는 만큼,
흔들리지 않는 활도 사랑하시므로.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 속에서)

아이들이 활동하는 데 방해를 받고 자기의 책임을 수행하는 데 저지를 당하면 그의 마음 속에는 분노가 생긴다. 이러한 분노로 인하여 앙갚음을 해야겠다는 공상이 생기고, 결국에는 죄책감이나 보복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불안을 느끼게 된다.

근본적으로 아이의 생활이 어떤 일을 하는 능력에 대한 어른의 요구에 의해 지배될 수는 없다. 능력이란 말은 아이들에게는 원수와 같다. 아이들은 어떤 일에 빨리 숙달되진 못한다. 그들이 구두끈을 매고, 옷에 단추를 잠그고,

양발을 신고, 책가방을 채기고 하는 일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아이를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는 데 대한 격려를 해주고 관용성 있게 기다려 주는 것이다.

가정에서의 수련활동이든 학교에서의 수련활동이든 학생들에게 활동의 선택에서부터 운영의 책임까지를 맡기고, 교사들이나 지도자들은 옆에서 지켜보면서, 크게 잘못되었을 경우나 사고가 안 나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은 본래 자기가 선택하고 책임지고 있는 일을 열성적으로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서 청소년들의 능력이나 태도가 향상된다. 또한 자신이 믿음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청소년들에게 자기-확신감을 심어 준다.

6) 실패에 대한 관용성

실패를 감내할 수 있는 용기와 분위기가 중요하다. 이 세상은 비길 데 없는 배움터이며 인생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잊지 못할 선생인 것이다. 우리는 실패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에 대하여 막중한 대가를 치른다. 그것은 성장에 대한 하나의 거대한 장애물이다. 그것은 개성을 점점 협소하게 만들고 탐구와 실험을 미리 저지하고 만다. 난관이나 모색없이 배울 수는 없는 것이다. 만일 배움을 계속하고자 할 진데 실패를 평생토록 계속 모험하여야만 한다. 아이들이 실패를 얼마나 두려워하는가는 자식들의 실패에 대한 부모의 태도에 의해서 크게 결정된다. 아이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일든지 시도해 볼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허용하고 오히려 즐길 수 있는 그런 가정 분위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시형 박사의 저서 “배짱으로 삼시다”에 나오는 한 사례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다.

수지는 학교 성적도 시원찮았다. 이렇다 할 실력도 없이 여러 회사에 응시했으나 낙방만 했다. 그녀가 이 회사에 지원할 때 사람들은 미친 것이라고 모두 웃었다. 그 실력에 그런 인류 회사란 당치도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조금도 구김이 없었다. 그렇다고 꼭 되리라 자신이 있는 것도 물론 아니었다. 떨어지면 또 다른 회사에 지원하면 그뿐이란 생각이었다.

면접에서도 그녀는 참 솔직했다. 타이프도 그렇고 계산기도 잘 조작할 줄 몰랐다. 그러나 한 가지 자신있는 것은 차를 잘 끓인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명랑했다. 여러 번 낙방을 하고도 실의에 찬 어두운 모습이 전혀 아니었다. 사장은 그게 마음이 들었다. 수지는 입사 후 회사 전체의 마스크트가 되었다. 사장은 어려운 일에 부딪칠 적마다 수지를 쳐다보면 용기가 난다고 했다.

이제까지 가족 간의 상호작용으로서의 가정 수련활동에 필요한 태도와 기술을 설명하였다. 다음은 활동으로서의 가정수련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기술 및 태도들을 살펴보겠다. 가정에서의 수련활동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선 가정에서의 수련활동의 중요성을 깨닫고, 가정수련활동의 목표를 세워야 한다.

2. 활동으로서의 체험활동에 필요한 태도와 기술

1) 가정에서의 수련활동의 중요성을 깨달아라

균형 잡힌 삶을 위해서는 여섯 가지의 범주에서 각각 목표가 있어야 한다: 영적인, 직업적인, 재정적인, 사회적인, 지적이고 문화적인, 그리고 신체적이고 여가선용적인. 여기에서 영적인, 사회적인, 지적이고 문화적인, 그리고 신체적이고 여가 선용적인--이 네 가지 영역들은 모두 가정에서의 수련활동의 목표가 된다. 따라서 직업이나 돈을 벌기 위한 활동뿐 아니라, 체험 활동들도 인간의 삶에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2) 성공 마음 세트

무슨 일에선 성공하는 사람은 승리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성공에 대한 욕망과 기대감 둘 다 가지고 있다. 자주 실패하는 사람들은 욕망은 가지고 있지만 기대감은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가정에서의 수련활동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면, 가정에서의 수련활동의 성공에 대한 성공 마음 세트, 즉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져야 한다.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실시한 ‘경주가족자전거문화기행’에 참여하신 어머니 한분이 보내주신 체험담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하지만 가장 큰 보람은 뭐니뭐니해도, 솟아오르는 생각들을 접어 눌러 놓았는데 지금부터는 그러지 않기로 했다. 국내여행에서의 이 경험을 토대로 5년쯤 후에는 유창한 영어실력을 쌓아 유럽 배낭여행을 식구 모두 다녀오는 것이다. 나이란 결코 생물학적인 나이만 존재하는게 아니라는 걸 이번 여행에서 절실히 깨달았다.”

3) 스스로 목표를 세우라

성공적인 사람은 자신이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성공한다. 목표를 세우는 것은 당신이 어디로 가기를 원하고 무엇을 원하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도와줄 것이다. 목표를 세우는 것은 당신이 기분에 따라 바람처럼 떠돌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정에서의 수련활동도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한다. 그것이 당신이 가정에서의 보다 풍부한 여가생활과 체험활동을 위해 장기적인 목표를 확립하고 있고, 이러한 장기적인 목표들을 향하여 가게 만들기 위해 오늘과 이번 주에 무엇을 성취해야 하는가에 대한 단기적인 목표들을 세웠다는 것을 의미한다. 목표를 갖는다는 것은 당신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가시키며, 당신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쉽게 만들어 준다.

4) 약간 꿈꾸어라

어떤 체험활동들을 원하는가? 가정 수련활동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신의 삶에서 무엇을 원하는가? 자신과 자신의 환경에 어떠한 변화를 만들기를 원하는가라고 자신에게 물어라. 자신의 주요 관심들을 생각하고, 자신의 능력을 현실적으로 평가하라. 활동들의 목록을 만들 때에는 창조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활동 목록 중에서 실제로 실시할 활동을 선택할 때에는 분별력과 비판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어진 목적과 제한 조건에 알맞은 활동을 선택한다.

5) 종이의 위쪽에 자신의 목표들을 적어라

이제 그것에 도달할 방법을 생각한 다음 그것을 적어라. 이것이 중간 목표들이 될 것이다. 이것들을 우선 순위를 다시 정해야 한다. 예를 들면, 청소년 혼자 외갓집 보내기, 혹은 아는 사람과 가정 교환해서 생활해보기, 도보 여행, 친구끼리의 국토탐사, 친척 아이들 한군데 모아 놀기, 색다른 어떤 활동 및 체험을 하는 것, 고래 혹은 새 바라보기, 전에 가보지 않은 시골이나 도시를 가 보기, 유럽 배낭 여행 하기 등.

6) 목표를 구체적으로 만들라

목표들을 구체적이고 측정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한가지 좋은 방법은 그것에 날짜를 부여하는 것이다: “8월 1일까지 나는 무엇을 하겠다.” “날마다 가족이 아침 운동을 할 것이다”와 같이 날짜를 부여할 수 없는 목표들에는 시작 날짜를 부과하라.

7) 가정에서의 수련활동을 즐겨라

특히 가정에서의 수련활동은 그것이 즐거운 것이 아니면 그것은 가정에서의 수련활동으로서 의미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 성원들이 함께 즐겁게 할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8) 모범이 되는 사례들을 읽어라

이 연구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제시하려고 하는 이유도 그런 사례들이 수련활동에 대한 동기를 유발시키기 때문이다.

2장 가정 수련활동의 기본적인 틀

1. 가정 수련거리 선정의 원리

가정 수련거리의 내용은 가족들에게 보다 친근감을 주고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가족 간의 격의 없는 의사소통을 통하여 이를 확보할 수 있다. 가족 구성원들의 특성과 요구간의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이러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이 가족들 간의 의사소통, 이해, 유대감을 증진시킬 것이며, 이 과정이 하나의 가정수련활동이다.

가정 수련활동 내용은 가족들에게 신선하고 유쾌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그리고 수련거리의 내용은 활동을 통하여 가족들의 창의력, 문제해결 능력, 탐구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가족들의 능력과 흥미에 맞는 수련활동을 선택하여야 한다. 자녀의 흥미, 관심, 능력, 경험, 성격, 심신의 발달상태, 준비성 등 자녀가 지니고 있는 특성과 상황적 요소를 고려하여 수련활동이 선택되어야 한다. 보다 효과적인 가정

수련활동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몇가지 수련거리 선정의 원리들이 있다.

① 적합성

가정 수련활동은 참가하는 가족들의 능력과 흥미 수준에 맞는 것이라야 하며, 자녀들의 발달단계에 적합하게 선택되어야 한다. 또한 자녀의 전반적인 성장발달을 도우는 것이어야 한다.

② 수행가능성

가정 수련활동은 그 활동이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관련된 제반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선택되어야 한다. 즉 부모의 수련활동 수행 능력과 기술, 재정적인 여건, 그 밖의 자원(시간, 동기, 기동력 등) 등 제반 여건에 바탕을 두고 선택되어야 한다. 주어진 조건에서 달성 가능한 수련거리 선택하여야 한다.

③ 다원성 및 통합성

가정 수련활동은 자녀들이 전체 생활과 활동 속에서 통합될 수 있도록 선정되어야 한다. 수련활동이 가정이나 학교 전체 활동의 부수적인 것이거나 별개의 것이 아닌 상호보완적인 것으로써 통합될 수 있어야 한다.

④ 실용성

수련활동의 경험은 가족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수련거리의 일부는 단순히 유희적 성격을 띠고 청소년들에게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 수련거리의 내용은 차후 사회생활에 적용가능한 것들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지역성

살고 있는, 혹은 수련활동이 행해질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활동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2. 수련거리 운영의 원리

가정수련활동의 목적과 내용, 지도대상인 자녀의 특성, 부모의 지도 능력과 의도, 장소, 시기, 시설과 설비 등의 활동 상황과 여건 등에 따라 각각 다양한 지도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지도방법 적용의 복합성에도 불구하고, 가정수련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도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몇 가지 원리들이 있다.

①자발성의 원리

자발성의 원리란 자녀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 모두가 활동의 주체가 되어 자신의 활동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원리이다. 가족들의 욕구반영과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는 가정 수련활동은 가능한 한 프로그램 선택이나 실행의 전 과정에 자녀의 폭넓은 참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다양성의 원리

다양성의 원리는 가정수련활동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어떤 하나의 획일적이고 고정된 방법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들을 융통성 있게 활용하고자 하는 원리이다.

③상호작용의 원리

상호작용의 원리는 가족 구성원들 간의 원만한 상호작용에 의하여 가족의 결합 및 의욕을 높여 가정수련활동의 기능을 실현하고자 하는 원리이다. 상호작용은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가족들이 평등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으로써 혼자가 아닌 가족과 함께 더불어 경험하고 활동하는 것이다.

④유희, 오락성의 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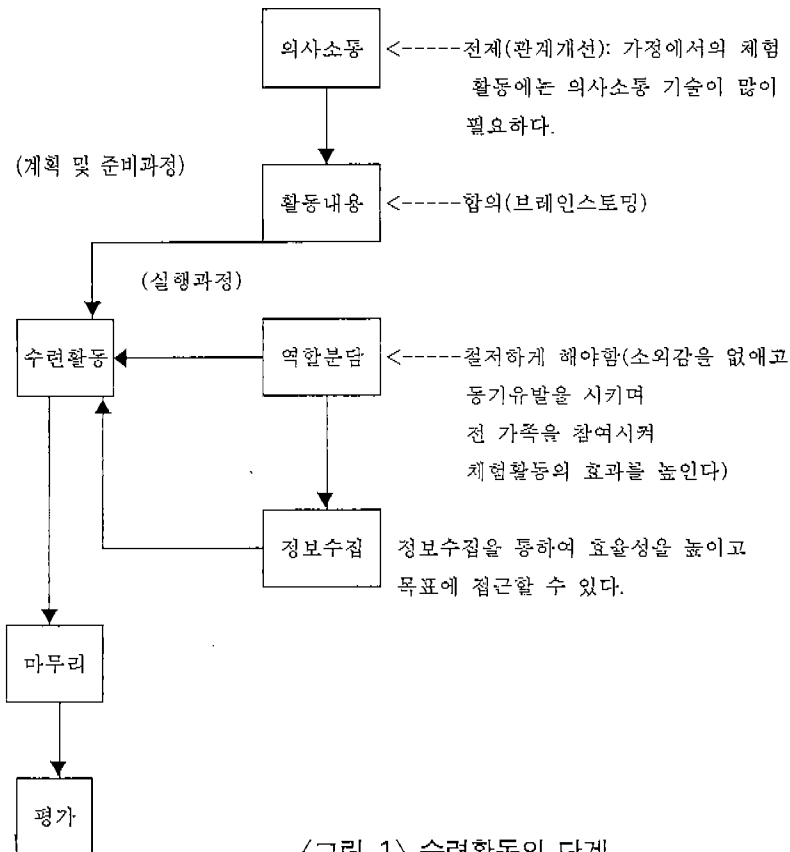
가정 수련활동은 재미가 있어야 한다.

⑤동기부여의 원리

자녀들에게 수련활동에 대한 동기부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정열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방안을 여러 각도에서 찾아내야 한다.

3. 수련활동의 단계

가정에서의 수련활동은 첫째로 수련활동의 목적이 확립되어야 하며, 둘째로 시행할 수련활동이 선택되어야 하며, 셋째로 그 활동을 실시할 계획을 하고, 넷째로 실행 준비를 하고, 다섯째로 수련활동을 실시하고, 여섯째로 활동 결과를 평가하는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수련활동 목적 확립과 활동 선택은 계획 단계에 포함될 수 있다. 여기서는 수련활동 단계의 기본틀을 계획, 준비, 실행, 평가의 네단계로 설정할 수 있다. 이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그림 1〉 수련활동의 단계

가정에서의 수련활동에서는 기본틀의 모든 단계에서 가족 구성원들의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수련활동은 참여자의 욕구에 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합의를 끌어내는 과정은 가족회의 형식이 좋다.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①미리 제한 조건들을(비용, 시간, 노력 등) 제시하는 것이 좋다. 제한 조건 내에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②가족들의 창조적인 사고를 통하여 수련활동들을 생각해 내어 목록을 만든다. ③비판적인 사고를 통하여 적절한 수련활동을 선택한다. ④창조적인 사고와 비판적인 사고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시행방안을 만들어 낸다. 가정에서의 수련활동은 가족들의 흥미나 욕구, 그리고 교육적인 측면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1) 계획단계

계획 과정이란 수립된 목표를 주어진 여건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수련활동에서의 계획 단계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위해 가치있고 바람직하고 흥미 있다고 인정되는 수련활동을 선택하여 그 활동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의사결정의 과정이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시행하고자 하는 청소년 수련활동의 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되어야 할 활동들을 미리 예상하여 장래에 취할 행동을 위한 일단의 체계적 결정들을 미리 준비하게 한다.

계획단계는 집을 짓는 데는 설계도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련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치밀한 설계안을 작성하는 단계이다. 여기서는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세부활동목표와 이에 적절한 내용과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법과 여건(장소, 시간, 비용 등)들을 가장 알맞은 것을 선택하여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나의 체계 속에 통합시킨다. 즉, 프로그램의 전 단계에 걸쳐서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어떤 방법으로 진행시켜야 하는 가를 적절한 순서로 배열하면서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기술한다. 수련활동 설계는 수련활동의 실행활동뿐만 아니라 평가활동, 수련활동을 위해 수행되어야 할 제반활동과 요소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기술하여 그 안만 있으면 그대로 실시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다음은 가정에서 수련활동 계획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1) 가족들의 가치, 요구, 흥미, 욕구가 반영되어야 한다

가정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그 대상이 되는 가족들의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가족들의 욕구가 파악이 되었으면, 가족들의 욕구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가족들 간의 대화를 통하여 각자 가정의 수련활동으로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며, 어떤 식으로 하고 싶은가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처음에는 창조적인 사고 방법을 동원하여 여러가지 수련활동들을 생각해 내어서 목록표를 만든다. 다음에 가족들의 합의 등을 통한 비평적 사고를 통하여 선택 범위를 줄여가서, 최후로 시행할 수련활동을 결정한다. 선택되지 않은 다른 활동들은 다음 기회의 수련활동 시에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가족 간의 이러한 논의 과정 자체를 하나의 수련활동으로 생각할 수 있다.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또 의사소통의 훈련을 쌓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창조적인 사고와 비평적인 사고의 훈련을 쌓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서로의 욕구의 충돌이 있을 경우 서로 합의를 찾아가는 민주주의 방법에 관한 연습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목표의 규정

수련활동의 선택은 우리들의 개인적 신념으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부모는 수련활동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확실히 해야 한다.

(3) 제한의 구체화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을 규제하는 조건들을 제한이라고 하는 데 여기서는 재정, 시간 등이 포함된다. 가정에서의 수련활동에 대한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① 대상 ② 수련시기 및 기간 ③ 장소 및 교통 편 ④ 숙식 ⑤ 활동 방법 ⑥ 재정 등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정의

실정을 파악하여 수련활동에 투여할 수 있는 자원의 양(시간, 노력, 비용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4) 대안들의 창출

목표를 달성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다. 부모가 실시할 것인가? 부모는 AGENT역할을 하고 다른 기관이나 시설을 이용할 것인가?

(5) 대안의 선택과 분석

각각의 아이디어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적합한 내용을 선택하는 것이다.

(6) 역할분담

수련활동이 결정이 되었으면, 다음으로 할 일이 실행을 위한 계획과 일정, 그리고 가족들 간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숙식 문제, 교통 편, 돈 관리, 복장, 준비물 등.

(7) 기대감

수련활동에 대한 불안감보다는 투지와 모험심과 기대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계획단계에서는 또한 설계안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평가를 한다. 이러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수련활동 설계안을 수정보완하거나 재조정을 하기도 한다.

2) 준비단계

이 단계에서는 실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현장 상황을 전제로 준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청소년, 부모, 활동과제, 활동 계획, 활동여

건)들간의 상호작용관계를 통찰하여 파악할 수 있는 종합적인 사고체계가 필요하다. 진행할 활동과제의 성격과 제반 여건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실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하고 준비하는 일이 실행에 앞서 진행되어야 한다.

준비단계는 계획단계에서 설정된 목표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과정을 말한다. 준비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을 포함한 자원을 확보하고, 수련활동계획을 다시 검토해 보고, 가족 구성원간의 역할 분담을 하고, 맡은 역할을 실행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전체적인 실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물들을 마련하는 것이다.

3) 실행단계

실행단계는 사전에 계획되고 설계된 프로그램을 실제로 실현시켜서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구체적인 활동 과정이다. 가설과 가정으로 이루어진 수련활동 설계안은 실제로 현장에서 활동화되어 그 타당성이 검증되면서 비로소 그 가치를 가지게 된다. 이 단계는 수련활동에 대한 효과, 결과 그리고 영향을 결정하는 부분으로, 수련활동 과정 중에 절정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단계가 된다.

실행단계는 부모와 청소년이 직접 수련활동 경험을 갖는 행동단계이다. 가족 구성원들 간의 역할 분담과 임무 수행이 중요하다. 이 실행 단계는 다시 도입, 전개, 정리라는 세 단계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도입 단계는 가족들에게 실시하려는 수련활동의 목표와 성격, 그리고 진행순서 등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활동과제에 대한 이해와 동기유발을 도모하고, 상호 협조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게 된다. 전개 단계는 같이 수련활동을 해 나가는 단계이다. 정리단계는 진행되어 온 활동 내용을 종합하고 정리하여 활동과제의 성격과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게 한다. 이 단계에서는 새로 체험한 활동내용들이 청소년들의 의식 속에 내면화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한다.

4) 평가 단계

평가단계는 수련활동의 마지막 단계로써 계획된 수련활동을 실행한 이후 계획과 실행결과를 비교하여 수련활동에 의미를 부여하려는 과정이다. 이 단계는 수련활동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종합하고 분석하여 수련활동의 효과성과 효율성, 매력성을 평가하고, 차후의 수련활동의 시행방향을 진단하는 사후 총괄 평가과정에 해당한다.

이 단계에서는 수련활동 계획시 세워둔 근거에 따라 목표달성의 여부와 정도, 계획된 활동 내용의 진행정도, 그리고 가족에게 미친 수련활동의 영향 등을 이전의 모든 과정, 즉 계획단계와 준비단계 그리고 실행단계에서 얻은 경험과 결과를 중심으로 평가하게 된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수련활동의 성패요인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구명하여 다음 수련활동에 반영시킨다.

평가단계에서는 계획을 실시한 후의 결과가 의도대로 되었는지, 달성된 결과가 기대치에 도달하였는지를 평가한다. 계획된 활동의 실행이 끝나면, 어떤 형태로든 반성해 보고, 평가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을 평가의 틀로 사용할 수 있다.

- ① 계획의 적절성: 활동의 시기와 장소, 프로그램의 적절성, 역할 분담, 장비의 준비 등.
- ② 구성원의 성취도 및 만족도
- ③ 역할 분담의 성과
- ④ 문제점의 제기: 격의 없는 토론을 통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 개선점을 모색한다.
- ⑤ 환류와 수정: 평가를 통하여 얻은 지식을 통하여 배우고, 다음에 수련활동을 할 때 그러한 지식을 활용한다.

Ⅳ. 가정체험활동의 실제

1장 가정에서의 수련활동 사례

사람들은 여가 시간에 무엇인가를 하기도 하지만, 청소년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여가 시간이란 ‘아무 것도 안하는’ ‘빈둥거리는’ ‘친구와 이야기하는’ ‘생각하기 위해서 혼자 있는’ 시간이다. 하지만 여가 시간은 청소년들이 그 안에서 삶의 양식의 표현을 발전시키는 주요 수단의 하나이다.

가정에서의 수련활동은 우선 부모가 지도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가정 수련활동은 아주 간단하고 쉬운 활동에서부터 어렵고 복잡한 활동까지 다양하다. 처음엔 쉽고 간단한 활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가정에서의 수련활동은 가정의 기능을 강화하고, 가정 내에서의 화목과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활동들이 바람직하다.

시간적, 경제적 여건이나 준비가 전혀 없이도 부모가 자녀들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활동은 같이 산책을 하는 것이다. 그냥 별 생각 없이 산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이 진행되는 대로 내버려 둘 수도 있다. 혹은 산책을 하면서 자녀에게 꽃이나 나무 이름, 구름 이름, 별자리 등을 가르쳐 줄 수 있고, 또 자녀의 이야기를 듣거나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 줄 수 있다. 가족이 같이 무엇인가를 함께 만들기를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가족이 함께 경치 좋은 곳, 혹은 문화 유적지를 걸으며 새로운 경험의 기회를 갖는 것도 좋은 수련활동이다.

가정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환경 살리기 활동은, 옆질러진 물을 닦는데 휴지 대신 걸레를 사용한다던가, 집 주변, 혹은 가까운 야산에 가서, 식물들(풀, 꽃, 나무 등)의 모양을 기록하고, 새소리들을 기록하고, 새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등을 눈에 보이는 대로 기록하는 활동은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가능하면 간단하게 스케치를 해 본다. 가까운 슈퍼나 백화점에 가서, 어

면 것들이 재활용품이며, 염화 수소(C.F.C)를 사용한 제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염화수소에 의한 오존층 파괴 현황과(우리 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오존층 파괴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추세로 나가면 미래에 어떤 상황이 될 것인가를 이야기해 준다거나 할 수 있다. 또한 동네 주변에 쓰레기나 폐기물이 불법으로 버려지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 그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팻말을 설치할 수 있다.

봉사활동도 마찬가지이다. 자기 주변사람들에게 웃는 얼굴로 친절하게 대하는 것도 봉사활동이며, 친절하게 길을 가르쳐 주는 것도, 소외되어 있는 친구에게 먼저 말을 건네는 것 등이 쉽게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다. 그리고 자기 동네의 지저분한 곳을 치운다던가 하는 일은 가족이 같이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조금 더 노력과 동기 및 경제적인 투자가 필요한 활동이라면 근처의 좋은 곳으로 가족이 나들이 가는 것일 것이다. 조그만 야산이라도 좋고, 큰 산이나 바다나 강이 근처에 있으면 그곳으로 약간의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많이 하지는 않고 비교적 홀가분하게 가는 것이다. 아이들은 아주 가까운 곳이라도 나들이 간다고 하면 좋아한다고 한다. 그리고 산이나 바다로 놀러갔을 때 쓰레기 수거 봉투를 준비하여 자신의 쓰레기뿐만 아니라 주변의 쓰레기도 같이 담아 처리할 수 있다면 이것이 봉사활동이요 환경 살리기 활동이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여유나 시간적인 여유가 많을 때 2박 3일이나 3박 4일 시간을 내서 국토 탐사나 문화권 탐방, 가족 캠프와 같은 활동을 하면 좋을 것이다. 다음은 가정에서 실시할 수 있는 수련활동 사례들이다.

맨손 체조와 배드민턴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이 모두 밖에 나가서 맨손체조를 하는 것도 좋은 수련 활동이다.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고, 건강에도 좋고, 그리고 우발적인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미국의 어느 공장에서는 일하는 도중에 다같이 맨손체조를 하는 시간을 갖은 이후로 사고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한다. 그리고 배드민턴과 같은 운동은 아파트 단지와 같은 작은 공간을 이용하여 쉽게 할

수 있으며, 배드민턴 채와 공만 있으면 할 수 있어 비용이 별로 들지 않는다.

가족 산책

현대 사회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바빠진다고 한다. 한 가족이 모두 함께 모일 시간이 점점 적어지고, 서로의 생각과 감정, 문제들을 모르고 지나가게 되고, 점점 가족들 간의 대화가 적어지고 벽이 쌓여가게 될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다. 산책은 활동하기 쉽고, 시간이라든가 장소에 있어서 융통성과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으며, 가족 간의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가족 건강에도 지대한 역할을 한다.

걷기는 하반신에서 운동을 일으켜 신체의 중심부로 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심장에 가장 많은 효과를 주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호흡기능을 개선시키며 소화흡수도 촉진시켜 준다. 보행의 부족은 다리근육을 쇠약하게 할 뿐 아니라 심장근육의 쇠약, 혈관의 탄력성 저하로 인한 동맥경화증, 고혈압, 폐기능 저하, 비만증, 당뇨병 등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된다. 보통 사람들은 하루에 걷는 양보다 사 오십분 정도 더 걷는 것이 좋다고 한다. 다음은 연구자(정희옥)의 가정에서의 산책 사례이다.

5월 21일(일)

저녁 때 노을 무렵 아이들에게 ‘밖에 산책하러 갈래’ 하고 물었다. 큰애는 아들(한수)로 5년 7개월 되었고, 작은 애(하영)는 딸로 2년 4개월 되었다. TV에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만화영화를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둘다 좋아라 나갈 준비를 한다. APT 뒤쪽으로 한적한 길이 있고, 길 뒤로 아카시아 꽃이 아주 많이 피어 있었다. 양쪽에 아이들의 손을 잡고서 산책 길에 나서니, 아이들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한다. 가는 길에 배추꽃, 장미꽃, 파꽃, 그리고 이름모를 꽃들과 꽃나무들을 많이 발견하였다. 고양이도 몇 마리 보았다. 한수는 고양이를 보고 ‘너 집이 어디니? 집에 가려고 하니?’하고 언덕길을 올라가 묻는다. 갈림길이 나올 때마다 아이들에게 어느 길로 갈래 하고 물었다. 한참 가다가 이제 돌아서서 오던 길을 되돌아갔다. 길은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있었고, 짙은 아카시아 꽃 향기는 사방에서 물씬 풍겼다. 한수는 아카시아 꽃을 아카치아 꽃이라고 발음한다. 한수는 걸어가면서 동요도 부르고, 광고 노래도 부르고, 펄쩍 펄쩍 뛰기도 한다. 하영이도 옆에서 따라 부른다. 한시간 가량 걷다가 ‘이제 집에 갈래?’하고 물으니깐 한수는 ‘그래, 이제 집에 가자’라고 대답하였지만, 하영이는 고개를 설래 설래 흔들며 ‘안돼, 더 가’하고 완강하게 거부를 한다. 아이들이 이제는 피곤할 것 같아서 약간 돌아가는 길로 해서 집으로 돌아왔다. 아이들이 아주 행복해 하였고, 나는 아주 행복한 감정을 느꼈다.

5월 23일(화)

오늘 연세대에서 강의가 있었고, 또 교보 문고에서 자료를 찾으라고 몸이 녹초가 되어서 아무 것도 안하고 쉬고만 싶었다. 특히 다리가 피곤하였다. 그래도 저녁 놀이 질 때쯤 되니깐 상쾌한 오월의 여왕이 나오라고 손짓을 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아이들의 의향을 물었다. 그랬더니 금새 좋아라 하면서 옷을 입는다 신발을 신는다 부산을 떠난다. 밖에 나오니깐 역시 잘 나왔다는 생각이 든다. 집안에 있었으면 피곤하고 불쾌한 기분으로 있었을 텐데 밖으로 나오니깐 상쾌한 기분이 들고, 또 피곤도 느껴지지 않는다. 한수는 이제 꽃만 보면 향기를 맡겠다고 뛰어 간다. 아이들은 눈에 보이는 사물마다 명칭을 말한다. 하영이는 개구리 그림을 보고 악어라고 했다가 한수에게 반박을 당한다. 하늘의 구름, 작은 점처럼 지나가는 비행기조차도 놓치지 않는다. 고양이도 몇 번 만났다. 주택가를 지나가는 데 어떤 꼬마가 ‘한수야’하고 부른다. 아들은 부끄러워 그냥 지나친다. 한 20미터 정도 지난 후에 ‘천사 미술학원 친구니?’하고 물으니깐 ‘그렇다’고 대답한다. 그래서 내가 ‘친구는 네 이름을 부르는데 너는 왜 가만이 있니?’했더니 돌아서서 큰 소리로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른다. 오늘도 한시간 가량 산책을 하니깐 가로등도 켜져 있었고, 아파트의 창에 불이 켜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집에 갈래 하니까, 한수는 ‘그래, 이제 집에 가자’하는데 역시 하영이가 더 건지고 우긴다. 조금 더 걷다가 집에 들어오니깐, 늘 늦게 자던 하영이가 피곤한지 이내 잠이 들어 버린다.

풍 경

아이들과 목적없이 나선 산책 길
노을에 물든 구름들이
한가롭게 그려진다
유채꽃 노란 밭이
산 아래 곱게 그려진다.

길 따라 핀 파란 꽃들 위로
바람은 파란 물결을 일으킨다
멀리 인상파 화폭같은 빨간 점들로
가까이 탐스러운 무더기로
장미꽃들이 담장 위에 얹혀져 있다.

나를 따라 뒷짐 지어보는
아이들은 동심을 그린다
아카시아 가지 위에
까치가 날아와 앉는다
바람 따라 새소리는
어떤 그림을 그리는 걸까?

밤은 구름에 실려 오는 걸까
어둠은 바람에 묻혀 오는 걸까
어두워지는 하늘가로
달 같은 가로등이 켜지고
컴컴한 산 그림자 속에선
인가가 켜진다.

1995년 5월 24일



자전거 타기

자전거는 하이킹과 같은 레크리에이션활동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상쾌하고도 흥미있는 운동이다. 좋은 코스를 선정해서 가족이 자전거 하이킹을 하면 여가활용도 되고, 또 가족의 화합에도 도움이 되며, 또한 체력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경주의 문화유적지를 돌아보는 활동을 가정수련거리 시연활동으로 정하여 시행하였다. ‘경주 가족자전거 문화기행’에 관해서는 다음 장부터 자세히 기술하도록 하겠다. 다음은 그 중 한가족의 체험담이다.

2000년의 햇살을 가르며

우리는 신나게 달렸다.

서 양 원

경기 평택시 득곡동 라이프A

집을 떠난다는 것은, 미지의 세계를 향한다는 것은 언제나 가슴 설레며 신나는 일이다. 더구나 이번처럼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형들 식구들 모두가 가방을 메고 나선다는 것은, 할아버지께서도 하얀 머리칼을 휘날리시며 휘파람을 휘이익~휘이익~ 불으시며 앞장을 서신다는 것은, 우리집이 얼마나 건강하며 행복한가를 다시 한번 실감나게 해 주는 그런 아침이었다.

“우리끼리 가는 게 나을텐데.....” 이러면서 별로 내키지 않아 하던 큰형도 개발원에 이르러 멧쟁이 버스에 타면서부터 약간은 흥분이 되다가 했더니 차가 시원한 아침 공기를 가르며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하면서 술 술 신바람이 나는가 싶더니 우리 할아버지께서 느닷없이 “고문님” 감투를 쓰시자 야호를 지르면서 실력 발휘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개발원 선생님들의 친절하시고 자상하신 안내와 보살핌 속에 우리 가족 6명과 이웃 가족들은 단번에 한가족처럼 친해지는 것이었다. 경주에 이르렀을 때 우리 작은 형은 벌써 초롱이네 집 큰 오빠로 전근(?)을 간 것인지 개네 짐들을 양손에 들고 히히 웃고 있어 참 어이가 없었다. 엄마도 김선생님 사모님하고 벌써 친해져서는 그 집 식구들하고만 깔깔거리시다가 “애 어멈아, 내 수건을 줌 찾아봐라.....”이러시는 할머니 목소리에 찔끔하시는 걸 내가 번개 같이 눈치를 채었고 큰 형은 얼른 할머니 어깨를 주물러 드리는 아양을 떨어 우리집 장손의 실력 발휘를 하는 것이었다.

이번 가족 자전거 하이킹은 참 뜻이 깊었다고 생각된다. 수학 여행이나 캠핑에 가면 그저 차를 타고 유적지 같은 곳을 휘- 둘러본다거나 캠핑에서는 우리 또래들끼리 캠핑장의 젊은 선생님들의 고함 소리에 따라 우리들도 껍뻍

거리며 무조건 손뼉치고 캠프 화이어 둘레를 정신없이 빙 빙 돌고 흔들고 달리고 하던 것이 전부였고 또 늘 그런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달랐다. 우선 우리들 모두가 자전거를 타고 2000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경주, 그거도 우리 조상님의 자취를 하나하나 찾아서 연결을 지어가며 하이킹을 한다는 그것은 참으로 놀랍고 새로운 경험이었다. 그리고 나는 우리 할아버지께서 자전거를 타시고 우리 손자들을 앞에서 경쾌하게 이끌고 가시던 우리 할아버지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다. 여간해서 할아버지 칭찬을 하지 않으시는 우리 할머니 윤필금 여사께서도 이번만은 함박만한 웃음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시던 그 광경을 나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다.

날씨는 한여름이라 무척 더웠고 자전거 페달을 밟을 때마다 땀방울이 뚝뚝 떨어져 내렸지만 그러나 땀에 젖은 얼굴로 바라보는 경주의 역사유적들은 지난번 학교여행 때에 느꼈던 그것과는 아주 다른 새로운 감동을 나에게 선사하는 것이었다. 학교 선생님이신 우리 엄마는 이번의 이 가족 자전거 하이킹을 학교에서도 해봤으면 좋겠다고 하시며 집에 가면 아빠의 아이디어를 더 얻어서 엄마네 학교에서도 멋지게 한번 열어 보겠다고 하셨다.

전국의 학교와 가정에서 이번에 우리가 한 것처럼 가족 자전거 하이킹을 나선다면 각종 공해와 매연에 찌든 우리 나라에 새롭고 신선한 새바람이 일 것 같았다.

한 여름의 햇살을 받아 유난히도 반짝이던 우리들의 자전거!

나는 어려서부터 자전거 타기를 즐겼지만 중학생이 되면서 공부를 해야 한다고 자전거는 이미 사촌동생에게 주어 버렸고 매일 학교와 학원에서 살다가 이번 이 행사에 참가하게 된 것은 아 아!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그리고 칠십평생을 집에만 계시던 우리 할머니에게 이번 이 가족 자전거 하이킹은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모든 우리 하이킹 가족들은 저마다 가슴 가득 벅찬 감격과 환호를 싣고 썩 썩 달렸다. 2000년의 햇살을 가르며 우리는 달렸다. 신나게 달렸다.

여 행

해가 감에 따라 우리는 늘 익숙하여 온 주변에 대하여 날이 갈수록 참신미가 감쇄된 지각력을 가지고 바라보게 된다. 우리가 매일 바라보는 사람들의 얼굴들이나 일상세계의 다른 어떤 특정 사건들에 대해서도 눈여겨보려 들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여행은 대개의 우리들에게는 생생한 경험이 되는 것이다. 집에서는 우리들은 눈 앞에 있는 것도 볼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다. 그러다가 여행은 우리들을 뒤흔들어 무관심에서 벗어나게 하며 또한 모든 경험을 가치롭고 의미있게 만드는 주의력을 되찾게 하여 준다. 가정수련활동으로서의 여행 실시방법은 '부록2'에 수록해 놓았다.

독 서

먼저 아이들에게 책을 읽으라는 말을 하지 말고 자신이 먼저 책을 읽는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때때로 아이들과 함께 서점에 가거나 도서관에 찾아가서 책을 보거나 산다. 아이들은 자신이 고른 책은 열심히 읽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우선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읽어 독서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좋다. 읽은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 '느낀 점이 무어니?' '어떻게 생각하니?' 등 읽은 책을 소재로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독서에 관한 활동은 다음 장에 상세하게 다루어져 있다.

2장 나이별 가정 수련거리

청소년 수련활동은 시대적 조류에 발맞추어야 한다. 즉 지금 청소년들의 취향과 요구 상황에 맞는 수련거리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의 관심은 나이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의 연령인 9세에서 24세의 청소년들이 같은 흥미와 요구를 가지고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가정에서 이러한 청소년들의 나이에 따라 가정에서의 수련활

동도 바뀌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음은 피츠 도오슨 박사의 ‘How to father’라는 저서 속에서 발췌 요약한 연령별 가정체험활동들이다.

같이 시간 보내기(입학 전기의 아이)

아버지와 아이가 같이 보내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아이의 자기에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저녁 때 30분 정도의 시간을 내서 뭔가 같이 해볼 수 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이에게 10분 정도 이야기 책을 읽어 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있을 것이다. 또한 토요일, 일요일에 1시간 정도 아이와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는 입학 전기의 아이를 철물점, 잡화점, 도서관에 용무가 있어 갈 때 함께 데리고 가는 습관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 결국 아버지가 가지 않으면 안 될 일에는 함께 데리고 가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아주 중요하다.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철물점에 볼일이 있어 가는 것이 아무런 일이 아니지만 아이에게는 커다란 모험인 것이다.

거기에서 주말에 아버지가 아이와 더불어 형편이 되는데로 흥미있는 여행을 한다면 이는 교육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 부자간의 유대 형성에도 이바지할 것이다. 입학 전기에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장소는 주변에 있는 소방서, 경찰서, 신문사, 도서관, 은행, 시장, 공항, 구둣방, 용접소, 자동차 수리 공장, 과자공장, 우체국, 건축 공사장, 전시장, 박물관 등 많이 있다. 3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장소에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은 아이에게나 어른에게나 기쁜 일일 것이다. 어른 혼자서는 소방서에 가서 “소방차를 구경할 수 없는지요”라고 말하는 것이 어색하고 쑥스러운 일이지만 아이가 있으면 가볍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으며, 또 누구든지 보통은 기쁘게 아이들을 안내해준다. 그렇게 하여 여러가지 예기치 않았던 것까지 보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아이들에게는 ‘모험’인 것이다.

아이를 이 ‘모험’여행에 데리고 갔을 때 아이의 경험을 넓혀 주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한 예를 들자면 아이와 ‘여행’에서 돌아와서 아이에게 “오늘 갔던 소방서에 대해 알고 있지? 소방서에 대해서 책을 만들어 보자. 네

가 소방서에 대해서 이야기해라. 그럼 아빠가 그것을 적을 테니까. 그래 가지고 책을 만드는 거다. 자, 소방서에 갔던 일을 무엇이든지 말해 봐”

“아빠와 나는 소방서에 갔습니다.”

“좋아 그것을 책의 제 1페이지에 신자”

여기서 그 문장을 1페이지로 써 준다. 그러나 아이가 말한 것을 고치거나 바꾸어서는 안된다. 그 책은 곧 아이의 책이기에 아이가 말한 그대로 적어 두는 것이다. 아이가 흥미가 없어지면 그 책은 거기서 끝난다.

책의 제목은 아이에게 뽑게 해서 표지에 쓴다. 아이가 만든 책이니까 제목 밑에는 저자로 아이의 이름을 쓴다. 즉 ‘홍길동 지음’이라고 적는다. 만일 즉석 카메라를 가졌으면 소방소에서 찍은 사진을 책의 표지에 한 장 부치고 나머지 사진을 책 속의 삽화로서 사용하면 좋다.

책이 완성되면 아이에게 읽어 들려준다. 틀림없이 아이는 아버지에게 몇 번이고 읽어 달라고 할 것이다. 이 책은 부자가 공동으로 만든 것이기에 아이에게 있어서는 커다란 뜻을 갖게 되는 것이다.

복사기가 있다면 이를 책 제작에 사용하면 더욱 좋다. 아이는 책이 복사되는 것을 아주 좋아하므로 친구에게 복사해 주고 할머니·할아버지에게 보내거나 유치원에 가지고 가서 타인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면 아이는 책을 만드는 데 더욱 의욕을 갖게 된다.

따라서 아이를 어디에 데리고 가든지간에 거기에 관해서 책을 쓰고 그것을 돕는 것은 동시에 아이의 언어 발달, 종합적인 지적 발달, 성의 동일성의 획득에 일조가 된다.

여기서 모든 아버지가 입학 전기의 아이를 꼭 데리고 가야 할 장소가 있는데 그곳은 아버지의 직장으로,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경우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자신이 하는 일을 애가 이해할 정도로 설명해 주는 것이다.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왜 그것이 중요한가를 알리지 않는다면, 아이는 아버지란 야침이면 ‘일’이라고 부르는 뭔가를 하기 위해 밖에 나갔다가 저녁 때면 다시 나타나는 사람이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는다.

아버지는 아이와 공동으로 ‘나와 아빠의 일’이라는 책을, 앞서 설명했던 방법으로 만들어도 좋을 것이다. 특히 어머니와 아이가 ‘아빠의 일’이라는 극을 가정에서 해보도록 준비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의사가 환자를 진료한다면, 소방소가 불이 난 곳으로 가서 불을 끄거나 아니면 긴급상황에 출동을 하여 해결을 한다던가, 학교 교사가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 등을 극으로 꾸미는 것은 가족 모두에게 흥미있고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아버지는 바쁘더라도 점심시간, 휴식시간에 5분 정도 집에 전화를 걸어 아이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다. 이 5분은 아이에게 있어서 아주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즉, 이 전화에 의해서 아이는 아버지가 자기를 생각해 주고 있음을 알게 된다. 때로는 아버지가 근무 중에라도 잠깐 메모라든지 엽서를 써서 집으로 부쳐 아이에게 보낼 수도 있다. 아이들이란 거의 편지나 엽서는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편지를 받으면 몹시 기뻐할 것이다. 출장 중이나 여행 중에 그림엽서를 보낸다거나 전화를 걸어 주는 것도 좋다. 입학 전기의 아이에게 있어서는 아버지가 직장에 있는 것도 출장과 같이 먼 곳에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따라서 회사와 가정간의 의사소통의 간격을 전화와 엽서로 제거하고, 아이의 일을 아버지가 잘 생각하고 있음을 알릴 수 있다.

입학 전기의 남아는 아버지와 접촉을 갖고 아버지를 모방함으로써 남성으로서의 성의 동일성을 확립할 수 있다. 입학전기의 여아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접촉을 가짐으로써 장래 남편에 대한 모델을 지닐 필요가 있다. 여아에게는 태어나서 처음 남성인 아버지가 자신을 참으로 사랑해 주고, 자신의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며, 어린 여아로서의 여아다움을 인정해 주고 있음을 알도록 해야 한다.

부모 자식간의 의사결정(놀즈법): 5세 이후

많은 경우에 부모와 자식간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그 중 하나가 기대나 욕구의 충돌이다. 아이는 어떤 것을 하고 싶어하거나 하기 싫어하는 데 대하여 부모가 반대를 하는 것이다. 이런 충돌은 한쪽이 이기고 다른 한쪽이 지는 형태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은 데, 이러한 형태의 해결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른이 이기고 아이가 지게 되는 방법’은 어른이 이긴 대신 높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아이는 결정에 임하여 아무런 발언권이 주어지지 않았고, 충돌을 해결하려는 동기부여가 거의 없었다. 아이는 보통 부모가 결정한 바를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며,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최소한도의 것만 하고 그 이상의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 특히 이러한 결정은 아이가 부모를 미워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아이의 자제심을 발생시키는 기회를 잃게 한다.

‘아이가 이기는 방법’을 취하면 아이는 충동의 내부억제가 되지 않아 자기 중심적이 된다. 이러한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잘 지내지 못하게 된다. 언제나 부모에게 자기의 요구가 통하기에 타인에 대해서도 똑같이 자기를 주장하면 되는 것으로 여긴다. 이러한 아이는 학교의 규율에 자신을 적응시킬 수 없게 된다.

부모와 자녀의 기대가 충돌하는 경우 가장 좋은 의사결정 방법은 부모와 자녀 양쪽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두 사람이 구해보는 것이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해결을 위한 가능한 안을 제시해서 양자는 나름의 안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최후에 양자가 함께 받아들일 수 있는 최종해결안을 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부모와 자녀 누구도 진 쪽은 없다.

이 방법은 부모 자식간의 심리상 많은 이점을 지니고 있다. 자녀는 결정사항을 실행할 동기가 주어졌다. 왜냐하면 부모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한 것이 아니고 자녀가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여 같이 결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사결정 방법은 자녀의 사고력을 발전시킨다. 답을 구하기 위해 공동으로 머리를 짜내야 하기 때문이다. 부모와 자녀가 하나의 해결책에 동의하면 원망이나 적의의 발생 가능성은 아주 희박해진다. 또한 이러한 의사결정 방법은 표면적인 목전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 내면에 있는 진정한 문제에 부딪칠 수 있다.

아동 1기(6세에서 11세의 시기)

이 시기의 아이들은 이 전에 지냈던 양친이나 어른에의 관심을 버리고 새로운 사회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 이전 시기의 아이의 생활은 가족이 중심이

있고 가정에 근거하고 있었으나, 차츰 아이는 동년배, 동성의 친구로부터 새롭게 독립된 사회집단인 또래집단에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6세 아이는 대부분 시간을 또래 친구들과 지내며, 부모와 보내는 시간은 비교적 적다고 해서 이 시기에 부모는 별 필요가 없다고 여기면 큰 오해다. 아이는 또래의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는 동안에도 자기 뒤에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6세의 시기는 확대의 연령이며 정신적으로도 다양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향하여 손을 펼쳐 움직이는 때이다. 아이는 미지의 바다에 배를 출범시키는 젊은 탐험가이며, 용기와 대담성에 넘치고 있다. 그는 언제나 새로운 경험을 찾아 구하고 인생을 최대한 맛보며, 그것에 정면으로 맞닥뜨린다. 아이가 적극적으로·열광적인 경우에는 양친은 아이와 즐거움을 함께 하고, 아이가 소극적이고 침울해 있을 때는 힘을 북돋아 주어야 한다.

7세경의 여름 캠프는 처음에는 1일 캠프에 보냈다가 차츰 기간을 연장시키는 것이 좋다. 아이의 의사에 반하여 캠프의 경험을 너무 일찍 시키는 경우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즉, 겁 많고 마음이 약한 아이는 더 약하게 되고, 운동에 서툰 아이는 운동을 싫어하게 된다. 남아의 경우 아버지가 같이 낚시나 산보를 간다거나, 야구나 다른 운동을 가르쳐 주는 것, 야구 등의 스포츠 구경, 아버지와 무얼 사러 가는 데 동행하는 것을 좋아한다. 여아의 경우, 이 시기는 아버지가 딸에게 그 여성다움을 이해시키는 적절한 시기이다. 이것은 바깥으로 식사나 산보하러 데리고 가거나, 입은 옷을 칭찬해 주거나, 머리맡에서 이야기를 읽어 주는 것 등으로 실행된다.

8세는 TV 만화를 매우 좋아한다. 실제 만화에 대한 흥미는 8세에서 9세경에 그 정점에 달한다. 좋아하는 만화를 사거나 모으거나 바꾸거나 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 시기에 TV를 보거나 만화를 본다고 해서 나무라거나 ‘좋은 책’을 읽으라고 아이를 들볶아서는 안된다. 8세는 이돌 딱딱하지 않은 매체를 통해서 즐길 뿐 아니라 부모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지식을 흡수하기 때문이다. 물론 8세아는 만화책만을 읽고 싶어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아이들의 기분에 맞는 읽을 거리 임은 틀림없다.

8세 때는 자발적으로 독서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아버지는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흥미를 자극하고 조장시킬 수 있다. 아이를 서점에 데리고 갔으면 어떤 책이든 아이가 선택하도록 한다. 아이의 선택에 간섭을 하거나 고전적인 양서만을 읽게 해서는 안된다. 아이 자신이 책을 뽑는다는 것은 그 책을 읽겠다는 동기부여이며, 어떤 책이든 독서력을 발달시키는 것이다. 아이가 책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나 사주는 것이 좋다. 아이 때는 책과 보다 깊은 관계를 갖게 되는 시기이므로, 생일 선물이나 특별한 선물로서 책을 받게 되면 매우 기뻐하는 것이다.

공포영화나 괴수영화에 대한 흥미가 이때 생겨나고, 적어도 10세 경까지 이 경향은 계속된다. 그러한 영화는 ‘잔학’해서 악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안심해도 좋다. 이러한 종류의 흥미는 정상적인 것이며, 공포영화를 본다는 것은 아이가 공포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그것이 그러한 영화를 보고자 하는 이유인 것이다.

게임에 대한 흥미는 이 시기에 절정에 달한다. 이것을 이용해서 부자간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할 수 있다. 아이는 보다 어른이 되고자 하고, 어른들에게 자신을 것처럼 다루어 주길 요구한다. 따라서 어른들은 아이를 때리거나 하는 일을 이전 멈추어야 한다. 때리기보다는 별로서 텔레비전을 못보게 하는 쪽이 훨씬 효과적이다.

9세아는 기술을 터득하는 데 관심을 갖는다. 예컨대, 롤러스케이트와 같은 한 가지 일을 되풀이해서 익히려고 한다. 특히 여러 놀이를 습득하고자 열중하며, 수영이나 야구를 잘했으면, 스케이트를 잘 났으면 하고 원한다. 그러한 기술을 습득해서 다른 아이들 속에서 뚜렷한 지위를 얻고 싶어한다. 아버지는 시간을 쪼개서 아이의 이러한 놀이의 기술 습득을 도와주는 것이 좋다. 공구의 사용법, 공 던지는 법과 캐치볼의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강제적으로 가르쳐서는 안된다. 재미있고 즐겁게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잘하면 그때그때 칭찬해 주어야 한다. 잔소리를 하거나 트집을 잡아서는 안된다. 아이에게 주도권을 갖게 하고, 다만 아이가 원할 때 방법이나 규칙을 가르쳐 주면 된다.

9세아는 모든 운동에 흥미를 갖는다. 따라서 원한다면 아이를 교외로 데리고 가서 자연과 접촉하도록 하는 알맞은 시기이다. 가벼운 하이킹에서부터 캠프 등에 가는 것까지도 아주 좋아한다. 캠프를 한다는 것은 가족 모두에게 즐거운 것이며 가족간의 유대를 촉진한다.

악기를 연주하고 싶은 충동이 9세에게는 강하다. 이 시기에 피아노, 기타, 또는 피리의 연주방식을 가르쳐 주면 좋을 것이다. 처음에 악기를 다루는 것을 보고 잘 못한다고 나무라서는 안된다. 이것은 모든 교육 및 수련활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칙이다. 잘못한다고 나무라면 잘하기는커녕 그 활동 자체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된다.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즐거운 것이라야지 싫은 것이면 안된다. 따라서 처음에는 악기를 사지 말고 빌어와서 그 악기가 흥미를 끄는지 아닌지를 본다. 아이를 음악학원 등에 보내는 것은 아이가 꼭 가고 싶지 않다면 강요해서는 안된다. 많은 부모들이 서둘러 뭔가 연습을 시작하게 하고 곧 성과를 기대한다. 원하지도 않는 아이를 여기 가라 저기 가라고 하면, 그 결과 그러한 활동에 대한 진정한 흥미가 일어나기 전에 혐오하는 태도가 되고 만다.

또한 9세에는 마당이나 이웃을 어슬렁거리거나, 먼 산을 본다거나, 멍청한 자유시간도 필요하다는 것을 유념해 두어야 한다. 오늘날에는 아동들의 생활이 너무 조직화되어 있다. 어머니는 거의 매일 아이를 과외공부 등에 보낸다. 아이는 자발적인 활동과 놀이를 창조하기 위한 자유로운 시간이 필요하다. 아이들의 시간이 양친에 의해서 계획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

10세 자녀의 아버지는 참으로 아들 딸들과의 사귀를 즐기면서 지내야 한다. 아버지는 아이를 여행이나 산보에 데리고 가고, 함께 야구를 한다거나 시합을 같이 보러 가는 등, 어울려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이는 그러한 것을 좋아하며, 아버지 또한 즐거울 것이다.

10세아는 무엇보다도 노는 것을 좋아하고 학교나 공부는 소중한 놀이를 방해하는 것으로 여긴다. 몸을 움직이고 에너지를 발산하기 위해 롤러 스케이트, 나무 오르기, 수영 등 집 밖의 놀이를 좋아한다. 친구를 모두 좋아하고, 어떤 종류의 모임도 즐긴다.

소년과 소녀는 바깥 활동에서 그 선택의 경향이 다르다. 소녀들도 바깥 놀이를 좋아하지만, 집안에서 몇 시간이고 즐겁게 놀기도 한다. 소녀는 극을 만들거나 옷을 입혀 연극하는 것을 좋아한다. 10세아는 장난감 비행기나 차, 배를 조립하거나 여러 재료를 써서 무엇을 만드는 것을 아주 즐긴다. 예전과 마찬가지로 만화, 영화, 텔레비전을 보는 것을 즐긴다. 만화, 서부극, 활극영화, 희극류를 좋아한다.

10세에 성에 관한 책을 보이는 것이 좋다. 이 연령의 소녀는 성의식이 강하다. 10세 소년은 그렇게 흥미를 갖지 않으나 책을 통하여 성에 대한 여러가지 정확한 지식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는 제 또래를 통하여 지식을 얻는 ‘장님이 이끄는 장님’식의 위험한 교육과정을 통해 건전한 성지식을 얻을 길을 잃는다.

10세는 사실에 관심을 갖고 협조적이며 수용성이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현명한 아버지는 최근의 잡지, 신문, 텔레비전에 보도된 여러 인물에 대해서 설명하고 들려주어야 한다. 이들 화제에는 마약, 환각제 중독에 관한 이야기를 곁들여도 좋다. 수용성이 있는 10세 시기에 이러한 건전한 지식의 씨앗이 뿌려지면 아이는 그 문제에 관해서 여러가지 사실을 터득하며 사춘기에도 그러한 약물들의 유혹을 이겨낼 것이다.

독서(국민학교)

아이가 국민학교에서 배우는 가장 소중한 기능은 읽기이다. 읽기는 다른 모든 과목의 열쇠가 된다. 아이가 학교에서 읽기에 능숙하도록 손을 쓰는 데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실행하면 아이가 독서와 인쇄물을 좋아하게 된다.

첫째, 먼저 입학 전에 했듯이 책을 읽어서 들려준다. 아이에게 책을 읽어준다는 것은 당신과 자녀간의 감정적 친밀성을 환기시키며, 그것은 또한 아이에게 책과 책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가르치는 방법인 것이다.

둘째, 아이 주위를 책으로 채워주는 것이다. 만약 아이 방에 책장을 두지 않았다면 아이가 학생이 된 지금은 책장을 들여놓자. 도서관에 부지런히 다니

면서 읽어서 재미있는 책을 찾으려 한다. 아이를 서점에 데리고 가자. 책을 선택해서 사며 그것을 가정도서관의 장서에 보탠다. 서점 주인이나 점원과 친구가 되게 한다. 좋아할 듯한 책을 사와서 깜짝 놀라게 만들어 준다.

셋째, 아이가 무엇을 읽든 독서하고 있는 한 만사가 순조롭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아이가 ‘명작’이 아닌 만화를 읽어서 걱정하는 부모도 있다. 무엇을 읽든 아이에게 맡겨 두면, 때가 지나면 책의 선호도가 성장하게 된다.

넷째, 아이가 3, 4학년이 되어서도, 잠자리에 30분 정도 책을 읽어주는 것을 규칙으로 삼는 것이 좋다. 편안한 가운데 같이 하는 30분 정도의 이 시간이 아이에게 독서와 책을 사랑하도록 깨우쳐 줄 수 있다. 반대로 아이가 부모에게 30분 정도 매일 책을 읽어 주게 하는 것도 좋다.

다섯째, 아이가 좋아하는 아동 취향의 잡지 한 둘은 정기구독하도록 해준다.

놀이또래

아동기에 있어서 아이는 가족이라는 작고 친밀한 세계를 벗어나서 사회라는 커다란 세계에서 자신을 구하고자 한다. 그것은 아이에게는 어느 뜻에서는 두려운 것으로, 놀이또래에 들어감으로써 심리적인 의지를 얻게 된다. 놀이또래는 아동기의 소년 소녀 양쪽에 모두 소중하다. 그것은 어른이 지배하지 않는 최초의 하위문화의 경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아, 여아의 놀이또래는 장래 사내로서, 여성으로서 성숙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다. 만약 또래에서 배척된 아이가 있다면 외톨이가 된다. 아동기의 놀이또래에 관련해서 유의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① 놀이또래의 심리학적 중요성

어른에게 영향받지 않은 아동의 놀이또래에 나타나는 심리학적 중요성을 이해할 것.

② 놀장소

당신의 아이들이 모이거나 놀 장소가 있으면 그것은 그 시기에 있어서 아이에게는 그저 그만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소동을 벌여도 곤란하지 않은

장소가 있다는 것이다.

③ 체육 기술을 가르칠 것.

여아가 수영, 스키, 테니스 등 스포츠를 몸에 익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남아는 야구, 축구, 농구 등을 잘할 수 있게 가르치는 것이 좋다. 기초기술을 지도하고 함께 연습하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좋다. 그리고 놀이또래와 함께 연습할 기회를 만드는 것이 좋다. 기술을 빨리 익히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④ 아이가 놀이또래와 접할 때 필요로 하는 사회화의 기술을 가르친다.

아이가 남에게 경멸 당하거나 놀림받았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 놀림받았을 때는 어떻게 되받아주면 좋은가를 가르치면 된다. 아이가 신체의 접촉을 싫어해서 내향적이 될지도 모르는 경우는 아이와 가벼운 레슬링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된다. 놀림을 당하거나 해코지를 당하는 곤란한 경우는 태권도나 어떤 호신술을 익히는 것도 좋다. 아이가 외동이면 형제자매가 있는 아이보다는 또래에 어울리지 못하는 수도 있다. 아이가 집안에서 말다툼을 한다거나 싸움을 보는 것, 즉 형제싸움은 또래와의 인간관계에 도움이 된다.

⑤ 망치, 톱, 대패, 뿔찌 등 기본 공구의 사용법을 가르친다.

이 시기의 아이는 이러한 도구의 사용법을 가르치면 습득이 매우 빠르다. 일단 가르쳐 주면 아이가 무언가를 만들 때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⑥ 친구 집에서 하룻밤 재우도록 한다.

친구들을 하룻밤 부르는 것도 생각해 볼직하다. 친구 집에서 자본다는 것은 아이에게는 가슴 두근거리는 일이다. 그러니 이때는 다소 취침시간이 늦어져도 무방하다.

⑦ 여름에 친구와 캠프에 보내는 것도 괜찮다.

이것은 너무 어릴 때는 시도하지 않는다. 1~2주간 집을 떠나서 생활하는 것은 아이에게 대단한 것이다. 7~8세가 되면 1일 캠프를 10~11세가 되면 2주간 캠프도 무방하다.

가족의 세계

첫째 아이가 뭔가 사고 싶어할 때 공구점·묘목상·스포츠용품에 함께 간다. 도서관이나 아이스크림 집이나 잡화점에 함께 산보한다. 아버지가 아이에게 공을 받거나 던지는 것 등 구기에 대한 기본 기술을 가르친다. 또 운동경기를 함께 구경을 가는 것, 또는 아이를 등산이나 낚시터에, 때로는 제 친구들도 함께 데려가 주는 것은 아이에게 아주 즐거운 일이다. 아이를 극장에 데리고 가도 좋다. 쇼핑이나 도서관에 함께 가거나 하이킹·낚시에 데리고 가거나, 때로는 장기·바둑·트럼프 놀이에서 같이 상대해 주는 것이 좋다. 아동기의 딸을 점심에 데리고 나가면 그것은 아이에게는 특별한 대접이며 경험인 것이다. 어엿은 아이와 친밀하게 우정을 깊이 하는 데는 여러가지 기회를 만드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가족 전체 활동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저녁식사 뒤 30분이든 1시간이든 가족 전체가 게임을 한다는 것은 대개의 가정에서 할 수 있을 것이다. 스무고개, 흉내내기, 트럼프 놀이를 할 수 있다. 놀이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정하는 것이 좋다.

가족 전원이 뭔가를 할 때 가끔 형제 싸움이 일어난다. 가정 내에서 형제간의 싸움을 없앨 수는 없다. 다만 그 다툼을 조금 누그러뜨릴 수 있을 뿐이다. 형제간의 언쟁이나 다툼을 다룰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형제가 싸움을 시작하면 하나 하나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서 5분간 거기에 있도록 한다. 이렇게 분리의 방법을 쓰면, 부모는 하나 하나 누가 먼저 손을 올렸느냐 따위를 안 따져도 된다.

다음은 아동기의 훈육 방법의 문제이다.

첫째, 아버지가 고려할 것은 어린이다움이다. 아이가 얌전한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기를 기대하는 것은 계란에게 꼬꼬덕하고 울라는 것과 같다. 그러니 아이들은 있는 그대로를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두어야 한다.

둘째, 대개의 부모는 아이가 나쁜 습관을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염려하지만, 나쁜 습관은 곧 교정될 것이니 염려 없다.

셋째, 아버지는 아이에게 설교하는 대신 칭찬을 하도록 한다. 아이는 부모

에게 칭찬 받으면 크게 고무 받는다. 만약 8세되는 아이가 바지를 옷걸이에 걸고 셔츠나 양말을 제 방의 의자 위에 놓아두었더라도 바지를 건 것을 칭찬하고 나머지 것은 잘못이 있더라도 못 본 체 하는 것이다.

넷째, 아이에게 영향이 있는 가정 내의 결정에 대해서 발언하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예컨대 강아지를 산다면 어떤 게 좋은가, 어떤 영화를 보러 갈 것인가, 휴가를 어디에서 보내면 좋겠는가 등. 이는 무엇이든 아이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의 의견을 존중해 주자는 것이다.

다섯째, 아동기에는 성에 관한 도움이 될 책을 사주고,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지 답해 주는 것이 무난하다.

사춘기 전 단계

사춘기 전 단계는 대개 11세에서 13세까지 간다.

12세의 많은 소년들은 공작을 좋아하고, 소녀들은 가정을 좋아한다. 소녀들은 보통 요리나 재봉에 매우 흥미가 있으며, 요리할 때 그녀들의 주된 흥미는 만들어진 것을 먹는 데 있다. 소년들은 야구, 축구, 농구 등을 즐기며, 소녀들은 소프트 볼, 피구, 배구 등을 좋아한다.

대부분의 소녀는 12세 어느 시기에 첫 월경을 경험한다. 월경이 나타나도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월경이 실제로 시작되면, 우리 사회의 관습으로서 어머니는 함께 월경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버지는 한 마디도 안한다. 딸에게 첫 월경이 시작되면 침묵을 지키는 대신, 마침 딸과 둘이서 있게 된다면 부드럽게 축복해 줄 것을 제안한다. “아빠 네가 월경이 시작된 걸 안단다. 아빠는 그것을 듣고 기뻐다. 이제 매력적인 여성이 되는 길로 들어섰구나. 나는 네가 자랑스럽단다.” 그리고 이 자연의 성장에 관해서 뭔가 일러 줄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소년들이 이 나이에 자위행위를 시작한다. 만약 아버지가 이전에 자위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아이에게 들려주어 안심시키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이야기해야 한다. 아이가 이제 12세로 젊은이라고 해도 좋을 연령이며 성적으로도 새로운 단계로까지 성장했음을 알려 준다. 성에 관한 정확한 지식과 가

치를 전달할 수 있는 책을 선정해서 주면, 몇 년 동안 성에 관한 단편적인 지식을 해결해 줄 수 있고, 또 모르는 게 있으면 부모에게 자유롭게 물을 수 있게 한다.

사춘기 전기의 자녀를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1)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단계 아이들의 불쾌한 행위는 일시적인 것으로 이해하여 줄 것.
- (2) 아이의 행동에 맞서서 신경질을 부리지 않을 것.
- (3) 문제가 중요해서 아버지의 확고한 지도가 필요한 사항,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문제나 혼자 맡겨 두어도 괜찮은 사항을 구별해야 한다. 아이의 대수롭지 않은 일에 소란스럽게 반응해선 안된다.
- (4) 이 시기 아이의 도전적인 행동에 흔들려서는 안된다. 아이의 기묘하고 이상한 행동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질책하는 반응에 앞서 ‘천천히 대응하자’는 식으로 해야 한다.
- (5) 이 시기에 아이의 거친 행동이 무사히 다음 단계로 옮겨갈 수 있도록 여러가지 기회를 준비해야 한다. 사춘기 전 단계에서는 어떤 아이도 특정한 성장을 위해 거쳐야 하는 모험이 필요한 것이다. 만약 그것이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형태가 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행동은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형태로 폭발할 것이다.

11세의 소년은 자신이 자유롭고 적극적인 아이이며, 어머니의 귀엽둥이가 아닌 것을 자기 자신과 타인에게 증명할 수 있게끔 어떠한 생활환경의 체험이 필요하다. 만일 당신이 아이가 모험여행을 하는 여름캠프에 참가할 기회를 준비해 주면 아이는 자기 자신이나 타인에게 번거로움을 주지 않고도 자신과 자유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아이가 자신의 자유를 시험해 보는 생활환경을 갖지 못하면 아이는 자신의 용기를 자신이나 또래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슈퍼마켓에서 무얼 훔치려고 시도할 지도 모른다.

- (6) 이 단계에서 새로 형성된 아이의 독립심을 소중히 할 것. 이제 부모는

아이가 보다 대등하게 자신과 대할 수 있게 높은 수준으로 아이를 끌어 올려야 한다. 이는 사춘기를 통해서도 계속되며, 아이가 성년이 되었을 때 두 사람은 어른으로서 동등한 자격으로 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 이 과정은 11세 때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

(7) 이 시기의 반항을 부모에게 향한 개인적인 반항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아버지는 아이가 반항하고 있는 어른사회 전체의 단순한 상징에 불과하다. 부모는 아이의 반항과 방자함에 대해서 자신은 관계없는 방관자로 여기면 된다. 그것이 부모의 냉정함을 견지시키고, 아이의 그러한 방자함에 대처해 나가는 유효한 방법이다.

(8) 사춘기 전초기의 아이와 같이 생활하려면 아버지에게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요약한 세가지 기본적인 마음가짐을 염두에 두라.

- ① 아이로부터의 고통을 참고 견디자.
- ② 아이로부터의 고통을 참고 견디자.
- ③ 아이로부터의 고통을 참고 견디자.

사춘기 전기(13세~15세)

사춘기의 젊은이는 자기자신 속에 갈등을 안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감정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제 발로 설 것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전히 부모에게 감정적으로 의존을 보장받고자 하는 심정으로 피보호자로 있고 싶은 것이다. 사춘기의 또다른 역설은 ‘반항’과 ‘순응’이다. 제 또래에 무조건 따르고, 또래가 하는 몸짓 등을 비굴할이만치 흉내내는 것으로부터 아이는 부모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 아이는 아직 자기 자신의 내적 동일성을 만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친구가 입는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머리모양, 같은 음악을 듣고, 또래의 영웅을 갖고, 같은 특수한 언어를 지껄인다. 어른의 문화에는 반항적이지만 청년문화에는 맹목적으로 따르는 보수당원이 되어 버린다.

13세의 흥미나 활동은 개개인에 따라 다르다 특별한 취미에 집착하고 특정 사항에 흥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소년들은 라디오, 사진, 자동차, 비행

기의 디자인이나, 특히 인기있는 플라스틱 모델에 흥미를 갖는다. 그리고 11~12세 때와 같은 기분으로 스포츠를 계속한다. 소녀들은 재봉, 편물, 요리 등에 흥미를 갖는다. 곤잘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며 창조적인 활동을 즐긴다.

독서는 이 나이에 증가해서, 책이고 잡지고 간에 무턱대고 읽는다. 음악은 13세에 매우 소중한 것이며 좋아하는 그룹의 음악을 즐겨 듣는다.

14세때는 전화를 아주 많이 한다. 14세의 끊임없는 지껄임은 마주 서거나 전화이거나 잡담이라고만 여겨선 안된다. 이야기는 14세가 인간적인 개성이나 사회적인 인간관계를 배우기 위한 도구인 것이다.

14세 소년, 소녀들은 성에 관한 지식을 필요로 해서 찾아 헤매는 연령이다. 14세는 성에 관한 지식을 구할 뿐 아니라 성에 관한 여러 화제를 나누고 성에 관한 자신의 가치판단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원한다. 만일 자녀가 성에 관한 말을 걸어와 순조롭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두번 다시없는 기회일 것이다.

15세라는 나이는 다음 단계인 사춘기 후기로의 이행시기인 것이다. 15세는 자신을 부모와 어른들로부터 열심히 분리시키려 한다. 15세는 가족이 함께 외출하자는 유혹도 거절하고 자기 혼자, 또는 친구들과 있는 것을 좋아한다. 아버지의 가장 큰 심리적인 과제는 사춘기 자녀가 가족으로부터의 고립하는 현상을 마치 자신에게 향한 개인적인 거절로 받아들이는 위험이다. 독립의 목적은 자신의 확립을 구하려는 충동에 불과하다. 아버지로서 유의할 점은 독립으로의 새로운 마음가짐의 표명과 격하면서도 조용한 아이의 그러한 의지를 순수하게 존중하고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독립하고자 하는 열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반항이 있어도 적어도 대학에 가기 전까지는 아이는 가정과 가족의 보호가 절대 필요하다.

어느 학생에게는, 특히 소년의 경우 15세 때에는 학교생활에서 아주 고통을 받는다. 그것은 이 나이에 탈락자가 증가하는 데서도 나타난다. 부모는 학교가 싫고 성적이 좋지 않은 반항적인 소년에게 반나절의 노동을 경험시킨다는 등의 해결책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다. 회사나 농장에서의 노동, 자동차 수리 공장이나 오토바이점의 조수 등을 고려해 보자. 잘되면 그러한 노동의 경험이 때때로 자기 자신과 생활에 대한 태도나 또한 소홀히 했던 학과에의 태도에

극적인 변화를 부르기도 한다.

아이가 사춘기에 들어섰을 때, 아버지가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 두 가지 있는데, 그것은 아주 어려운 사항이다. 몇 년 동안이나 아버지는 자녀를 무성(중성)의 존재로 여겨 왔다. 그런데 갑자기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아이들은 무성이 아닌 성을 가진 존재로서, 더욱이 아동이 아닌 성인이 되는 과도기적 존재라는 인식과 더불어 다루어야 한다. 아이들은 착한 아이들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제 도전적·도발적인 반어론이 된다. 부모는 다음과 같이 생각할지 모른다. “어쩌면 나는 애들에게 감정적으로 버림을 받은 건지도 모른다. 애는 이제 나와 가족들과의 관련을 갖고 싶지 않은 것 같다. 난 이제까지 애에게 무엇이든 해주었는데 어쩌서 저 애는 이런 식으로 나를 대하게 된 것일까? 나는 이 애를 응석받이로 만들었음에 틀림없다” 이렇게 해서 부모와 사춘기 아이간에 전쟁이 벌어진다. 충돌은 격앙되고 유대는 완전히 단절되고 만다.

사춘기의 반항을 발달상의 적극적인 진전의 한 단계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낙담하거나 포기하면 안된다. 아이들이 생활에서 부모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길지 모른다. 그러나 부모는 아이들에게 중요하다. 그 의미가 달라졌을 뿐이다. 이제는 아이가 아닌 반은 어른인 아이에게 부모의 의미는 여전히 중요한 것이다.

사춘기 후기(16~20세)

아이는 먼저 다음과 같은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 ① 직업을 결정하고 그 준비를 한다.
- ② 이성과의 만족한 관계를 이룩하고, 이성과의 연애생활의 건실한 형태를 확립한다.

직업의 선택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그 중 하나는 경제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의 적성과 개성에 맞는가이다. 경제적인 것은 별개로 하고, 직업이 적성에 맞지 않으면, 심리적인 욕구를 결코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불행해진다.

한편 사람이 직업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떠한 어른이 되느냐에

큰 영향을 준다. 직업에 의해 사람은 친구나 동료와 어울리고, 자신의 직무 속에서 기대되고 있는 역할이 주어지고, 또한 목표나 이상과 습관을 몸에 지니고, 그리고 어느 특정의 직업에서 고유의 생활양식을 터득하게 된다. 그러므로 직업의 선택이 사춘기 후기에 해결되지 않으면 안되는 중요과제이다. 이 점에 있어서 아버지는 자녀의 힘이 될 수 있다.

직업선택에 관한 과학적인 조언이 자녀들에게 도움이 된다. 아버지가 16세 아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값진 지출은 아이를 대학 또는 심리학자에게 개인적인 직업적성검사를 받게 하는 것이다. 이 검사는 다음의 네가지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① 지능(그룹지능검사 보다는 개인 지능검사에 의해 실시) ② 흥미 ③ 재능 ④ 성격

이러한 직업적성검사로 적성, 성격, 능력, 흥미 등과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어느정도 알게 되면, 자신에게 맞다고 생각되고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고 그 직업에 대해서 알아본다. 그 직업에 있어서 장래에 필요한 것과 급료, 수당, 근로시간, 휴가나 특별급여, 요구되는 교육과 훈련, 그리고 훈련에 어느정도의 시간이 필요한가, 그 직업의 미래 전망 등등의 자료를 찾아 기록한다. 또한 먼저 편지를 쓰고 이어서 전화로 개인적으로 만날 약속을 하여 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과 면회를 하도록 주선을 한다. 가능하면 방학 때, 그 직업의 견습공 및 조수로 일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만약 소년이 치과의사가 되고 싶다면, 아이에게 근처의 치과의사에게, 일의 어떤 면이 즐겁고 어떤 것이 괴로운가를 물게끔 찾아가도록 한다. 또한 치과의사가 실제 하는 일과, 치과의사가 되기 전에 치과의사를 어떻게 상상했으며 그것이 실제 어떻게 다른가를 특별히 물어 볼 것을 권장한다. 왜냐하면 여러 점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의 직업선택은 공상에 의해서 다분히 윤색되기 때문이다. 일이 어떤 것인가를 바로 아는 것은, 결혼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것과 같이 오직 실제로 접해 보아야 알 수 있다.

직업적성검사, 직업지도는 전문적으로 양성된 사람이나 집단에 의해서 행해져야 한다. 만일 이같은 전문적 검사가 어떤 이유로 불가능하다면 당시는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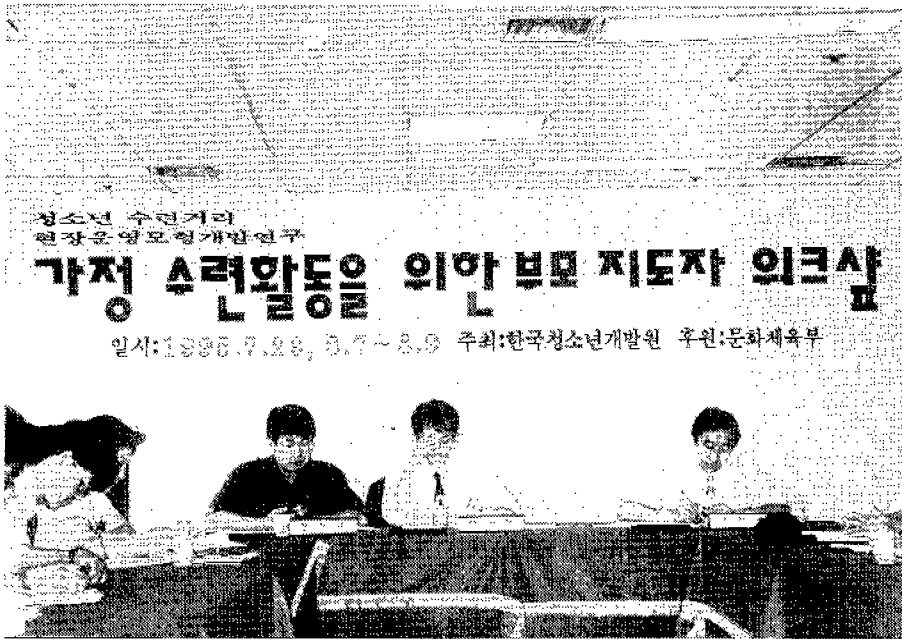
녀에 대해서 직업카운슬러로서 아이들이 생각하는 직업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해서, 그 특정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과 면접하도록 주선했을 수 있다. 가령 당신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도 아이의 직업선택에 관해서는 대화의 길을 열고, 아이의 심리적 변화나 상황에 대해 공감자가 되어 크게 도울 수 있다. 소녀의 경우, 그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과 면접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남자와는 달리 결혼, 자녀 양육이라는 문제와 직업이라는 문제를 양립시키는 것이 대단한 심리적 부담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사춘기 후기 성장과정의 제2의 과제는, 이성과의 소망스런 관계를 형성하고 이성과 안전한 연애생활의 형태를 확립하는 것이다. 부모의 가치기준이 무엇이든간에 부모의 성적 기준을 자녀에게 알린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여러 연구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사실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부모의 사고나 의견을 매우 존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모의 의견을 알려준 다음 아이가 부모의 생각이나 성적 기준에 반항한다 해도 아이는 부모가 어떠한 생각을 가졌는가를 알고 싶어한다.

다음 장부터는 앞서 설명한 수련활동의 기본적인 틀과 원리에 입각하여 가정에서의 체험활동을 실제로 실시한 내용을 기술하기로 하겠다. '경주가족자전거문화기행'은 가정 수련활동의 4단계인 계획, 준비, 실행, 평가 단계를 고려하여 청소년 개발원에서 실행한 가족 수련활동 시연이다.

2장 가정수련활동을 위한 부모지도자 워크숍

한국청소년개발원은 문화체육부와 내무부 및 경주시의 후원 하에 1995년 8월 7일(월)부터 9일(수·2박 3일)까지 경주시에서 '가족 자전거 문화기행'을 개최하였다. 이에 앞서 1995년 7월 29일에는 가정에서의 수련활동 활성화 작업의 일환으로 '가정에서의 수련거리 운영에 관한 부모 지도자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청소년개발원에서는 가정에서의 체험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가장 중요한 교육기관은 학교가 아니라 가정이다. 또한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교육 기관으로서의 가정의 의미를 부각하고, 가정 내에서의 수련활동의 필요성과 목적 및 방법을 일깨우고, 부모의 역할을 일깨우기 위한 부모 지도자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부모 지도자 워크숍'을 통하여 부모들은 가정에서의 체험활동의 목적, 필요성, 방법을 강연과 실습을 통하여 학습하였다. 그리고 가족 체험활동에 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는 작업을 하였다.

부모는 가정 내의 활동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가정에서의 교육은 주로 경험, 체험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체험을 원한다. 이러한 체험 활동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부모가 갖추게 된다면 가정에서의 체험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고, 따라서 청소년들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 제1기 가정 수련활동을 위한 부모 지도자 워크숍

초청의 글: 올 여름 휴가는 가족들이 꾸미는 가정 수련활동을 해 봅시다. 가족 프로그램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는 ‘가정 수련활동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가정수련활동을 돕기 위한 ‘부모 지도자 워크숍’을 실시합니다. 전문가들과 부모들이 모여 가정 수련활동의 목적 및 필요성,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고, 프로그램들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는, 가정 수련거리 운영에 관한 부모 지도자 워크숍입니다.

일 시	1995년 7월 29일(토) 16:00 ~ 19:00
장 소	한국청소년개발원 세미나실(양재역에서 성남 쪽으로 도보로 10분 거리, 일동제약빌딩 4층)
대 상	가족 자전거문화기행 참여 부모 및 일반 부모 (신청 선착순 30명)
담 당	한국청소년개발원 정희욱 선임연구원(☎ 578-7924)

참가비 무 료

〈워크샷 내용〉

1. 가정 수련활동은 왜 필요한가?

한승희(한국청소년개발원 활동연구실장)

2. 가정 수련활동의 목적과 의미

정희옥(한국청소년개발원 선임연구원)

3. 참여하신 부모들과 함께 하는 ‘수련활동의 실제’ ‘우리가족이 꾸미는 가정 수련활동’

이재택(청소년개발원 객원연구원, 가족문화운동가)

〈부모 지도자 워크샷의 기대 효과〉

-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대화, 풍부한 경험, 성숙, 건강, 의욕의 기회를 갖음
- 가족들이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가정 수련활동 소재 및 실시 방법을 개발, 모델 마련

다음은 이번 연구에 객원연구원으로 참가하신 이재택 선생님의 글로 워크샷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어 보는 작업을 보여준다.

1절 우리가족이 마련하는 가정수련활동

1.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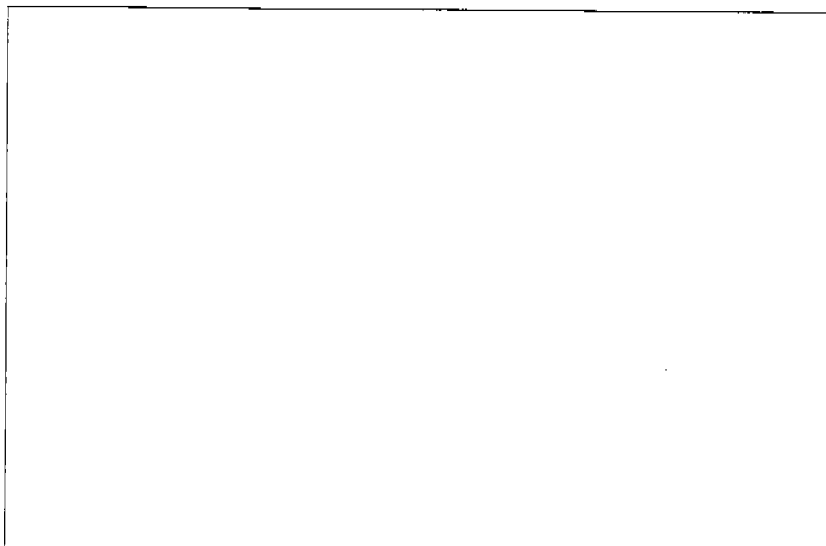
- 1) 가족 - 공동목표를 갖자 / 가정이 교육적인 면에서 매우 중요한 곳이라는데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가정의 기능, 부모의 역할을 다하기에는 우리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 부모들은 직

장에서 자녀들은 학교에서 열심히 생활하다보면 가정에서는 재충전을 위한 휴식이 필요하겠으나 시간을 마련하여 가족들끼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위한 달성하러 노력을 한다면 가정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음은 물론 가족들 서로간에 이해의 폭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청소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도 이런 과정 속에서 건설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들의 공동목표, 이는 가족들 모두가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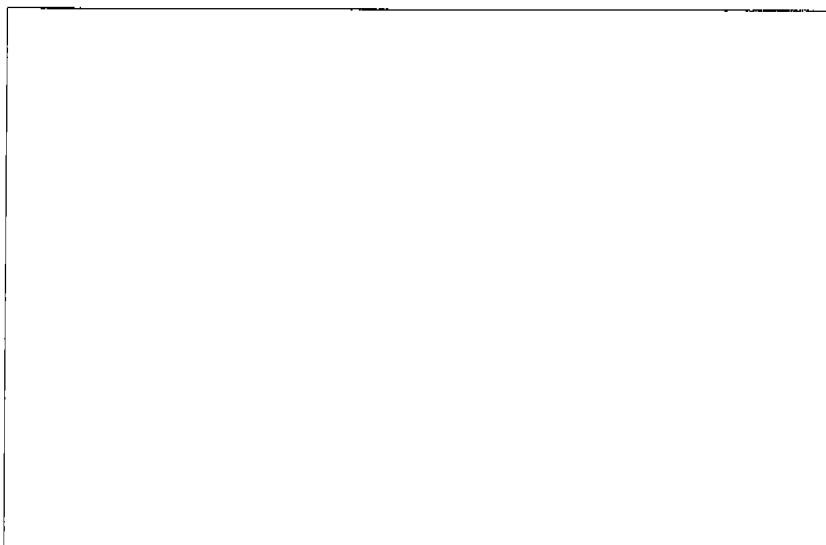
2) 부모와 같이 하려하지 않는다. / 설령 부모로서 가족들과 함께 할 수련거리를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성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께서 ‘우리 아이는 이제 부모들과 시간을 보내려 하지 않아요’ 라는 말씀을 하신다.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의 의도대로 되었으나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부모들과 시간을 보내려 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대화도 부족하고 이젠 거리감마저 느낄 수 있다. 무엇 때문일까? 자녀들 입장에서든 누군가와 의논할 일들이 더 많을 텐데! 가족들이 함께 하며 자녀들의 고민, 바람, 갈등을 건전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방법은? 지금부터라도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3) 프로그램이 없다. / 가족과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싶지만 우리 가족들의 상황에 꼭 맞는 프로그램을 찾기가 쉽지는 않다. 가족단위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시하고, 평가까지 해 본다면 가족과 함께 가정 수련거리를 마련해 보자.

* 우리가족들의 체험활동 목표 정하기



*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이 부족한 이유? 대안?



2. 가족수련거리 같이 만들기

가족대화를 통하여 시작에서 마무리까지 사소한 일이라도 의논을 하도록 한다. 자녀들이 꾸민 가족 프로그램 ...

1) 언제? 누구와? 어디로? (가족회의)

연 제 : / 8월 7일 오전 8시 30분 출발
얼마나 : / 2박 3일 (1995년 8월 7일 ~ 8월 9일 까지)
누구와 : / 친구, 이웃, 친척 한국청소년개발원 활동연구팀과 ...
어디로 : / 한국청소년개발원 출발 --> 경주
숙소는 : / 유스호스텔, 방갈로, 민박, 캠프, 콘도

2) 우리 집 수련활동의 명칭(주제)을 멋있게 정해보자.

명 칭 : '95 동호네 가족 자전거 문화기행
주 제 : 건강한 우리가족 행복한 우리가정

3) 왜 자전거이며 왜 경주인가?

자전거 : 건강,환경보호(문화재보호), 에너지절약, 근검절약하는 생활습관 배양 등
경 주 : 문화기행

4) 가족수련활동을 위한 준비모임

① 프로그램의 성패는 참여자들의 유기적인 활동 여부에 따라 그 성패가

좌우될 수 있으므로 준비 과정이 필요함, 폭 넓은 이해, 프로그램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

- ② 우리 가족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해법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하여 가정과 사회의 건강을 만들어 가는 것. 참여자들 모두는 행복한 가정, 다정한 이웃, 그리고 청소년 건전육성의 실현을 위한 지식 기술 태도 습관 등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노력하자.
- ③ 만남의 시간 : 인사와 자기소개, 한울타리가족노래 익힘, 공동생활규칙, 가족회의 기록, 조편성,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마련, 최소의 통제, 가족 단위 수련활동.

5) 일정표 작성

<보기>

8월7일 / 하일라콘도 --> 분황사 --> 황룡사터 --> 유적기념관 --> 현덕왕릉 --> 황성공원 --> 하일라콘도

8월8일 / 하일라콘도 --> 통일전 --> 안압지 --> 반월성 --> 침성대 --> 계림 --> 박물관 --> 천마총 --> 오릉 --> 포석정 --> 남산 삼릉 --> 하일라콘도

8월9일 / 하일라콘도 --> 불국사 --> 석굴암 --> 무열왕릉(버스로 이동) --> 동해대왕 해수욕장 (한시간 휴식) --> 서울

* 참가자 상황? 10~15km/h, 중간에 지도자 배치, 적당한 휴식.

* 가족들의 시간, 또는 부모(부부)의 시간에는? --> 육부촌 방문, 보문단지 산책 등

* 각자가 작성

	첫 째 날 8월 7일	둘 째 날 8월 8일	셋 째 날 8월 9일
5시 30분		기상 아침식사	
6		아침식사	아침식사
7			
8			
9			
10			
11	도착방배정		
12	점심식사	점심식사(도시락)	점심식사
1			준비, 집으로...
2			
3			
4			
5			
6			
7	저녁 식사	저녁 식사	
8			
9			
10			
10시 30분	행복한꿈나라로...		

6) 역할의 분담 (점검표를 만들어 진행사항을 확인)

모든 것을 해주려 하지 말고 자발적인 참여 유도, 소외됨 없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자에 맞게 역할분담

- ① 교통 (기차예매, 버스 대여시 보험확인)
- ② 숙식 (먹고, 입고, 자고, 위생, 이동)
- ③ 예산편성 및 집행 (교통비, 식비, 숙박비, 간식비, 자전거 대여비, 기타)
- ④ 수련활동을 위한 것 (프로그램 작성, 참고자료수집, 수련정보, 지도 등)
- ⑤ 무엇을 준비 (공동, 가족, 개인) / 쌀, 긴옷, 얇은 담요, 세면도구, 필기 도구, 수저, 우의, 비상약, 호각, 개인보험가입
- ⑥ 현지답사(가능하면 자녀들과 함께)후 프로그램 확정

	8월 7일	8월 8일	8월 9일
아버지			
어머니			
자녀 1			
자녀 2			

7) 식단 짜기, 재료준비

	8월 7일	8월 8일	8월 9일
아침			
점심			
저녁			
간식			

3. 프로그램 전에

- 1) 좋은 관계 유지
- 2) 대화의 방법 점검
- 3) 가족 수련활동의 목표?
- 4) 역할의 분담
- 5) 가족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이해

① 배우는 과정 ② 활동에 참여하여 즐기는 과정 ③ 발표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기성찰 기회, 객관화된 자기가족 인식, 가족 대화를 통해 이해 촉진, 이웃가족과의 친교, 신뢰감 형성,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기르고 자연 속에서의 즐거움 찾도록

4. 프로그램의 실시

- 1) 자녀들이 꾸미는 가족행사, 철저한 역할분담, 기록
- 2) 자전거를 알자.
 - ① 자전거의 역사, 자전거를 타야하는 이유, 자전거를 올바르게 타는 방법 등 숙지
 - ② 자전거 타기 / 안전수칙, 도로주행방법, 추월하고 대열에서 이탈하지 말 것, 과속 금지, 자전거 점검 등
 - ③ 안전교육 철저히, 참여자 각자의 특성 파악, (조 편성, 안전관리 - 가족별 책임자, 최대의 자율성 - 최소의 규제)

5. 프로그램의 평가 (정리)

수련활동을 통하여 느낀 점, 우리가족들에게 도움이 되었던 점, 앞으로 보충하고 싶은 점 등 종합적인 평가 (각 가정에서, 가정 수련활동의 필요)

일시 : 8월 19일 16:00 ~ 18:00

장소 : 한국청소년개발원 세미나실

6. 부모지도자워크샷 관련자료

아버지로서 다섯 가지 바람 (『동호 아버지의 가정교육』 중에서)

방학을 이용해 동호와 자전거 국토순례를 하기로 했다. 많은 생각 끝에 조심스럽게 자녀에게 제안을 한 것인데 몇 번을 물어봐도 평소 그러한 여행을 바라고 있었다는 적극적인 자세이다. 아내는 위험을 이유로 들어 쉽사리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세 식구 만장일치로 결정을 본후 부터는 틈만 나면 여행 이야기를 한다. 아내가 이야기를 하는 내용은 주로 안전에 대한 이야기이며, 동호의 이야기 거리는 자전거를 마음껏 탈 수 있는 신나는 마음과 아버

지와 함께 많은 날을 여행한다는 것, 또 부산에 있는 작은 집에 갈 수 있어서 좋다는 내용 등이다. 그렇지만 식구들이 이야기 하는 것들 이외에도 준비할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빈틈없는 여행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긴 여행을 앞두고 모든 것을 빠뜨리지 않고 준비하고 있는 필자는 걱정스런 마음을 철저한 준비로 달래고 있다. 내가 자녀와 함께 이렇게 긴 여행을 하기로 마음 먹은 것은 다음 이유에서이다.

충분한 대화

첫째 자녀와 많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이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를 여행 기간동안 충분하게 나눌 것이다. 이렇게 자녀와 함께 주고받는 이야기로 인하여 서로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친밀감도 생기겠지! 자녀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요구를 이해하며 격려도 해 주어야지, 의논상대가 되어주고 여러 분야의 이야기를 폭 넓게 해야지, 이 기회를 통하여 자녀의 고민, 바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친구, 관심있는 일, 집안 일에 대하여도 이야기를 해야지, 혼자 말하지 말고 많이 들어주어야지... 여행을 떠나기도 전인데 지도만 펴놓으면 무슨 할 이야기가 그렇게 많은지? 이런 분위기가 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다. 나중에는 지쳐서 동호는 짜증을 많이 내고 아버지는 잔소리도 하였지만 그래도 여행기간동안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음먹은 대로야 안되었지만 가족여행은 즐겁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때로는 친구가 되어 의논도 하고 주제를 정하여 토론도 하며 일도 같이하고 ... 이렇게 아이들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은 아이들을 버릇 없게 나둔다는 것과는 사뭇 다른 것이다.

풍부한 경험

둘째 여행을 통하여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다. 요사이 활동 범위가 넓지 않은 자녀에게 보고, 듣고, 체험하며, 이를 통하여 느끼고 배울 수 있게 함으로서 풍요롭고 성숙한 마음을 갖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다. 다양한 인간관계를 경험하고, 여러 지방의 생활의 모습들을 보고 듣는다면 사회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물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

겠지! 이것이 자녀를 성숙한 사회인으로 성장 할 수 있는 바탕이 되게 하는 것 아닌가? 이러한 체험을 함으로서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커질 것을 기대를 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바탕으로 가능하면 민박을 하였고 평소 알고 지내던 분의 집을 찾기도 했다. 첫날은 수유리 집에서 출발을 해서 종로 서울역 동작동 국립묘지를 거쳐 남태령을 지나 수원에서 하루를 지냈다. 둘째 날은 성환을 지나 천안의 친구 집을 찾았다. 이렇게 시작된 우리는 자전거를 타고 온양 민속박물관도 갔고 현충사 참배도 하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칠갑산 장곡사, 온양, 부여, 내장산 백양사 ... 그리고 부산에서 통일 전망대까지 7번 국도를 달려오면서 해수욕장도 포구도 돌리고 또 어촌에서 민박도 하였다. 부산으로 인하여 다소의 일정이 변경이 되었지만 여행기간 동안 새로운 만남도 많았고 찾은 곳도 많았다.

성숙

셋째 자립심을 길러줄 수 있는 기회로 삼으려 한다. 우리는 이 여행을 계획하면서 민주적으로 의논을 하였다. 될 수 있는 한 간섭을 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생각의 차이는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나는 숙박을 책임지고 식사에 대한 것은 자녀가 결정을 하기로 했다. 그리고 자기 팔래는 자기 스스로 하기로 하였다. 또 우리는 저녁에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로 하였으며 편식을 하지 않고 매일 글을 쓰며 일정에 대해 의논하고 동호는 어머니께 전화를 한다는 약속도 하였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하여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커지지 않겠는가? 또한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도 생기겠지, 그리고 힘든 여행과정 속에서 절제하는 힘도, 어려움을 이겨내는 마음도 커갈 것이다. 또한 생각의 폭도 넓어지고 그를 바탕으로 훌륭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을거야. 이런 능력이 생기면 스스로 큰 꿈을 가지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인내를 가지고 매사에 도전할 수 있겠지.

건강

넷째 이 여행을 통하여 건강한 몸, 그리고 건전한 생활 습관을 익히게 하고

싶다. 하루 평균 50km~100km 이상을 달리는 20여일 동안의 자전거 여행은 운동량이 많다. 자기 관리, 체력안배, 위생관리, 그리고 충분하게 영양을 섭취해야 한다. 그리고 적절하게 자기를 통제하고 조절해야 할 것이다. 이를 잘해낸다면 몸이 건강해짐은 물론 욕구를 건전하게 분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매일의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하여 하루 하루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으며 반성하는 시간도 갖기로 했다. 이러한 반복이 좋은 생활 습관을 만들어 줄 것이라 생각을 한다. 우리가 자전거 여행을하기로 한 것은 공해가 없기 때문이며 에너지가 소비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행을 통하여 감소한 생활 습관이 몸에 배어있으면 한다. 자전거로 우리 산야를 달리며 자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도 커 가겠지, 말로만 하는 환경보호 보다는 피부로 환경의 소중함을 알게 되겠지.

의 욕

다섯째 이 여행을 배움에 대한 의욕을 일깨우는 기회로 삼을 것이다. 가르칠 것은 가르치고 또 스스로 깨닫도록 배려를 할 것이다. 잘, 잘못은 분명하게 지적해 줄 것이며 기본적 예절 습관을 몸에 지니게 할 것이다. 또한 옳은 방향을 제시해 주며 한계도 알려 주리라. 바람직한 성격을 지닐 수 있도록, 이성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현실에 충실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스스로 매사에 성실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들을 글로 쓸 것이다. 학교 공부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 여행 기간동안 다양한 주제를 통하여 호기심 유발하는 경험을 하며 같이 연구하고 같이 활동함으로써 성취동기를 고양시키도록 할 것이다. 이러면 배움에 대한 의욕이 생겨 학업 문제도 자동적으로 해결되리라 생각한다. 이런 아버지의 행동을 자녀가 닮아갈 수 있게 모범을 보일 것이다. 나는 이러한 바람으로 즐겁게 여행을 하며 자녀와 더욱 친해지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적당한 사랑과 적당한 관심을 갖기란 어렵겠지만 자녀가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물질적으로 잘 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잘, 잘못 가려주고, 통제능력 길러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자녀도 알겠지

이렇게 아무진 부모로서의 나의 바람만큼이나 이번 여름의 자전거 여행은

너무나 힘이 들었다. 체온을 웃도는 더위도 체험할 수 있었고, 가뭄 때문에 논바닥이 갈라지고 식수가 부족한 것도 볼 수 있었다. 고생을 시켜 보자는 의도는 적중했지만 너무 지친 나머지 탈진 상태까지 간 동호를 바라보는 나의 마음은 몹시 안타까웠다. 나 자신도 이렇게 하는 것이 자녀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하였지만 마음이 아플 때가 너무 많았던 것이다. 앞으로 동호가 두고 두고 이 여행을 생각하며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근검절약하는 알뜰한 생활 태도를 가져 주었으면 한다. 아버지로서 힘들었던 기억은 통일전망대에서 동호의 말 한마디로 깨끗하게 잊을 수 있었다. ‘아버지 이번 여행은 나를 이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여행 중에 우리를 도와주신 분들과 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친구의 우정에 감사를 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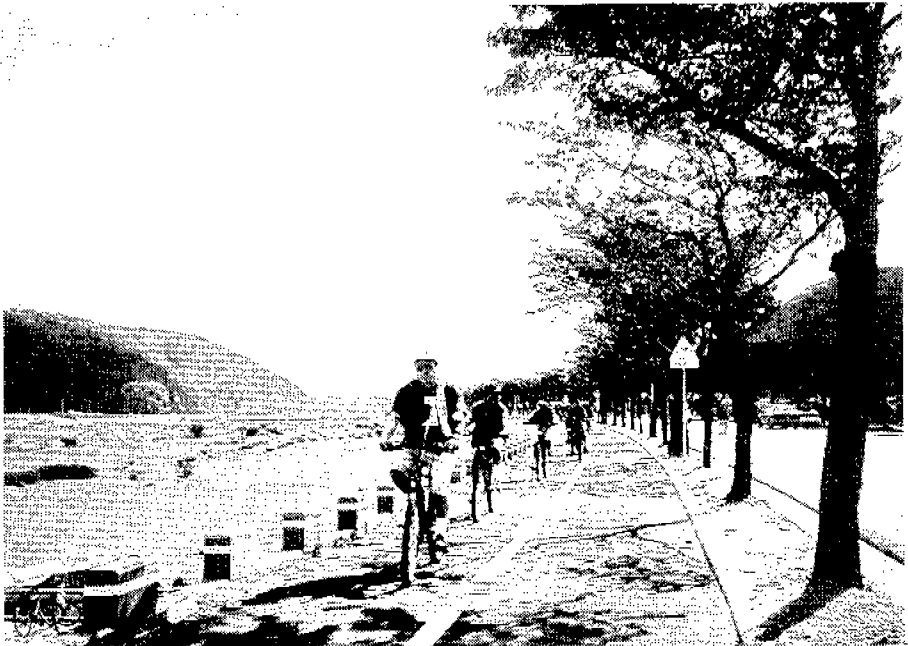
7. 자전거 이점

1. 무공해 교통 수단으로서 공해 방지에 도움을 준다.
2. 인간 에너지로 운행되는 자전거는 고갈되고 있는 자원을 소비하지 않음으로써 에너지 절약에 큰 도움을 준다.
3. 경제성이 큰 교통 수단(통근, 통학, 운반 등) 이다.
4.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청소년의 정서안정에 도움을 주는 레저 스포츠 기구이다.
5. 국민 건강 유지와 국민 체력 향상에 활용되고 있는 스포츠 용구로, 자전거 여행 등 다각도로 활용될 수 있다.
6. 자전거를 타는 것은 실질적으로 유익할 뿐 아니라 겸소한 생활기풍을 진작하고 명랑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7. 자전거 타기는 자립정신과 근면정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3장 경주가족자전거문화기행

현대사회의 생활양상이 점점 핵가족화되어 감에 따라 청소년 수련거리의 유형도 가족단위의 형태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자식에 대한 부모의 과잉보호에 의해 청소년들이 학교나 가정 이외의 집단활동 참여 기회가 대폭 줄어들고, 주말을 이용한 가족 중심의 여가활동이 증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요구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청소년 수련활동을 가족과 함께 참여토록 함으로써 청소년과 부모간의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고 부모로 하여금 수련활동의 필요성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가족단위의 수련거리 개발은 한층 절실하다.

한국청소년개발원은 문화체육부와 내무부 및 경주시의 후원 하에 1995년 8월 7일(월)부터 9일(수)까지 2박 3일간 「가정 수련활동 활성화」의 일환으로 경주에서 가족들이 함께 꾸며보는 '가족자전거문화기행'을 개최하였다.



청소년 개발원에서는 가정에서의 체험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모형을 개발하고 있다. 한국청소년개발원 활동연구팀이 운영하는 이 행사는 여느 행사와는 다르게 참가 가족이 꾸며나가는 형식으로 진행하며 활동연구팀은 조력자로서의 역할만을 담당하였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수련활동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 때문이다.

‘경주 가족 자전거 문화기행’은 실로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행사이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문화와 역사를 알려준다는 의미 외에도, 가족이 함께 땀흘려 자전거를 타고 기행을 한다는 점에서 가족의 화합을 돕는 활동이다. 이밖에도 교통, 에너지, 주차, 환경, 여가 활동 및 건강 등의 문제에 있어서 다양한 의미를 지니는 행사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세대간의 단절 및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누가 먼저, 어떻게 그 벽을 허물 것인가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사람들은 같이 힘든 일을 할 때 친해지고, 가로막고 있는 벽이 없어지는 것을 느낀다. 가족이 함께 자전거를 타고 땀을 흘려가며 문화와 역사 유적지를 기행할 때, 이러한 벽은 허물기에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이다.

자전거는 에너지 문제, 교통 문제, 주차 문제, 환경 문제, 여가 활용 및 건강 등의 여러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지니고 있다. 자전거는 화석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 교통 수단일 뿐 아니라, 건전한 여가활용의 수단이다. 또한 운동이 부족하기 쉬운 현대인에게, 청소년들에게 좋은 운동이 된다. 특히 관광지에 자전거 도로를 잘 닦아 놓고, 자전거 대여가 용이하고, 그것에 대한 홍보가 잘되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이용하여 상쾌하게 도로를 달려가면서 여유 있게 관광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관광자원 보호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문화제에 가장 치명적인 해를 미치는 것이 자동차의 배기가스라고 한다. 신라시대 때에 경주에서는 그을음이 생겨서 경주가 더럽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참숯으로 밥을 지었다고 한다. 이러한 조상을 슬가를 본받아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에 자전거 도로 및 자전거 주차장 시설이 잘되어 있다면, 이것은 또한 국민의 신체 및 정신 건강을 전체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다. 그러나 지금

까지 이러한 자전거의 이용은 승용차 문화에 밀려 오히려 사양길을 걷고 있었다. 전철역에 주차장은 있어도 좁은 면적을 활용할 수 있는 자전거 주차장은 없었다. 승용차 한대의 주차 공간에 자전거 20대를 정차시킬 수 있다고 한다. 사람들이 가까운 전철역까지 자전거를 타고 와서 전철을 이용한다면 얼마나 많은 주차 문제, 교통 문제, 공해 문제, 에너지 문제가 완화되겠는가?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로 문화 체육부와 내무부, 경주시의 후원 하에 청소년개발원에서는 8월 7일, 8일, 9일, 2박 3일간 경주 자전거 문화기행을 개최하게 되었다.

♣ 경주 가족 자전거 문화기행



개최취지 건전한 가족 수련거리로 - 건강은 물론 환경보전, 에너지 절약, 자립, 근면 정신을 향상시킬 수 있는 - 자전거 문화 기행을 제공하고자 함. 기존의 가족캠프 형식에서 벗어나

가족 전체가 꾸미고 자녀들이 만들어 가는 캠프로 운영,
매 과정마다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역할분담, 참여자 모두가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있도록 함. 행복한 가정 만들기 운동의 일환, 수련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배려함

- 일 시** 1995년 8월 7일 ~ 9일 (2박 3일)
장 소 경주일원, 경주 하일라 콘도, 동해안
대 상 1차 / 3~4인 가족 12팀(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등 2인 가족도 참여 가능, 어린 아이는 뒤에 싣고 다닐 수 있음)
인 원 45명 내외
주 관 한국청소년개발원 활동연구팀
후 원 문화체육부, 내무부, 경주시
참가신청 한국청소년개발원 활동연구실의 정희옥 박사
 (☎ 578-7924) 선착순 45명에 한함 (3-4가족 우선권이 있음)
참 가 비 부모 4만원 5천원, 자녀 3만원

자전거 이동코스 (각 코스별 문화를 접하면서 프로그램 실시)

8/7(월) 하일라콘도→ 분황사 → 황룡사터 → 유적기념관 → 헌덕왕능
→ 황성공원 → 하일라콘도

8/8(화) 하일라콘도→ 통일전 → 안압지 → 반월성 → 첨성대 → 계림
→ 박물관 → 천마총 → 오릉 → 포석정 → 남산 삼릉→ 하일라콘도

8/9(수) 하일라콘도 → 불국사 → 석굴암 → 무열왕릉(버스로 이동)
→ 동해 대왕 해수욕장(한시간 휴식)→서울(밤 9시 도착)

다음은 ‘경주자전거문화기행’을 준비하고 운영한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선임연구원으로 계신 정희옥 박사의 글이다.

1절 경주 자전거문화기행 일지

1995년 7월 24일(월) 흐림: 경주 가족 자전거문화기행 사전답사

아침 9시에 성내역에서 이재택 선생님을 만나 가족자전거문화기행 사전답사를 위해 내 차로 경주를 향해 출발하였다. 가는 도중에 약간의 비가 오는 곳도 있었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였다. 경주에 도착한 시간이 2시였다. 우선 보문 단지 내에 있는 하일라 콘도를 찾았다. 잠시 둘러보고, 담당자는 나중에 만나기로 결정하고, 경주 시청을 물어 물어 찾았다. 경주는 무척 더웠다. 우선 건설과의 도로계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얼마 전까지는 자전거 도로가 도로계의 업무였지만, 지금은 토목계의 업무가 되었다고 한다. 건설과장과의 이야기를 나누고, 내일 경주 시장님을 뵙기로 하고, 또 자전거 문화기행을 위한 코스를 답사하는 일을 최병인 도로계장으로 부터 안내 받기로 하고 경주시청을 나왔다.

하일라 콘도로 가서 총무부의 김경돈 대리를 만났다. 아주 친절하게 대해 주었고, 그날 숙소를 하일라 콘도에서 VIP 대우로 반값에 해주겠다고 해서 하일라 콘도에서 묵기로 하였다. 콘도가 무척 쾌적하고 경관이 좋았다. 시간은 저녁 6시가 되어 있었다. 경주시 직원들과 저녁을 같이하려고 전화하였지만 이미 다 퇴근하거나 자리에 없다고 하여 포기하고, 불국사 쪽의 답사를 위해 방을 나섰다.

보문 단지 바로 밖에 있는 부흥 상회에 들어서서 불국사 가는 길과 자전거 대여에 관하여 물었다. 상회 앞에 대여를 위한 자전거 몇 대가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자기들이 빌려 줄 수 있다고 대답한다. 자전거 가격을 어느 정도 흥정해 놓고서, 연락처를 적고서 불국사를 향하여 출발하였다. 불국사 가는 길이 자전거 타기에는 그다지 좋지 않고 가파른 언덕길이어서 마지막 날 코스로 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불국사를 거쳐서 토함산으로 올라가는 꼬불꼬불한 길을 30분 가량 차로 올라가 석굴암에 도착하였다. 어느덧 땅거미가 지고 있었다. 저 멀리 망망하게 보이는 것이 바다라고 한다. 북

송아와 자두를 파는 할머니가 있어서 각각 1,000원어치씩 달라고 하니까, 이제 자기도 산을 내려가려고 하니까 차를 태워 달라고 하신다. 그렇게 하시라고 하니깐 남은 복숭아와 자두를 모두 주신다. 토함산을 내려오는 길은 벌써 어두워져 있어서 헤드라이트를 켜야 되었다. 하도 길이 꼬불꼬불하고, 크랙션을 누르라는 표시가 많이 되어 있어서 크랙션을 누르는 회수에 있어서 기록을 세운 날이다. 저녁은 불국사에서 보문 단지로 가는 길목에 있는 민속 공예 마을에서 산채 비빔밥을 먹었다. 시간은 9시가 다 되어 가고 있었다.

저녁에 사둔 맥주를 마시면서 내일 일정에 대해서 말을 나누고 취침에 들어갔다.

7/25(화) 맑고 더움

아침 6시 30분에 자전거기행 코스를 답사하기 위해서 하일라 콘도를 나섰다. 우선 부흥상회에서 불국사 반대 도로를 타고 올라가서 자전거 도로가 있는 곳까지 갔다. 자전거 도로를 따라 쪽 올라가 분황사에 도착하였다. 분황사 앞에 있는 황룡사 터를 둘러보고, 근처에 있는 헌덕왕릉을 자동차로 갔다. 헌덕왕릉 표시를 보고 들어갔는데도 자동차로는 들어가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서 헌덕왕릉은 돌리지 않고 나왔다. 자전거 도로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첫날 코스로 분황사와 황룡사 터, 그리고 헌덕왕릉,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황성공원을 들리기로 잠정적으로 정했다.

하일라 콘도로 돌아와 일층 레스토랑에서 아침을 먹고, 경주 시청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경주 시장을 만나 뵙고, 최병인 토목계장의 안내로 자전거 코스를 차로 돌았다. 최병인 토목계장의 말로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한 청소년 수련시설 업무를 전문인 한 사람이 전담하여 밀고 나가면 일의 수행에 있어서 일관성도 생기고, 잘될 것 같다. 그런데 전담하는 사람도 자꾸 바뀌고, 윗사람도 자꾸 바뀌기 때문에 혼선이 생긴다. 주말에는 차 체증 때문에 제대로 관광이 안된다. 자전거를 활용하면 주변 경관도 천천히 구경할 수 있어서 좋고, 교통 체증 때문에 짜증도 안 나고 좋을 것 같다. 외국 관광객들 일가족이 자전거를 타고서 관광하는 것을 가끔 볼 수 있다.”

사전 답사를 하는 도중에 오름 앞에서 Good Morning Pops의 협찬으로 35박 36일 코스로 자전거 전국 순례를 하는 학생들을 만났다. 고등학생들이 많고, 광주 대학교 법학과 2학년으로 있는 정승환군이 리더였다. 일행은 한 10명 정도 되었다. 30명 정도가 제주도를 포함한 자전거 국토순례를 하고 있다고 하니 3개의 조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 모양이다. 남학생이 약간 더 많았다. 한 여학생 이야기를 들어보니 힘들지만 참 좋다고 한다. 학생들과 작별을 하고, 나루터 식당에 들어서 메기 조림으로 점심을 먹었다.

경주 시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자전거 판매와 대여를 하는 중앙운업사의 황진식씨를 만나서 자전거 대여를 계약하였다. 황진식씨는 사이클 선수도 했었고, 자전거 사업을 자신의 천직으로 알고 사명감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또 그렇게 느껴졌다.

경주 시청에 들어서, 건설과장의 소개로 용마관광 사장을 만나서 관광버스를 계약하였다. 이로서 경주자전거문화기행의 기본적인 틀은 마련이 되었다.

경주 시청을 나선 시간이 오후 4시였다. 날씨는 찌는 듯이 더웠다. 동해안을 따라가는 7번 국도를 타고 올라가서 영동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기로 하였다. 올라가는 길의 경치가 참 좋았다. 특히 화진 해수욕장에 잠시 들어서 끝없는 수평선을 바라보고, 차가운 바닷물에 발을 담그면서 해변을 거닐고 있자니, 이번 자전거문화기행에 동해안을 놓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택 선생님께 말씀 드렸다. 해수욕장 뿐 아니라 7번 국도를 따라 서울로 가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였지만, 서울에 도착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자전거문화기행’에서 7번국도를 따라 서울로 올라오려는 계획은 포기했다.

날이 밝은 동안은 7번 국도로 올라가는 길이 참 좋았다. 관동 8경의 하나인 월송정도 돌리고, 바다도 시시 때때로 보이고, 넓은 평야들과 산들이 그야말로 환상적이었다. 그러나 곧 날이 어두워지니 바다 안개가 끼어서 시야를 막고, 지형적인 영향으로 비도 이따금 와서 운전하기가 힘들었다. 바다 쪽은 그저 캄캄하고 오징어 배나 고깃배 불빛만 보였다. 거의 10시가 다 되어 속초에 도착하여 설령탕으로 저녁을 먹었다. 그리고 강릉을 통하여 서울까지 짙은 안개 속을 뚫고 운전을 하여 집에 도착한 시간이 새벽 4시 30분이었다. 그러

나 쉬지도 못하고, 부모 지도자 워크숍 준비를 위해서 개발원으로 9시에 출근하였다.

1995년 8월 7일(월) 맑고 더움

문화 기행 첫날인 오늘의 일정은 오전 9시에 버스로 개발원을 출발하여 2시에 경주 보문 단지 내의 하일라 콘도에 도착하여 오후 3시에 자전거를 타고 하일라 콘도를 출발하여 황성공원, 분황사, 황룡사 터, 현덕왕릉을 거쳐서 저녁 6시까지 다시 하일라 콘도로 돌아오는 것이었다.

개발원 출발은 개발원 위치를 잘 몰라서 조금 늦게 오는 가족이 있어서 20분 늦게 출발하게 되었다. 차안은 냉방이 잘되어 있어서 밖의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무척 시원했다. 출발인원은 한승희 실장님과 나(정회욱)를 포함하여 43명이었고, 가족 수는 11가족이었다. 광주에서 올라오는 배순애 가족이 하일라 콘도에서 합류하기로 되어 있어서 이번 문화기행 참여 인원수는 모두 46명이 되었다. 버스 안에서 자전거 탈 때의 주의 사항을 전달하고, 우리의 일정을 환기시켰고, 나머지 시간은 자유 시간으로 남겼다. 아침 일찍 일어나 문화기행 준비를 하느라고 피곤했던 탓인지 많은 가족들이 잠을 자고 있었다. 가는 도중 휴게소에서 2번 쉬었다. 첫 번째 휴게소에서 사람들이 정시에 모이지 않아서 출발이 약간 지연되었다. 두 번째 휴게소에서 김기회(70) 할아버지가 시간을 엄수해야 되지 않느냐고 조언을 하신다. 버스 안에서 이재택 선생님이 가족들에게 김기회 할아버지의 말씀과 할아버지를 이번 행사의 고문으로 삼으면 어떻겠느냐고 여러 가족들의 의견을 물어, 김기회 할아버지가 이번 행사의 고문이 되셨다. 고문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는 할아버지의 질문에 그냥 돈만 많이 쓰면 되는 것이라는 대답이 나와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이 말을 마음 속에 담아 두셨는지, 첫날 자전거 문화기행이 끝난 후 각 콘도로 맥주 3병씩 김기회 고문의 이름으로 전달이 되었다.

오후 2시에 하일라 콘도에 도착하였다. 마침 자전거를 실은 트럭 2대가 앞서 도착하여 콘도 앞에 자전거를 내렸다. 버스에서 짐을 내리는 데 세 자루 실은 쌀 중에 두 자루가 없다. 쌀을 내 차에서 내리는 도중에 차를 가지고 오

신 분들의 주차 문제를 일동 제약 관리실에 연락을 하여 해결하는 동안 깜박 잊어버리고 차에 그대로 놓고 온 것이다. 다행히도 하일라 콘도 내의 슈퍼에 쌀이 있어서 별 문제는 없었다. 짐을 대강 콘도에 집어넣고 밖으로 나와서 ‘청소년개발원 경주가족 자전거 문화기행’이라고 쓰여진 깃발을 자전거에 달고, 자기에게 알 맞는 자전거를 골랐다. 그런데 뒤에 바퀴가 두개 더 달린 네발 자전거를 많이 주문했었는데, 그런 자전거가 없어서 가져오지를 못했다고 한다. 국민학교 1학년 이하는 타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아이들은 눈물을 글썽였다. 주관을 하는 나로서는 많이 미안하였다.

자전거들이 국민학생들에게는 다소 높았고, 성인들에게는 다소 낮았다. 자기에게 맞는 자전거를 고르고, 한번 시운전을 해 보는 데 시간이 꽤 흘러갔다. 아무튼 대열을 수습하여 출발을 하였다. 우선 차나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서 대열 연습을 하여 보았다. 언덕의 경사가 약간 심한 곳에서 연습을 하였더니, 김기희 할아버지를 비롯하여 김진란 어머니 등 몇 명이 자기는 힘들 것 같다고 포기를 하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전거에 그다지 능숙하지 않았다. 이 가족들을 이끌고 어떻게 유적지를 돌 것인가가 난감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힘들 것 같다고 가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빠지게 하였다. 그래도 35명이 참여하게 되었다. 자전거를 타지 않는 사람들은 내일 봉고 차로 유적지를 돌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다.

오후 4시가 되어서야 황성공원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하일라 콘도에서 자전거 도로까지가 내리막길로 약간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내가 선두에 서고, 이재택 선생님이 후미를 맡았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자전거를 잘 타는 아버지들이 통제를 하였다. 자전거 도로로 들어서니 별 문제가 없었다. 분황사, 황룡사 터, 현덕왕릉, 황성 공원은 거의가 자전거 도로로 연결되어 있어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우측으로는 시냇물이 흐르고 있어 경관도 수려하였다. 황룡사 터와 분황사, 현덕왕릉이 가까이 모여 있는 곳의 중심지에 자전거 휴게소가 있었다. 등나무 그늘이 진 벤치도 여러 개 놓여 있었고, 물도 있었고, 2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는 먹을 것과 음료도 팔고 있었다. 이 곳에서 분황사와 황룡사 터, 그리고 현덕왕릉을 들리고 황성 공원으로 갈 것인가 아

니면 황성공원을 들리고 돌아오는 길에 분황사 인근의 문화유적지를 돌아 볼 것인가를 이재택 선생님과 상의를 하였다. 황성공원을 들리고 돌아오는 길에 분황사 일대를 돌아보자는 결론이 나왔다.

문제가 하나 생겼다. 환이, 연우, 그리고 재우가 내 뒤에서 선두 다툼을 하기 시작하였다. 주의를 주어도 잘 듣지 않고 계속 선두 다툼을 하였기 때문에 진행에 약간의 지장을 주었다.

자전거 도로에서 황성공원으로 들어가는 길에 다리를 하나 건너야 하는데 다리의 폭이 별로 넓지 않고, 차가 다니는 길이라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아무튼 무사히 다리를 건너고 황성공원에 들어가서 제일 가까운 휴식지에서 휴식을 취하였다. 사진도 찍고, 인원 점검도 하는 동안 황성공원에서 볼 만한 곳을 사전 답사하였다. 제일 높은 동산 위에 김유신 동상이 있었다. 김유신 동상이 있는 동산 밑에까지 자전거로 이동하여 자전거를 세워 놓고 계단을 올라갔다. 몇몇 사람은 너무 지쳐서 그냥 동산 밑에 남아 있었다.

황성공원을 나와서 분황사로 가는 도중에 사고가 하나 있었다. 아이 하나가 자전거 도로 턱에 발을 디디려고 하다가 자전거 도로 밖으로 넘어진 것이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소리가 들렸다. 분황사에 도착하여 분황사 앞에 자전거를 정렬해 놓고서 분황사 탐을 둘러보았다. 분황사에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찾은 것은 청량음료를 파는 자판기였다. 땀을 많이 흘려서 그런지 이러한 음료들이 그렇게 시원하고 맛이 있을 수가 없었다.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분황사의 유래와 분황사에 얽힌 이야기들을 해 주고 있었다.

다음으로 분황사 앞에 있는 황룡사 터를 둘러보았다. 경계선이 가물 가물 보이는 넓은 지역에 집터, 우물터, 탑신 등의 유적들이 남아 있었다. 유적들은 잔디에 덮여 있어서 사방이 시원하게 트인 넓은 초원 같아 보였다. 사람들은 초원을 걸어가듯이 오솔길을 걸어가면서 금당 터, 우물 자리, 황룡사 9층탑 자리 등을 둘러보고, 무엇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제단과 같은 흙 언덕에 올라가기도 하였다.

그렇게 둘러보고 있는 동안에 해는 벌써 지평선에 내려와 있었다. 사람들을 소집하고, 헌덕왕릉은 너무 늦어져 생략하기로 하고, 하일라 콘도를 향하여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였다. 자전거 도로로 들어서는 길목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자전거가 기우뚱 기울어지고, 등에 물을 잔뜩 메고 있던 관계로 중심을 못 잡고 자전거와 함께 넘어지고 말았다. 팔 굽이 까지고, 무엇보다도 곤란한 것은 자전거 기아가 떨어져 나가 버렸다. 할 수 없이 자전거를 끌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아까 오후에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한쪽에는 시냇물이 흐르고, 다른 한쪽으로는 기와집들이 눈에 들어온다. 집들에선 벌써 불이 켜지고 있었다. 저녁 그늘이 내리고 약간은 시원한 바람이 분다. 자전거를 끌고 다니는 것도 체법 운치가 있는 것 같아 내일부터는 조금이라도 위험 요소가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를 끌고 다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다.

많이 지친 몸으로 콘도에 도착하니 저녁 8시가 약간 넘어 있었다. 씻고, 저녁을 먹고 나니까 9시까지 중앙에 있는 콘도(1413호)에 모였으면 좋겠다는 전갈이 왔다. 부모들은 1413호에 모여 여러가지 느낀 점과 오늘 문화 기행에서의 문제점들을 이야기하였다. 맥주가 넉넉하게 나왔고, 수박과 약간의 안주가 나왔다. 땀을 많이 흘리고 자전거를 탄 까닭에 맥주가 굉장히 맛이 있었다. 여자 분들도 약간의 맥주를 마셨다. 자녀들은 1412호에 저희들끼리 따로 모이게 하였다. 첫 번째 문제로 일정이 너무 빡빡하고 과도했다는 말이 나왔다. 그래서 내일의 일정은 조금 느슨하게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둘째로 아이들의 안전 관리에 좀더 철저하게 대비하여야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위험이 느껴지는 곳에서는 걸어서 가고, 건널목에서는 부모들이 교통 정리를 철저하게 하기로 하였다. 이밖에 오늘 하루 동안 느낀 일들과 사건들이 이야기되었다. 내일 아침 기상 시간에 있어서 여러 의견이 나왔다. 아침 6시에 기상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저녁 시간에 하기 위해서 준비한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실시 여부는 콘도 별로 자음에 맡겼다. 자전거 문화기행이 늦게 끝나고, 전체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실시되지 않았다. 다음 날(8/8)도 다음 날의 일정을 결정하는 문제와 기타 다른 문제를 논의하는 전체 회의 때문에 프로그램은 실시되지 못하였다. 이재택 선생님은 평가회 때 프로그램을 실시해 보는 것이 어떻

나는 의견을 내놓았다. 관광버스 사장 집에 전화를 걸어서 봉고차를 제 시간에 보내달라는 말을, 사장이 부재하기 때문에 사장 부인에게 전하였다.

8/8(화) 맑고 더움

아침에 6시에 기상을 하여 아침과 김밥을 준비하였다. 본래 계획에는 아버지 요리자랑 등의 시간을 계획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어머니들이 수고를 하신 것 같았다. 아침 일찍 봉고차 전으로 관광버스 사장 집에 전화를 했더니, 사장은 그런 일은 모른다고 말한다. 무슨 말이나고 하였더니, 봉고차는 잘 모르니까 관광 버스를싼 가격(15만원)에 하루 대여해 주겠다고 한다. 그래서 그렇게하기로 하였다. 음료수와 점심을 관광 버스에 싣고, 12시에 경주 박물관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자전거 대열은 9시에 경주 박물관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버스는 이명순 어머니가 인원 점검과 코스를 지정하기로 하였다.

막 자전거 도로로 들어서려고 하는데 봉고차가 다가와서 어떻게 된 일이라고 묻는다. 사연인즉, 관광버스 부사장이 봉고차를 연결시켜 준 것이고 사장은 그 일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었다. 그래서 지금 자전거를 타야 하니까 관광버스 회사에 연락을 해 보라고 하고서 일행을 따라 갔다.

오늘은 진행이 아주 원활하였다. 교통 통제와 아이들 통제가 아주 잘 이루어져서 별로 위험성이 느껴지지 않았다. 환이와 연우, 그리고 재우도 출발하기 전에 구창모 아버지로부터 엄격한 훈계를 듣고, 가위 바위 보로 순서를 정한 다음에 절대 순서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받았다.

분황사까지의 자전거 도로도 좋았지만, 분황사에서 경주박물관까지 가는 길을 따라 쪽 심어져 있는 코스모스가 참 아름다웠다. 날씨도 쾌청하고 차도 그다지 없었다. 건널목에서의 통제 및 교통정리도 잘 이루어졌다. 10시 30분에 경주 박물관에 도착하여, 자전거를 일렬로 세워 놓고서 안압지, 반월성, 석빙고, 계림, 첨성대 등을 도보로 돌아보았다. 날씨가 굉장히 더웠지만 별 탈없이 다 잘 따라왔다. 관광버스 팀도 같이 합류하여 돌아다.

12시 10분에 경주 박물관에 도착하니 포항 MBC 촬영 팀이 와 있었다. 같이 점심을 먹고, 관광 버스 팀과 헤어져 한적한 시골 길을 가면서 TV촬영을 하였다. 다리를 건너는 것도 찍고, 김유신 장군이 태어났다는 마을의 99칸 짜리 최부자 집에 들러서 옛날 양반 집이 어떠했는지도 보고, 그 안에서 사진 촬영 및 TV촬영도 하였다. 고분 군이 있는 곳을 지나, 천마총에 들렀다. 천마총은 수많은 고분들 가운데 하나로, 고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고분의 구조도 알 수 있고, 부장품들이 어떻게 묻혀 있었나도 알 수 있었으며, 발굴된 문화재들이 고분 안에 전시되어 있었다. 무엇보다도 고분 안이 시원해서 밖으로 나가기 싫었다. 천마총 바로 밖에서 자전거 문화기행 참가 가족들 인터뷰가 있었다. 인터뷰가 끝나고 다시 고분 군과 첨성대를 지나고, 황룡사 터, 분황사를 지나서 자전거로 나아갔다. 황룡사 터 등의 몇 군데 경치 좋은 곳에서 TV촬영을 하였다. 분황사 거의 다 와서 김진란 어머니가 탈진을 하셔서 택시로 돌아가게 하고, 자전거는 MBC촬영 팀의 봉고에 실었다. 그 곳에서 잠시 쉬면서 인터뷰도 하고, 아이들과 어울려 노는 것도 촬영하였다. 넓은 유적지에 코스모스들이 피어 있는 모습이 아름답고, 그 옆을 흐르는 물도 펑 깨끗해 보였다.

최남신 어머니 말씀이 아이들이 참 대견하게 느껴진다고 한다. 우선 그 힘든 일을 다 해내고 있고, 다른 아이들을 돕는 일을 잘하고 있다고 한다. 집에 있을 때에는 어린애로만 여겨졌고, 또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보여져 마음에 들지 않았었는데 여기 와서 힘든 일을 같이하면서도 다른 아이들을 생각하는 면모를 보여서 호뭇하다고 하였다.

사람들 의견에 따라 자전거 도로가 끝나는 곳에서 경주 월드가 있는 쪽으로 돌아서 하일라 콘도로 들어가는 것을 그만두고, 하일라 콘도로 직접 들어갔다. 하일라 콘도에 도착한 시간이 4시 50분 정도 되었다. 아이들은 6시까지 풀장에서 시간을 가졌다. 얼굴과 목에 소금이 하얗게 보일 만큼 땀을 많이 흘린 하루였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9시쯤 청소년개발원에서 마련하는 맥주 회식이 있었다. 맥주와 수박과 다른 안주들이 마련되었다. 아이들을 위한 과자들도 마련

되었다. 회식 마련은 아이들에게 돈을 나누어주고, 각자가 원하는 것을 사라고 했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자기가 가진 돈의 양만큼 먹을 것을 샀다.

회식에서의 이야기는 자연 오늘 하루 진행 상황과 내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이 모아졌다. 의견이 많이 나왔다. 약간의 의견 충돌도 있었다. 석굴암까지 아이들도 모두 함께 올라가야 된다는 의견, 아사달과 아사녀의 전설이 있는 영지까지 자전거로 가자는 의견 등. 하지만 동해안을 들리려면 석굴암과 영지는 포기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이 채택되었다. 출발은 아침 8시 정각에 하기로 하였다.

또다른 의견은 운영진이 결정을 해서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알리는 방법이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 의견에 대해서는 가정에서의 수련활동의 제 1 원칙이 가족들의 의견 수렴이기 때문에 가족 회의 등을 통하여 가족들의 의견 수렴 혹은 가족들의 필요 수렴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제 2원칙이 자율성 보장이라는 것도 알려 주었다. 즉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율적으로 하게 하는 것이 가정에서의 수련활동의 기본이다.

회의 시간이 10시가 넘어가자, 아이들과 같이하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항의가 나와서, 거의 모든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진에서 의사결정을 한 후 공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하고 회의를 끝냈다.

오늘의 자전거문화기행은 아주 잘 진행되었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었다. 한가지 불만은 경주 박물관에서 관광버스에 탄 사람들에게 박물관 관람시간을 20분 정도밖에 주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여유 있게 관람을 하고 늦게 관광버스에 도착하였지만, 김기회 할아버지만 정각에 도착하셔서 화가 많이 나셨다는 것이다. 하지만 불국사와 석굴암을 관람하시고 난 후에 기분이 다시 좋아지신 것 같다고 한다.

8/9(수) 맑은 후 오후 3시에 소나기

오늘의 일정은 불국사까지 가서 자전거를 반납하고, 불국사 구경을 한 시간 하고 동해 무열왕릉이 있는 해수욕장으로 가서, 오후 2시까지 시간을 보내고 2시에 서울을 향해 출발하는 것이다.

집을 다 챙기어 아주 콘도를 나서는 것이기 때문에 일이 많았다. 그래도 8시까지는 모두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내가 콘도에서 돈을 지불하고 있는 동안에 이재택 선생님이 자전거를 포함한 다른 점검을 하였다. 출발하기에 앞서 관광버스비 문제로 약간의 잡음이 있었다. 동해안을 둘러서 가는 것은 당초의 계약에 없기 때문에 돈을 더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문제는 나중에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 아침 8시 30분에 불국사로 출발하였다. 불국사까지 가려면 가파른 산을 넘어야만 하였다. 국민학교 2학년밖에는 안된 아이들이 무거운 자전거를 끌고서 용하게도 낙오하지 않고서 잘도 따라 온다. 산의 9부 능선쯤 되는 곳에서 휴식을 가졌다. 한 어머니는 자기의 아들이 너무 애처로워서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도 대열을 자기 맘대로 멈출 수가 없어서 아무말도 못했는데 그 험한 길을 끝까지 따라 온 것에 놀랐다고 한다.

환이(국민학교3학년)와 연우(국민학교 4학년)는 참 많이 다투었다. 제일 많이 다투는 것이 서로 앞에 서려고 하는 선두 다툼이었다. 서로 자전거를 부딪쳐서 한 명이 넘어지고 다툼이 일어날 정도로 경쟁심을 보였다. 그렇게 줄곧 싸우더니 경주 불국사로 가면서 험한 산길을 올라갈 때 연우는 환이에게 물을 가져다주었으며, 서로 헤어질 때는 얼싸안고 헤어짐을 아쉬워하였다.

의외로 불국사까지는 길이 멀었다. 당초 예상했던 1시간의 2배인 2시간이 걸려서, 10시 30분이 되어서야 불국사에 도착하였다. 11시 30분까지 관광버스로 돌아오기로 하고 자유 관람시간을 가졌다. 11시 30분이 조금 지나서 불국사를 출발하여 꼬불꼬불 산길을 지나 12시 20분에 무열왕릉이 있는 대왕 해수욕장에 도착하였다. 저만큼 무열왕릉이 보이고, 그 앞은 해수욕장이었다. 점심 식사를 하고, 2시까지는 관광버스로 돌아오기로 약속을 하고, 해변에서 자유시간을 가졌다.

동해에서

우리 속엔 늘 바다가 있었다.

바다는 우리의 먼 고향이다.

오랜만에 보는 바다지만
죽마고우처럼 반갑다.
바닷가를 거닐며 파도와 장난을 친다.
파도는 손을 내밀어 내 발과 종아리를
간질이다가 반바지 위로 물을 튀기고
웃으며 저만큼 도망갔다가
웃으며 다시 다가온다.

모래와 자갈이 섞여 있는
백사장 위로 흐르는
시냇물이 아주 따뜻하다.
바닷물은 발을 오래 담그지 못하게 차갑다.
시내와 바닷물이 만나는 곳에서
파도가 유난히 하얗다.

맨발로 멀리 보이는 어촌까지 걸어간다.
파도는 오랜 세월 밀려오고 밀려가면서
여러 형태의 조약돌을 만들고,
잔모래 굵은 모래를 만들고,
깨진 유리까지도 매끈한 조약돌로 만들어 놓았다.

다시 멀리 보이는 바위까지 걸어간다.
하얀 거품이 이는 바다 위로 갈매기 나르고
파도는 오랜 세월 바위 위로 넘쳐흘러
샘물처럼 바위에 길을 만들었다.

갯바위에 앉아 파도소리를 듣는다.
파도는 어서 와서 장난하자고 조르지만

친구야, 나는 너처럼
한없이 자유롭지도
장난스럽지도 않단다.
하지만 곧 바다처럼 흥겹고
자유롭게 느껴졌다.

멀리 수평선은 너무도 차분히 앉아 있다.
그 위의 파란 하늘과 하얀 뭉게 구름도
눈 안에 들어온다.
사는 것이 전쟁이라고 해도
이렇게 평화로울 때도 있나보다.

바다가, 파도가, 백사장이,
수평선이, 갈매기가 좋아서
떠나기가 싫었다.

2시가 약간 지나서 해수욕장을 출발하였다. 관광버스 안에는 노래방이 마련
되어서, 각 콘도별로(조별로) 노래 자람이 진행되었다. 3시가 다 되어서 경주
에 막 들어서려는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였다. 이 비는 정말 반가운 비였
다. 경주 인근은 오랜 가뭄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쌓여
있던 거리의 흙 먼지와 하얀 소금기가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모양이 눈에 들
어온다. 배순애 어머니 가족이 팽주로 내려가기 위해서 경주 고속 터미널에서
내려야 했다. 환이와 연우는 화해의 악수와 포옹을 하고 헤어졌다.

개발원에는 정각 9시에 도착하였다. 일 차로 양제 역에서 가족들이 내리고,
나머지 가족들은 개발원에서 내렸다. 서로 작별인사를 하고 헤어졌지만, 시종
유쾌한 분위기가 지속되었다.

많은 부모들이 이번 기행을 통하여 자기 아이들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한다. 첫째가 집에서는 자기 자신밖에는 모르고, 이기적이어서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이번 기행을 통해서 보여준 행동에서는 다른 아이들에 대해서 도와주고 배려해주는 어른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마음이 뿌듯했다고 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서로 힘든 일을 같이하고, 서로 협동해야 하는 환경을 조성해 주면 우리 아이들은 얼마든지 서로 돕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둘째로 아주 어린애로만 보아서 힘든 일은 못하리라고 생각해 왔는데 이번 힘든 자전거문화기행을 끝까지 해내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고 한다. 국민학교 2학년인 아이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불국사 가는 험한 언덕길을 끝까지 건디어 냈다. 부모들은 자신도 낙오할 것 같은 험한 언덕을 그 더운 날씨에 끝까지 올라가는 아이들을 보고, 정말 이제 다 키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아이들이 오히려 회복력도 더 빠르고, 인내심도 아주 강하였다. 특히 국민학교 4-5학년 아이들은 쉬는 시간에도 자전거를 탔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전거를 풀어 달라고 요구를 할 정도였다.

아이들도 부모들의 다른 면모를 보았다. 아버지가 설거지하는 모습을 처음 보았다는 아이도 있었고, 평소 아버지에게 불만이 많았었는데 다른 아버지와 비교해 보아서 참 좋은 아버지였구나 하고 깨달은 아이들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부모와 함께 힘들게 기행을 해 봄으로써 부모를 평소보다 더 가깝게 느꼈다고 한다.

가족 안에서 그리고 다른 가족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아이들이 많이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힘든 활동을 같이해 봄으로써 더욱 빨리, 깊이, 그리고 쉽게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어른들도 같이 식사를 준비하고, 김밥을 싸고, 같은 콘도에서 지내는 가운데 다른 가족들의 속마음과 사는 모습을 알게 되어서 자신의 세계가 넓어지게 되었다. 무더위로 많이 힘들었지만, 같이 땀을 흘리고 힘든 자전거 기행을 같이한 덕분에 비록 같이 지낸 시간은 짧았지만, 참여하신 가족 모두가 오랫동안 가까이 살아왔던 이웃처럼 친숙해졌다.

특히 아이들은 단체 행동을 하고, 힘든 일도 하고, 자신의 한계도 극복해

봄으로써 세상이 자기를 위해 있지 않다는 귀중한 교훈을 얻었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귀한 자식이라는 의식도 갖게 되었다. 그래서 남을 배려하고, 도와줄 수 있는 어른스러운 마음이 생긴 것이 아닐까?

이번 기행은 특히 아주 어린 아이들과 노인 분들이 함께 했다는 데에서 더욱 의미가 깊었다. 온 가족이 다 함께 자전거문화기행을 함으로써 가족들 간의 화합이 더욱 돈독하게 되었다. 윤필근 할머니(66세)는 가족들이 함께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보니 그렇게 흐뭇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다.

경주자전거문화기행을 마친지도 일주일이 지났다. 끝나고 생각하니 미흡한 점도 많았다. 이번 가족자전거문화기행에서는 문화 측면이 약간 소홀하게 다루어졌다는 생각이 든다. 경주의 중요한 문화유적을 충분히 음미하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래도 보람있고 만족스러운 가족자전거문화기행이었다.

4장 경주가족자전거문화기행 평가 모임

개최취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하여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우리 가족의 특징들, 우리 가정에 도움이 되었던 점, 앞으로 우리가족들의 수련거리에서 좀더 보충하고 싶은 점 등에 관하여 의견을 주고받는다.

일 시/ 1995년 8월 19일(토) 15:00 - 17:30

장 소/ 한국청소년개발원 세미나실

인 원/ 경주가족자전거문화기행 참여자, 문화체육부 소기옥 사무관 외.



다음은 '경주가족자전거문화기행'의 운영에 참가하신 이재택 선생님이 평가 모임 자료집에 발표하신 글이다.

1절 우리 가족의 경주 자전거 문화기행

1. 여름방학에 우리는?

방학이 가까워지면서 식구들의 화제는 ‘올 여름방학에는 무엇을 할까?’ 이다. 동호가 학교에서 보충 수업을 한다고 해서 당초 계획했던 ‘아버지와 함께 하는 직업 탐색’은 어려울 것 같다. 꽤나 오래 전부터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었었고 몇 군데 일자리도 마련해 두었는데 보충 수업 때문에 못하게 된 것이다. 아버지인 나의 마음 같아서는 선생님과 상의해서라도 나의 생각대로 동호에게 직업 탐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보충 수업에 빠질 수 없다는 동호의 의견을 존중해 주기로 했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의 올 여름방학에는 무엇을 할까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것이다.

내가 매년 자녀와 함께 활동 목표를 정하여 이를 실천에 옮기려 하는 것은 부모로서 ‘자녀가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평소 마음속으로 생각하던 바를 실천에 옮길 수 있음은 물론, 자녀와의 이해의 폭도 넓힐 수 있고 친밀감을 만드는 기회도 되기 때문이다.

우리 부자는 매일 아침 손을 잡고 걷던 추억이 있다. 집에서 유치원까지 걷는 일은 1년 동안 눈이오나 비가 오나 거의 매일 계속되었는데 20분 정도인 이 시간에 우리는 다양한 소재로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한가지 예를 들자면 그 나이에 제일 시급했던 교통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때로는 위험 한곳에서 건널목 건너는 방법을 실제 상황을 예로 들어가면서 설명하기도 하였다. 동호도 나도 그 시간이 좋았다. 이때 동호와 더욱 친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동호가 국민학교 때는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에 가능하면 많이

참가했다. 가족농원만들기, 가족 놀이마당, 가족 여행, 가족 음악회, 가족 노래 자랑 등의 프로그램에 참가했고 자녀들이 꾸미는 가족 행사를 마련해 보기도 했다. 아버지와 같이하는 것을 좋아하던 동호가 국민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나와 같이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 같았다. 어릴 때는 나의 의도대로 되었으나 이제는 나의 입장만 강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동호 입장에서라도 어릴 때보다 의논할 일도 더 많을 것이고 고민도 바람도 갈등도 더 많을 텐데 ... 이를 건전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은 없을까? 우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지! 그러려면 우리가 같이 좋아하는 무엇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다. 그 대안이 바로 '전국 자전거 일주'였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힘든 점도 많았지만 좋은 관계 유지는 물론 여러가지 얻은 점이 많다. 동호는 편식하는 습관이 개선된 것, 건강이 좋아진 것 외에 어려움을 참는 힘도 많이 커진 것 같다. 내가 바라던 자녀와의 많은 대화, 여러가지 체험, 자립의 기회를 만들어 준다는 것 등의 성과도 있었다. 이 과정이 우리 부자에게 좋은 추억이 되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 앞으로 우리 가족들이 하고자 하는 일

1) 아버지와 함께 하는 직업 탐색

2) 가족 수련회

3) 다른 가정 생활 경험하기

2. 경주에 가서 자전거를 ...!!! 언제? 누구와?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청소년수련거리 현장운영모형개발연구’에 객원연구원으로 참여를 하면서 활동 연구팀과 ‘경주 가족 자전거 문화 기행’을 마련하게 되었다. 평소 가족과 함께 자전거로 문화 유적지를 돌아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던 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동호에게 ‘올해에는 경주에 가서 자전거를 타 보자’는 제안을 했다. 즉각 동호의 반응이 왔다. 쌍수 들어 환영, 아내도 물론 환영이다. 이렇게 식구들의 합의가 쉽게 이루어진 것은 우리 식구 모두 자전거를 좋아한다는 점 외에 자전거를 탄 경험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라. 참가 결정을 한 후 우리 집의 대화는 자전거 일색이다. 아내와 동호는 서로 자전거를 잘 탄다고 한다. 또한 사람들을 만나면 경주로 자전거를 타러 간다고 자랑을 한다. 가족이 같이 참여하는 일이 생기면 가족 대화도 촉진된다. 나는 이런 분위기가 좋다.

☞ 우리 어디 가서 무엇을 할까?

‘경주 가족 자전거 문화 기행’을 준비하는 데는 여러 사람의 노고가 있었다. 참가 가족의 일정을 고려하여 날짜를 확정했고 숙소를 결정하는데도 유스호스텔, 방갈로, 민박, 캠프, 콘도를 세부 사항까지 비교하여 보기도 했다. 제일 우선적으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 숙소 문제 아닐까? 가족끼리의 활동은 평소에 눈여겨본다면 답사까지는 필요 없겠지만 여러 가족이 참여하는 이 활동을 위해 정회욱 박사님과 필자는 이틀간을 경주에서 보냈다. 경주 시청을 방문하여 자전거 도로 상황을 알아보았고 시청의 담당자와 함께 직접 답사를 하기도 했다. 숙소, 자전거 대여, 길 안내 문제, 차량 문제, 입장료 등을 확인하였으며 시장님을 방문하기도 했다. 현지를 답사하여 여러가지 점검을 하고 난뒤 우리는 세부적인 예산을 세울 수 있었다. 그리고 청소년개발원에서 준비할 사항들은 활동 연구팀이 맡아서 했다. 여행자 보험에도 가입을 하는 등 차근차근 일을 진행해 나갔다.

1) 이번 가족 활동의 목표 / 가족 자전거 ☆문화 기행

2) 언제부터, 언제까지, 며칠을...

3) 누구와

4) 어디로

5) 숙소, 교통

6) 예산 세우기

7) 가족 활동을 위한 준비 (자료 수집, 프로그램 마련, 세부 일정 작성 ...)

8) 기타 사항 (보험 가입등 ...)

우리와 한방을 쓰기로 한 가족들이 결정이 되었다. 춘천 남희네 가족 4식구, 해련이네 가족 4식구, 서화네 가족 4식구, 우리 가족 3식구 이렇게 15명이 한 조가 된 것이다. 동호는 아직 만나지 않은 가족들에 관해 궁금한 점이 많다... 나는 이렇게 몇 가족이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한다. 다른 가족과의 만남, 그리고 대화를 할 수 있음은 물론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용이하고 비용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경주에서의 시간을 알차게 보내기 위하여 준비 모임을 가질 것이다. 준비 모임에서는 세부 일정, 공동생활의 규칙,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고 식단도 짤 것이다. 또 주의 사항, 또한 각자가 준비할 내용들을 정할 것이다. 각자 할 일도 정할 것이며 문화재에 대한 정보 수집도 할 것이다. 모두가 함께 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가족별 시간을 갖기로 했다. 이 모임에서 우리가 공동으로 활동할 내용도 상

의할 것이다. 준비 모임이 기대된다.

☞ 경주에서 우리 가족이 해보고 싶은 가족 활동의 내용

3. 경주 가족 자전거 문화 기행을 위한 준비 모임

7월 29일 우리는 ‘가정 수련 활동을 위한 부모 지도자 워크숍’을 실시했다. 한승희 박사님께서 수련 활동 지도자로서 부모의 역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해 주셨고 정희옥 박사님이 가정에서의 수련 활동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하여 ...그리고 참여자들이 대화하는 순서로 진행이 되었는데 다들 열심히 참여를 하셨다.

우리 가족은 짐을 꾸리는 데서부터 역할 분담을 하기로 했다. 배낭은 3개 - 하나는 나의 것, 하나는 아내 것, 하나는 동호 것이다. 밑반찬을 준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아내의 짐과 나의 짐은 같이 넣었다. 역할 분담을 한다는 생각으로 동호의 짐은 동호가 챙기기로 했다. 우리는 다음의 것들을 준비하였다. 끈 없는 운동화, 수영복, 여분의 옷과 내의 상하의, 양말, 고글, 자전거 타기에 알맞은 복장, 모자, 토시, 수영 모자, 슬리퍼, 수건, 물안경, 모기약, 썬텐크림, 휴대용 베개, 우의, 비상 약품, 물통, 휴지, 수저, 경주에 대한 공부, 개방된 마음. 동호는 들떠서인지 준비에 대해선 소홀한 것 같다.

4. 첫째 날 - ☞ 자전거 전용 도로

☆ 분황사, 함릉사터

☞ 가족 대화, 우리 가족의 장점찾기

☞ 참여 가족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같이 연습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 나에겐 큰 부담이었다. 경주로 향하면서 나는 자전거 주행시 주의 사항을 이야기하고 협조를 구했다. 개인 행동을 하지말 것, 단정한 옷차림, 끈 없는 운동화, 자전거 전용 도로 이용, 차도로 주행할 경우 오른쪽으로 주행할 것, 자전거와 자전거 사이 일정 거리 유지, 언덕을 내려갈 때는 안전거리를 유지, 주행 중 한눈을 팔거나 잡담을 하지말 것, 앞지르기를 하지 말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좌측으로 통과, 주행 중 멈추지 말고 뒤따르는 사람의 주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것, 언덕이 너무 높아 힘이 드는 경우 안전을 확인한 후 멈출 것, 대열에서 이탈하지 말고 앞사람과 같은 방향으로 주행, 교차로 통과 방법 등을 알려주고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쓸것과 부모님들의 협조도 구했다. 참여자에게서 들떠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그런지 나의 말이 잘 전달되었다고 생각이 되질 않았다.

☞ 각자에게 맞는 자전거를 고르게 하고 연습 주행을 하였다. 길을 잘못 들어 연습이 길어 졌지만 이 연습을 한 것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답사를 왔

을 때는 환상적으로 펼쳐지던 나무 터널이 나의 긴장을 풀어 주진 못했다. 첫날의 주행(약 15km 남짓)은 여러가지로 미흡했다. 답사도 했고 경주 지도를 보면서 실수하지 않으려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내를 못한 것이 (그 길이 그 길 같아서) 마음에 걸렸다.

☆ 참가 가족들이 황룡사 터를 돌아보는 시간 나는 자전거를 정리하고 틈을 내어 분황사 석탑을 돌아보았다. 국보 제 30호 (경상북도 경주시 구황동), 돌을 흙으로 구워 만든 전돌처럼 깎아 만들어 쌓은 석탑으로 전도를 쌓은 탑을 모방하여 모전 석탑이라고 부른다. 탑이 세워진 것은 분황사 창건과 같은 신라 선덕여왕 3년(634)으로 보고 있으며 분황사 안에 있는 분황사 대종에는 천수 관음가가 새겨져 있다. 무릎을 고추고 두 손을 바닥 모아 비움을 두나이다 즘은 손 즘은 눈을 하나를 놓아 하나를 더움기 둘 없는 내라 하나도 그윽히 고쳐질 것이다. 경덕왕시 희명이 설명한 아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광명을 찾게 하였단다. 세마리의 호국용이 살았다는 신라 시대의 우물 (신라유물) 삼용변어정(38대 원성왕)에서 물을 마시다. 외부팔각(팔정도 표시) 내부 원형은 원불의 진리를 나타냈다고 한다.

☞ 저녁 후 열린 대화의 시간이 안전 주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료화 시켜준 것 같다. 우리가 작년 자전거만 끌고 출발한 며칠간의 시행착오와 흡사했다. 생각과 현장의 차이일까? 첫날 힘이 들어 내일은 못탈것 같다고 하는 분들이 계셨지만 걱정이 되질 않았다. 내일 아침 자전거를 탈 때쯤이면 이 걱정은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경험으로.... 서울을 출발하면서 이번 가족 활동에 대하여 설명하고 경주까지 가는 다섯 시간 동안 가족 대화의 시간을 갖자고 말씀 드렸었는데 잘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 가족에게 마음을 써 주지 못하는 것은 양해 사항) 안전 문제, 쓰레기 처리, 숙식 등 모든 활동이 가족 단위로 잘 이루어 졌으면 한다.

☞ 우리 가족의 장점 찾기

아버지의 장점

어머니의 장점

자녀()의 장점

5. 둘째 날 - ☞ 경주 시내

☆ 첨성대, 안압지, 천마총

☞ 수영 시간, 우리방 분위기, 조별 활동

☞ 아침 산책을 했다. 육부 촌까지 산책을 하려다 위치를 잘 몰라 골프장으로 접어들었다. 오늘도 무더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아침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진다. 하일라 콘도에 부탁을 해 놓았지만 자전거에 신경이 쓰인다. 점검을 해보니 이상이 없다. 기분이 좋다. 오늘은 어제보다 잘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오늘은 안내자도 있을 것이다. 시내 주행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서에 선도 차량을 부탁할 생각이다. 이를 위해 공문을 보냈으니 협조를

해줄 것이다. 가능하면 아무 도움 없이 행사가 끝났으면 좋겠다. 안전을 위해 어제 갔던 자전거 전용 도로를 통과해 시내로 접어들기로 했다. 브레이크 점검을 하고 대열을 정비했다. 어제보다 출발이 순조로운 것 같다. 각자의 마음도 안정된 것 같고 부모님들이 적당한 개입을 하신다. 아이들은 여럿이 자전거를 타는 것(부모님들과 같이 타는 것)이 신나나 보다. 사실 자전거 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집 근처에서 자전거를 타도 신이 나는데오늘은 빨리 일정을 끝내고 수영할 시간을 줄 생각이다. 나는 확신한다. 이런 활동을 통하여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도 생길 것이고 서로간에 친밀감도 생기겠지! 아마 가족끼리는 평소 부족했던 대화도 할 수 있을 거야! 평소 부족했던 운동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자전거를 탐으로서 환경(문화재)보호, 교통 문제, 에너지 절약, 또 근점 절약하는 생활 습관도 만들어지겠지! 다소 어려운 코스를 주행하면서 어려움을 참을 줄 아는 능력도 커질 거야! 더 빨리 달릴 수는 있지만 보조를 맞추어야 하는 단체 주행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도 생기겠지! 어제보다는 여유가 생겨서 인지 아이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까지 했다. 갑자기 햇볕에 오랫동안 노출이 되어서 인지 팔이 별경게 돌아올랐다. 심한 경우 얼음찜질을 하도록 했고 썬텐크림을 바르도록 했다.

☆ 경주 시내에서는 걸어서도 문화유산 답사를 할 수 있지만 걷기에는 다소 거리가 먼 곳도 있다. 자전거는 무공해 교통 수단이며 근접성이 좋으니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도 많이 이용했으면 한다. 경주 시내를 돌아볼 것이 많다. 반월성, 안압지, 계림, 첨성대, 대릉원 천마총, 고분 공원, 국립 경주 박물관 ... 신라 문화의 윤곽을 잡는 의도에서 먼저 박물관을 갈 예정이었지만 박물관에는 안압지 출토 유물 전시관, 천마총 유물 전시관, 에밀레종 삼층석탑등 많은 국보가 보관 전시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하기로 한다.

☞ 우리 방의 분위기

경주 박물관에서 준비해 온 김밥을 같이 먹었다. 서로 친숙한 분위기가 느껴진다. 박물관에서의 삼삼오오 가족들의 모습이 보기 좋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대화가 안될 리 없겠지! 수영장에서의 자녀들의 모습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우리 방에서의 역할 분담은 잘 이루어진 편이다. 식사 준비는 어머니들이 설거지는 아버지들이 그리고 심부름은 자녀들이 했다.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새벽까지 대화를 했단다. 무슨 할 이야기가 그렇게 많았을까?

6. 셋째 날 - ☞ 보불로

☆ 불국사, 대왕암

☞ 노래 자랑, 느낌 발표

☞ 하일라 콘도에서 보문 단지를 벗어날 때까지의 거리는 약 4km정도이다. 인도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어 비교적 안전한 길이지만 주의할 곳이 없는 것은 아니다. 보도와 차도의 연결 부분에 턱이 있어 넘어질 수도 있다. 이 길은 가로수가 잘 정비되어 있어 가족들이 자전거 타기로는 제격이다. 중간 지점에 있는 옥부촌에서 홍보 영화를 관람할 수도 있단다. 보문 단지를 벗어나 1km 남짓 가다 보면(경감로) 불국사로 접어드는 길이 나온다(보불로). 불국사 까지 자동차로 달리면 한숨 거리이겠지만 자전거로는 그렇지가 않다. 경주시에서는 이 길에 자전거 전용 도로를 만든다고 한다. 아직은 전용 도로가 없으니 각별한 주의를 요하는 길이다. 불국사를 목표로 하고 주행을 하다 다소 지친 듯

싶으면 민속공예촌을 들러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우리 일행이 불국사까지 도착하는데 걸린 시간이 2시간 정도이니 시속 5km 정도의 속도로 주행한 셈이다. 우리들이 자전거로 이 길을 달리지 않았다면 경주에 와서 자전거를 탔다고 할 수 있었을까? 힘은 들었지만 불국사에 도착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기에 힘이 들지 않았다면 얻는 것 느끼는 것도 없을 것이고 또 기억에서 빨리 사라지겠지!

☆ 불국사 경내를 돌아보고 다보탑과 석가탑의 기품을 느껴 보다. 석가탑 창간에 얹힌 아사달과 아사녀의 전설이 어린 곳 - 영지를 못 가 아쉬웠다. 또한 불국사에서 석굴암에 이르는 산책길을 가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된다. 아침 일찍 기상을 했더라면 하는 마음이 가시질 않는다. 자전거로는 갈 수 없는 길이겠지만 감포 앞바다에 이르는 길(약33km)은 40분 거리의 환상적인 드라이브 코스이다. 구불구불 산길이 위태로움 마저 느끼게 한다. 자전거를 탈 때와 차안에서 보는 풍경이 대비된다. 감은사 쌍탑은 차 안에서만 보았다. 우리 차를 운행하시던 기사 분의 말로는 대대적인 보수 중이란단다. 우리의 문화재가 잘 보존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죽어서 용이 되어서라도 나라를 지키겠다던 문무왕의 의지 - 대왕암에도 가까이 가지는 못했다. 서둘러 대왕암을 뒤로하고 서울로 향했다.

각자 짐 챙기기, 자기 방의 청소, 수영장에서 일어난 일, 땀흘린 뒤에 물속에 들어갈 때의 기분, 차갑던 물, 경주로 향할 때는 가족 대화의 시간을 마련했었는데 서울로 돌아 오면서는 전체 느낌 발표 시간을 만들어 봐야겠다. 긴장이 풀리는 지 목이 가라앉는다. 고문 할아버지와 사회를 본 조 선생님께 감사를 드린다. 노래자랑, 우리는 2박 3일 동안 약속을 잘 지켰나?

7. 내년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가족들이 이번 활동을 통하여 느낀 점, 도움이 되었던 점, 보충하고 싶은 점등을 이야기 해보자. 아이들이 신나게 할 수 있는 자전거 타기, 즐거워하는 자녀들의 표정이 나에게 만족감을 준다. 우리 식구에게 아주 재미있고 신나는 여행이었다. 나는 앞으로 자녀들에게 이러한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평소 잔소리를 많이 하던 나의 습관을 의논하는 민주적인 태도를 가진 부모로 바뀌어 볼 생각이다.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대화 속에서 서로 이해하려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는 자녀와 함께 공통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야겠다. 나 자신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자녀와의 공동 체험의 가치를 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 우리가 탄 차는 서울로 진입하고 있었다.

☞ 앞으로 우리가 해보고 싶은 가족 활동

다음은 경주 가족 자전거 문화기행에 참가한 이용교 박사의 글로 평가 모임에 잘 어울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2절 경주 가족 자전거 문화기행 참가기

1. 열림글

필자와 우리 가족은 한국청소년개발원이 주최한 ‘경주가족자전거문화기행’에 참가했다. 이번 행사는 1995년 8월 7일부터 9일까지 신라인의 열이 서려있는 경주일원에서 이루어졌고, 열두 가족 사십육명이 참가하였다.

필자는 이번 행사를 주최한 기관의 직원이지만, 행사의 진행요원의 신분이 아니라 일반 가족의 한 팀으로 참가하였다. 다른 열 한가족과 똑같이 접수하고, 준비물을 챙겨서, ‘아버지-어머니-아들-딸’이 들뜬 기분으로 문화기행에 나섰다.

다른 참가자들과 같은 수준에서 이번 행사에 참여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직원이란 신분 때문에 진행에 다소 참견하면서 진행 팀의 애로사항과 참가자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이 행사는 ‘한국청소년개발원이 주최한다’는 대외홍보에도 불구하고, 활동연구실의 한 연구팀에 의해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행사의 격은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

이 행사는 자전거 기행을 통해서 환경을 보호하고, 가족 단위행사를 통해서 새로운 수련거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며, 먹고 마시는 놀이문화를 지양하고 문화유적지를 탐방하는 새로운 활동의 모형을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기획된 것이므로 행사를 마련 이 시점에서 소기의 목적이 얼마나 성취되었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행사에서 나온 모형은 다른 청소년단체나 사회단체 혹은 가족모임을 통해서 시도되고 계속 발전될 것이기 때문에 경험을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진행과정을 살피고, 문제점을 반성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왜 경주인가

본원이 ‘자전거로 경주에 가는 행사를 주최한다’는 풍문을 들은 것은 워크샐이 있기 며칠 전이었다. 워크샐이 열리는 날은 토요일 오후였는데, 이번 행사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이 소홀한 것 같아서, 관심을 보이는 차원에서 워크샐에 참석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등록하였다.

워크샐에서는 행사를 기획하는 취지를 상세히 설명하였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교환을 하였다. 그런데, 정작 왜 경주로 떠나는지에 대해서는 별 이야기가 없었다. 왜 경주인가?

1990년에 프랑스의 파리와 스웨덴의 스톡홀름으로 출장을 가서 이들 정부와 사회단체가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았다. 한 가지 예로, 프랑스는 여름에 ‘바캉스’를 떠나지 못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서 바캉스를 지원해주는 단체가 많았다. 또한, “두발로 파리를 정복하는 방법”이란 재미있는 책은 두발과 지하철을 이용해서 파리의 문화유적지 등을 탐방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었다.

왜, 우리 나라에는 이런 활동과 자료가 없는가에 대해서 부끄럽게 느꼈는데, 최근에 좋은 변화가 있음을 목격하게 된다. 예컨대, 서울의 여러 문화유적지와 공공시설 그리고 구경거리를 코스별로 탐방하는 활동은 구청단위나 생활권단위에서 시도되기도 하고 이를 안내하는 책자들도 만들어져가고 있다.

따라서, 본원이 문화기행을 시도함에 있어서 ‘경주’를 택한 것은 천년의 고도인 경주에 박물관이 있고, 반월성, 고분 등이 시내 곳곳에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점에서 경주는 백제의 도읍이었던 부여나 공주에 비해서 훨씬 볼거리가 많음에는 틀림없다. 그런데, 문화유적이란 측면에서 보면 조선 오백년의 도읍이어서 창덕궁, 경복궁, 창경궁, 덕수궁 등이 있고 국립중앙박물관이 있는 서울도 매우 볼거리는 많다.

아마도 경주를 택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시범적으로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로 문화기행을 한다”를 것을 홍보할 수 있고, 대도시보다는 시내교통 상황이 좋아서 보다 안전하게 자전거를 주행할 수 있

다는 장점을 활용한 것이다. 아울러, “경주”는 고등학생의 전형적인 수학여행 코스이기에 학창시절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곳이므로, 가족여행의 적합한 후보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실리와 명분에도 불구하고, 주로 서울이나 수도권에 사는 사람이 경주로 자전거 여행을 하기 위해서 관광버스로만 여섯 시간을 달리는 것은 다소 무리한 계획이었다. 출발 당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6시 40분에 집을 나서고 8시 40분에 개발원에 도착했다. 여기서 인원을 점검하고 9시 30분에 서울을 출발하여 숙소인 경주 하일라콘도에 도착한 것은 오후 2시 30분 경이었다. 여기에 자전거를 배정받고 연습을 시작한 시각까지 고려한다면, 참가자들은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10시간이상을 소요하였다.

집에서 자전거를 타면, 출발과 함께 탈 수 있고, 서울에서 출발을 해도 두 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데, ‘이탁삼일’이란 짧은 문화기행을 하는데, 관광버스로 이동하는 시간만도 왕복 12시간 이상이 소요된다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전거 여행은 생활권에서 이루어지거나 생활권과 가까운 곳에서 자전거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진다면 가능한 한 다른 교통수단(예를 들면, 고속버스나 기차)의 이용시간을 줄여야 할 것이다. 충청도 사람은 부여나 공주에서 하고, 경상도 사람은 경주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 서울이나 경기도 사람은 바로 서울이나 경기도를 탐방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다.

3. 가족여행 대 단체여행

가족자전거문화기행은 “가족” 수련거리의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다. 따라서, 출발 전부터 가족이 함께 하는 활동이 될 것을 강조하였고, 참가자들도 가족이 함께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두었다. 이점에서 볼 때, 다른 활동에서는 흔히 연령의 제한을 두는 것과 달리, 이번 행사에서는 어린 아동

에서 노인까지 참가할 수 있었던 점은 큰 특징이었다.

예를 들면, 송헌섭씨 가족은 사전모임에서 “어머니를 꼭 모시고 가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김정숙씨 가족은 “친정 부모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전화로 몇 차례나 부탁하였다고 한다. 흔히 가족모임이 핵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쉽다는 점에서 볼 때, 함께 생활하는 대가족이 참여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결정이었다.

그런데도, 이번 행사에서 가족여행과 단체여행은 조화를 이루기 어려웠다. 열두 가족 마흔 여섯명은 관광버스로 꼭 찬 인원이었기 때문에 단체의 이동과 숙식, 그리고 안전에 신경을 쓰느라 가족간의 친목도모나 가족원간의 이해 프로그램이 결여되어 있었다.

이 문제점은 둘째날 밤에 참가자들에 의해서 제기되었다. 그날 밤은 어른들이 한방에 모두 모여서 다음날 일정을 협의하고 있었다. 불국사와 석굴암을 탐방하기 위해서는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고, 다른 일정을 고려할 때 참가자의 선택이 요구된다는 것이 논의사항이었다. 이 자리에서 조홍규씨는 “가족행사라고 하지만 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장시간 동안 회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진행팀이 계획안을 제시하고 동의를 구하게 함으로써 부모들이 아이들과 대화시간을 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가족 프로그램의 필요성은 사전모임에서 송헌섭씨가 “심성수련프로그램을 한번 적용하면 좋을 것이다”라고 제안한 바 있었지만, 구체적인 활동으로 연결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행사를 준비한 이재택 선생은 “가족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 서너 가족이 적합한데, 열두 가족이 참여하다 보니 하나의 단체행사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그 한계를 참가자의 규모에서 찾았다. 규모의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가족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안이 없다면 이번 행사는 가족단위로 참여한 가족행사이지, 가족이 일체감을 키운 가족행사가 되지 못한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에 직면하게 된다.

가족행사의 가능성은 마지막날 대본해수욕장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관광버스 안에서 볼 수 있었다. 조홍규씨의 사회로 조별 노래자랑으로 진행되었는데, 참가자 가족들이 “달리는 노래방”속에서 하나가 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아빠와 크레파스’, ‘과수원길’을 참가자 모두의 합창으로 부를 때, 우리는 개별 가족의 일체감을 넘어서 참가자 모두가 공동체임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참가자들이 소감을 이야기할 때, “힘들었지만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자전거 여행을 해서 좋았다”는 아이들의 말이나, “우리 아이와 함께 자전거를 타는 동안 아이들이 성장했음을 새삼스럽게 느꼈다”는 아빠의 말에서 우리는 이번 행사가 가족행사로써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느낄 수 있었다.

4. 자전거기행 대 문화기행

이번 행사에서 혼동스러운 것은 ‘자전거기행’과 ‘문화기행’중에서 어느 것이 주된 것인지를 판단하는 사안이었다. 필자는 이번 행사를 참가할 때 “자전거를 타고 문화기행을 한다”고 이해하였다. 즉, 자동차를 타고 문화기행을 할 수도 있지만, 자전거라는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을 통해서 문화기행을 한다는 것이다.

가족단위로 자전거를 타는 것은 집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문화기행에 더 많은 강조점을 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번 행사는 문화기행 보다는 자전거기행에 더 많은 강조점을 두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 즉, 자전거를 타는 시간은 많은데 문화유적지를 관람하는 시간은 매우 부족했다든지, 자전거로 이동하는데는 많은 준비를 했는데도 문화유적지를 전문적으로 안내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전도현상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것은 둘째 날 경주박물관의 관람에서이었다. 박물관 앞에서 서둘러 점심을 먹고 박물관에 들어간 시간은 12시 45분이었는데, “박물관을 관람하고 한시 정각까지 이곳으로 모이세요”라는 진행자의 말에 당혹스러웠다. 포항MBC 촬영팀이 자전거 문화기행을 찍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서둘러야 한다는 점에서 일면 이해가 갔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숙소에서 박물관까지 1시간 30분이 걸렸는데, 정작 박물관의 관

람을 15분만에 해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웠다. 또한, 이번 행사가 여러 사람에게 자전거 문화기행을 알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일년 중 가장 더운 날 한낮에 자전거를 탄다는 것도 무리이지 않는가?

참가자들도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라의 문화유적을 관람하기 위해서 경주에 온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번 행사의 강조점은 자전거 기행 보다는 문화기행에 더 두었어야 했을 것이다. 이점에서, 문화기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의 안내가 없었다는 것은 결정적인 허점이라고 볼 수 있다.

경주의 문화유적지 곳곳에서 만난 일본인 단체관광객들은 전문 안내인이 동행했고, 참가자들은 안내인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다. 물론, 진행팀에서는 경주에 대한 안내책자를 사전에 배포했고, 주요 유적지에 대한 설명자료를 유인물로 제공하였지만 참가자의 관심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함이 많았다.

어떤 어머니는 유적지로 이동할 때마다 아이들에게 유인물을 읽어주면서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고 하였지만, 전문가의 자세한 설명에는 미치지 못하지 않는가? 이 때문에 “여기가 분황사란다”. “자! 저 탑 앞에 서!” “사진 한번 찍자”란 대화 후에는 별로 할 일이 없는 초라한 문화기행이 된 것은 아닐까? 여행에서 남는 것은 사진밖에 없기 때문에 열심히 셔터를 눌렀지만, 보다 철저한 준비를 하면 훌륭한 문화기행을 할 수 있다는 생각해서, 자전거 문화기행에서 유의해야 할 사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5. 더 가족자전거문화기행을 위하여

1) 자전거로 하는 사전답사

낮선 곳에서 행사는 사전답사가 준비의 기본이다. 현장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그곳에 맞게 준비를 해야 책상머리의 계획을 지양할 수 있다. 한 참가자는 “사전답사가 잘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답사를 했지만 자전거로 답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코스, 소요시간,

정확한 일정표가 세워지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첫날 황성공원을 찾아갈 때, 몇 차례나 지나가는 사람에게 가는 길을 묻고, 분황사와 황룡사지를 찾아갈 때 갔던 길을 되돌아서 갈 때 참가자들은 불안스러웠다. 물론,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는 속담이 있고, 횡단보도 하나 잘못 건너는 정도의 실수라고 하지만, 삼십여명이 단체로 움직이는데 깃발 든 사람이 길을 혼동하면 대오는 흩어지게 된다.

이점에서 자전거 문화기행은 ‘반드시 사전에 자전거로 답사’를 해야 할 것이다. 도로사정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답사는 행사 직전에 해야하며, 코스간의 거리뿐만 아니라 평균이동시간도 정확히 산출한 후에 다소의 여유시간을 가지고 주행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는 기본 코스와 코스간 이동시간을 사전에 정확히 정해두지 않았기 때문에 예정했던 통일전, 무열왕릉, 석굴암, 영지 등을 기행할 수 없었고, 안압지와 침성대 중 어디를 먼저 갈 것인지 혼선이 되기도 했다.

2) 협력관계의 구축

낯선 지역에 가서 행사를 한다는 것은 하나의 모험이다. 관광버스를 대절하고, 자전거를 임대하며, 콘도미니움을 예약하는 문제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일반인들이 행사를 해도 동일하다. 보다 체계적인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행정기관, 자전거동호인회, 문화예술인단체와의 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자전거 주행시에는 순찰차가 교통을 통제하면 가장 좋고, 적어도 지역 자전거동호인이 길 안내를 해주며, 전문가들이 문화유적지를 설명해주어야 의미있는 행사가 될 것이다.

이번 행사에도 사전에 협조하기로 한 행정기관의 담당자들이 ‘가뭄비상’이란 핑계로 현장에 나타나지 않아서, 진행팀의 경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공공기관으로부터 협력을 받을 수 없다면, 민간기관의 자원봉사나 전문가의 고용에 의해서라도 보다 체계적인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협력관계의 구축에서는 공공기관 뿐만 민간기관, 특히 상업적인 기관과의

합리적인 계약도 매우 필요하다. 이번 행사에서도 관광버스의 대절과 자전거의 임대도 다소 마찰이 있었다. 특히, 관광버스의 요금시비나 어린이용 자전거가 적절히 준비되지 못한 것은 행사에 영향을 주었다.

3) 모집과 홍보

낯선 사람들이 모여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참가자의 모집이 쉽지 않다. 다행스럽게 진행팀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여러 신문과 방송에서 이번 행사를 홍보해서 참가에 대한 문의전화로 일과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성황이었다. 또한, 이번 행사의 홍보는 행사 사전 홍보, 방송사의 현장취재, 그리고 행사후의 보도 등에서 기대 이상으로 잘되었다고 본다.

4) 가족의 준비

행사가 원만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참가자 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참가한 가족들은 행사에 대한 기대도 컸고 준비도 비교적 잘한 것으로 여겨진다. 참가자들은 일정액의 회비(어른 45,000원, 아동과 청소년 30,000원)를 내고 주최기관이 관광버스, 자전거, 숙소, 그리고 주식과 일부 부식을 제공하였다. 그런데, 참가자가 집에서 가까운 거리로 주행한다면 자전거, 숙소, 주식과 부식을 참가자가 직접 준비하고 주최기관은 차량을 지원하여 짐을 운반하면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는 정도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5) 숙소와 식사

이번 행사에서 숙소의 수준이나 식사는 비교적 만족스러웠다. 하일라콘도 32평형은 침대방, 온돌방, 그리고 거실로 이루어졌는데, 15명 내외의 참가자들이 지내기에 불편이 없었다. 다만, 12가족이 3개조에 나뉘어서 왔기 때문에 한 집에 3-5개 가족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침실이나 화장실 사용에 다소 불편

하였을 것이다.

참가자들 중 주로 남자들이 공동샤워장에서 샤워를 하고 아침 ‘러시아워’에는 공동화장실을 사용하는 지혜를 발휘하여서 문제를 최소화하였다. 앞으로는 가족들의 욕구를 고려해서 콘도의 수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만약, 참가자의 단위가 핵가족이라면 한가족이 한 침실을 사용하는 것도 대안이다.

다만, 숙소와 문화유적지가 너무 떨어져 있어서 이동시간이 많이 걸린 것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대체로 숙소에서 처음 방문한 유적지까지 자전거로 한 시간 반정도 걸렸는데, 이러한 이동시간이 줄어든다면 유적지의 관람시간이 증가될 수 있을 것이다.

식사는 조별로 이루어지고 대체로 양호했다. 이동시의 식사 중 첫날 점심은 각자 집에서 준비한 김밥이나 도시락을 먹고, 둘째 날과 셋째 날도 야외에서 김밥이나 도시락을 준비했다. 야외식사는 불가피하지만, 보다 세심한 배려가 있으면 즐거운 추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점에서 둘째 날 식사를 박물관 주차장 주변 잔디밭에서 먹은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 당일 일정은 박물관 주차장에 자전거를 주차한 후에, 안압지--반월성--계림--첨성대를 걸어서 관람하고 주차장에서 식사를 했는데, 식사장소는 계림이 가장 적합했을 것이다. 따라서, 박물관 관람--안압지--첨성대--계림의 코스를 자전거로 이동하면서 계림에서 식사를 했어야 했다. 야외 식사는 비가 올 때의 경우도 준비해야 할 것이다.

6) 안전사고의 예방과 처리

이번 행사를 마치면서 참가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사고 없이 무사히 마치게 되어서 기쁘다”고 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는 곳에서 자전거 주행은 차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가장 우려되었다.

첫날은 가볍게 주행하고, 둘째 날과 셋째 날로 갈수록 강도를 높였다. “주행 중에서 추월은 사고의 원인이다”고 신신당부했지만, 첫날은 추월도 적지 않았다. 둘째 날부터는 아버지들이 나서서 주차훈련, 추월금지, 교차로 교통통

제 등을 술선수범하여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 주행 중에 자전거가 넘어져서 무릎을 깨기거나, 뜨거운 햇살 때문에 어지러워서 중도에 포기한 사람이 한사람 있었지만, 대체로 만족스러운 상태이었다.

7) 역사와의 만남

자전거 기행은 되었지만 문화기행은 빈약했다는 점이 가장 아쉽다. 이박 삼 일 동안에 천년의 고도를 둘러본다는 계획이 다소 무모한 것이기는 하지만, 전문적인 안내자가 있었다면 ‘역사와의 만남’이 가능했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9년전 처음 경주를 방문할 때에는 박물관과 불국사밖에 구경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황성공원, 분황사, 황룡사지, 안압지, 반월성, 계림, 첨성대, 천마총 등을 둘러볼 수 있었던 것이 수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문화기행이 알차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안내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번 참석자들의 상당수는 경주를 여러 차례 방문한 적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문화유적지를 방문하고 사진이나 찍는 여행에는 식상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한국청소년개발원이 가족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무언가 다를 줄 알았다”는 한 참가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8) 시간관리

여러 사람들이 움직일 때 시간관리는 성원간의 신뢰형성과 질서유지의 척도이다. 첫날은 모일 때부터 시간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았다. 참가자들이 가지고 온 차량을 일동제약빌딩에 주차하는 문제로 진행팀과 수위들이 신경전을 펴는 동안에 참가자들은 차에서 대기하다가, 9시 25분에 출발했다. ‘코리안 타임이 30분’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출발은 비교적 순조로웠다.

시간관리가 문제로 제기된 것은 둘째 날이었다. 이날 아침 출발시간은 8시로 예정되었지만, 정작 자전거를 타고 출발한 시간은 9시 30분 경이었다. 당초 ‘기상 5시 출발 7시’에서 ‘기상 6시 출발 8시’로 수정되었지만, 일찍 준비한

사람은 7시 반부터 대기하고 어떤 사람은 9시가 다 되어서 나왔기 때문이었다.

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도 마흔명 이상의 사람과 서른 다섯대 가량의 자전거가 움직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진행하기는 어렵지만, 참가자들이 언제 어떤 일이 예정되어 있는지를 사전에 몰랐다는 것은 진행상의 미숙이라고 생각된다.

시간이 갈 수록 시간관리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깊어지면서 참가자들은 스스로 시간관리를 철저히 했고, 단체 행동에서 한두 사람이 늦어서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는 일은 줄어들었다. 행사지의 시간관리는 예기치 않은 돌발사고로 바뀔 수는 있지만, 정확한 시간표가 있고 이에 근거해서 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9) 가족활동

가족행사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점에서 가족활동을 배려했어야 했다. 예컨대, 첫날 서울에서 경주로 가는 관광버스에서는 이번 행사를 간단히 소개하는데 그쳤는데 이 시간에 참가 가족들이 각자 자기 소개와 함께, 참가하게 된 배경이나 이번 행사에 대한 기대 등을 이야기함으로써 참가자들이 공감할 수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가족활동은 같은 숙소에 가족이 함께 지내고, 식사를 같이하며, 자전거로 같이 주행한 것 이상을 하지 못했다. 부모가 자녀들과 하루 일과에 대해서 느낌을 이야기하거나, 부부가 애정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많지 않았다. 다행스러운 것은 조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밤늦게까지 또래집단돌끼리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가지 대안으로 저녁식사를 마친 후에 공식적인 조별행사나 가족모임을 먼저 한 후에, 음주를 겸한 또래별 대화모임은 비공식적으로 하면 더 좋을 것이다.

10) 기록

이 행사는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기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따라서, 기록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되었고, 모든 참가자 가족들이 참가기, 그림, 사진 등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더구나 포항문화방송에서는 이번 행사를 취재해서 방송을 했으니 기록이 풍성한 셈이다.

그런데도 정작 진행팀의 공식적인 기록은 다소 소홀하였다. 진행팀은 카메라를 준비하고도 잊어버리는 실수를 했고, 시간대 별로 활동을 기록으로 남기는 공식 기록자도 없었다. 앞으로는 카메라, 녹음기, 비디오카메라 등 기록에 필요한 도구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각각의 역할을 분담해서 참가자나 진행팀이 보다 책임있게 기록을 남겨야 할 것이다.

이번 행사에서 새로운 시도에 도움이 될 만한 사안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영역	실제	대안
사전답사	차로 답사 + 자전거 여행 경험	자전거로 사전답사
협력관계	경주시 길 안내 약속 불이행	공식적인 협력관계 형성
모집과 홍보	언론의 협조로 모집과 홍보	현재와 같은 방식
가족의 준비	밀반찬과 각종 준비물	더 많은 준비물도 무방
숙소와 식사	콘도와 조별 식사 + 도시락	가까운 숙소 + 가족단위 침실
안전사고	예방철저	예방 철저와 만일 사태 대비
역사와의 만남	유인물 배포 + 짧은 관람	전문가의 안내에 의한 충분한 관람
시간관리	시간표가 없고 다소 지연	시간표의 준비와 철저한 이행
가족활동	가족소개시간 부재	가족소개와 가족활동 실천
기록	참가자의 기록에 의존	공식기록 + 참가자 기록

6. 새로운 가능성을 향하여

여러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번 가족자전거문화기행은 청소년과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많은 시사점과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의미있는 사실은 이제는 ‘돈보다 질을 우선한다’는 것이다. 한 참가자는 “가족들이 이박삼일동안 시간을 보내는데, 십오만원은 별로 부담이 되지

않는다. 더 많은 비용부담이 있더라도 좋은 추억거리를 만들 수 있다면 기꺼이 참가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제 우리는 질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대한민국에서 청소년활동이라고 하면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참가자들은 요구했다.

“여기에 참가한 많은 사람들은 다른 단체에서 하는 활동에도 참여한 적이 많고, 개인적으로 외국 여행을 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 행사에 참여한 가장 큰 이유는 가족과 건강한 여가를 보내기 위해서 이었다”라고 한 참가자는 이야기했다. 가족의 소중함을 느껴 보려는 염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족 프로그램은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 소감을 이야기할 때 참가자들은 한결같이 “가족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서 기쁘다. 다음에 또 이런 행사가 있으면 참가하고 싶다”고 했다. 다소의 아쉬움이 있는 행사이지만, 가족 공동체를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었다.

필자 가족이 참가한 ‘경주 가족자전거문화기행’은 올해의 가족 추억거리가 되기에 충분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는 힘들었지만, 가족과 함께 와서 좋았고, 또 이런 기회가 오면 참여하고 싶다”는 승재의 이야기는 필자의 생각과 일치한다.

가족과 함께 자전거 페달을 밟고 문화유적지로 떠나보자!

7. 다음은 가족자전거문화기행 평가회를 통하여 나온 의견들이다.

- 경주가족자전거문화기행에 참여한 가족 중에 한 사람은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를 둘러싸고 있는 산에는 아카시아 나무가 아주 많이 있고, 5월이면 그 꽃이 아름답다고 한다. 그런데 그 꽃이 피는 기간이 아주 짧기 때문에, 그냥 보내기 아까워 '94년부터 동네 사람들끼리 ‘아카시아 축제’를 열기로 하였다고 한다. '94년에는 그냥 동네 사람들끼리 조촐하게 축제가 이루어졌는데, '95년에는 서울 시립대 농악놀이도 참여를 하였고, 다른 동네 사람들도 참여하여 축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

렇게 동네에서 축제라든가 건전한 놀이 문화, 레저 문화가 만들어지고 확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가족끼리의 체험활동도 다른 가족들과의 모임을 통하여 발전시키는 것도 좋다. 경주가족자전거문화기행을 마친 후 평가모임에 참여한 가족들이 계속적인 가족 체험활동을 위한 조직을 위하여 회장 및 간사를 선출하였다.
- 주어진 여건을 잘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정의 경우 그 구성원이 비, 교적 단출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모이기가 쉽고, 의사소통 및 통솔이 쉽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즉흥성과 임기응변성을 발휘하기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테면 ‘산책’이나 가까운 산이나 공원에 가는 것과 같은 비교적 단순한 체험활동은 가족이 모두 모였을 때 간단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즉흥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그리고 인솔이나 운영도 가족 중에 적합한 사람에게 맡기고 나머지 구성원들은 보조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운영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한가지 수련활동을 하면서 거기에 여러가지 다양한 수련거리를 집어넣어 시행할 수 있다.
- 가정에서의 수련활동에 대한 목표가 불분명하고, 공감대가 없다. 이런 활동들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틀이나 표준이 없다. 부모가 수련활동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해야 한다.
- 사실 가정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많다.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시킬 수 있는 체험활동이 많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동기이다. 체험활동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깊이 깨닫는 것이 동기유발의 중요한 요소이다. 자식 농사가 제일 중요한 농사인데 잘 못하고 있다.
- 가정교육의 책임자는 부모이므로, 부모가 가정에서의 레저문화를 창조해야 한다.
-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친해진 것이 참 좋았다.
- 통제가 없었던 점이 참 좋았다. 자연스러운 질서가 우리문화의 특징이다.
- 제주도를 도보로 한바퀴 도는 활동은 어떤가? 하지만 제주도까지의 여행 경비가 많이 든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경치 좋은 곳에서 이박삼일로 걷기는 어떤가?

V. 요약 및 제언

수련거리 현장운영모형 개발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즐겁게 놀고 활동하고 경험하는 가운데 삶에 필요한 여러가지 기술들과 경험들을 체득하게 하는 것이 수련활동의 목적이다. 현재 우리사회의 청소년들은 그렇게 자발적으로 마음껏 놀지 못하고, 자격증을 따기 위한 입시경쟁에 시달리느라고, 자유롭게 노는 가운데 습득하게 되는 경험들, 삶을 살만한 것으로 만드는 품성들을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많은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놀 장소가 없고, 놀 거리도 없고, 또 놀 줄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여가 권태감으로 인하여 비행에 빠지기 쉬운 상태가 된다.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 개발원에서는 청소년들의 놀 거리로서 그리고 수련활동거리로서 수련거리 기본형을 개발하였다. 그동안 수련거리 기본형 개발에만 주력을 해 왔으며, 개발된 수련거리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으며, 더 잘 활용시킬 방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수련거리 기본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의 활성화 방안 및 보급 방안을 연구하는 것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이다. 「청소년수련거리 현장운영모형 개발연구」의 첫째 목적은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개발한 수련거리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의견조사, 참여관찰, 수련거리기본형들을 현장에 적용하여 운영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청소년수련거리 현장운영모형 개발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현장에서의 모범 사례를 만드는 것이다. 가정, 학교, 시설 세 영역에서 수련거리들을 실시한 사례를 제시해 주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 하고 싶어하면 그것이 모범 사례이다. 그렇게 되려면 현장성이 생생하게 들어가야 하고, 현장의 현실이 반영되어야 한다.

「청소년수련거리 현장운영모형 개발연구」의 세 번째 목적은 가정, 학교, 시설 등에서 쉽고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는 수련거리들과 활동 방안을 찾아내

는 일이다. 연구 범위를 꼭 수련거리 기본형의 현장적용에만 국한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이 여가선용 및 체험활동을 잘하게 할 것인가까지 연구 범위를 넓혔다.

「청소년수련거리 현장운영모형 개발연구」의 네 번째 목적은 수련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건 및 정책 방향에 관한 탐색이다.

「청소년수련거리 현장운영모형 개발연구」의 다섯 번째 목적은 경험적 연구와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가정, 학교, 시설 등의 현장 별로 현장적용에 관한 이론적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을 항목별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1) 개발원에서 개발한 수련거리들을 현장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모색
- 2) 현장에서의 모범 사례 만들기.
- 3) 각 현장별로 쉽고 효과적인 수련거리들과 수련활동 방안 모색.
- 4) 수련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건 조성 및 정책 방향에 관한 모색
- 5) 가정, 학교, 시설 별로 수련거리 현장적용에 관한 이론적 기틀 마련

가정에서의 수련활동의 필요성

가장 중요한 교육기관은 학교가 아니라 가정이다. 가정은 인간 형성의 터전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가정은 인간의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첫번째 장이고, 또한 제일 중요한 장이다. 청소년의 건전한 정신적 신체적 안정은 가정에서 형성되어야 한다. 현대에 와서 가정은 이러한 중요한 사회화 기능을 학교나 다른 기관에 빼앗기고 있으며, 그 기능이 소홀히 되고 있다. 마치 학교의 부수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가정은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당사자인 부모들도 가정의 이러한 중요성을 자칫 간과하고 가정에서의 수련활동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가정에서의 수련활동은 다른 어느 곳에서의 수련활동보다 중요하다. 가정에서의 학습은 주로 경험, 체험, 그리고 모방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청소년들은 체험을 원한다. 어떤 체험은 따분할지라도 그들은 그 결과가 보고 싶기 때문에 수고를 한다. 부모가 이러한 체험활동의 중요성을 깨닫고, 체험활동을 체

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청소년들은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가정은 제일 중요한 교육 장소일 뿐 아니라 직장생활에 지친 부모에게나 학업에 지친 자녀에게 재충전을 위한 휴식의 장소이다. 지나치게 경쟁적인 입시교육은 청소년들에게 많은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또한 도시화, 대기 및 수질 오염 등의 자연 환경적 변화는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의 심신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가시간을 선용할 시설이나 공간의 부족으로 청소년들이 주로 찾게 되는 전자오락, 심야극장, 탁아폐와 같은 도시과 밀지역의 유해한 흥행위주의 상업적 여가활동은 오히려 청소년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

가정에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수련활동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가정이 이러한 역할을 잘하려면 가족 구성원이 서로를 이해하고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며, 그렇게 함께 하는 시간이 재미있고 의미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분위기 조성과 활동이 바로 가정 수련활동의 기본을 이룬다.

가정에서의 첫번째 수련활동은 가족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이다. 두번째 수련활동은 가족들이 함께 행하는 활동들이다. 가정에서의 수련활동은 주로 가족이 모이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여가활동으로 실시되거나, 가족이 함께 하는 저녁 시간에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가정에서의 수련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는:

- 가족이 함께 하는 수련활동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수련활동의 공동목표를 갖고 있지 않다.
- 부모는 직장 일에, 자녀는 학업에 바쁘다.
-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수련활동을 하려 하지 않는다.
-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가족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모르거나, 프로그램의 시행 방법을 모른다.

가정에서의 수련활동을 위하여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는 1992년부터 가정예

서 실시할 수 있는 청소년 수련활동 거리들과 실시 방법을 담은 많은 청소년 수련거리 기본형을 개발하여 왔으나 가정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본원은 연구 주체로, 가정은 실행 주체로 함께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협력사업을 통하여 가정 수련활동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가정에서의 체험활동 연구의 목적

가정에서의 수련활동은 가정에서의 바람직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데 그 목적이 있고, 문화는 생활 양식으로 실천이나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이 연구의 목표는 가정에서 이러한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족들이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수련거리와 수련거리 실시 방법을 개발하고 보급하는데 있다. 이 연구의 목표를 항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가정 수련활동의 이론적 기틀을 마련하는 것
- 2) 가정에서 가족 모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수련활동거리와 수련활동 방안을 찾는 것
- 3) 개발원에서 개발한 수련거리들을 가정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 4) 가정이 운영주체가 되어 체험활동을 직접 실시하고, 한국청소년개발원은 연구주체로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을 통하여 모범사례를 만드는 것
- 5) 가정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것

연구의 방법

가정에서 부모가 지도자로서 자신의 자녀들이 덕체지를 두루 갖춘 전인으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수련활동을 함께 해나가는 방법을 알게 하고, 수련활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함을 그 목표로 연구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가정에서의 수련활동 활성화 방안을 위해 가정수련활동 전문가 및 부모들

과의 긴밀한 접촉을 통하여 연구를 진행하여 왔다. 1995년 7월29일(토)에는 가정에서의 수련활동 활성화 작업의 일환으로 ‘가정에서의 수련거리 운영에 관한 부모 지도자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로 자료집이 나왔다. 그리고 1995년 8월 7일(월)부터 9일(수)까지 2박 3일간 ‘가정 수련활동 활성화’의 일환으로 가족들이 함께 꾸며보는 ‘경주가족자전거문화기행’을 개최하였다. 이 행사의 결과로 많은 가족들이 좋은 체험담을 보내주었다. 그리고 1995년 8월 19일(토) 한국청소년개발원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경주가족자전거문화기행 평가회’에서는 ‘경주가족자전거문화기행’을 통하여 평소 느끼지 못했던 우리가족의 특징들, 우리가정에 도움이 되었던 점, 앞으로 우리가족들의 수련활동에서 좀더 보충하고 싶은 점, 혹은 체험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가정문화를 만들어내고 보급하는 방안 등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다. 이와 더불어 국내외에서 활성화가 잘된 수련활동 사례들과 좋은 프로그램들을 정리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을 항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문헌연구: 국내외의 책들과 연구 속에서 ‘수련거리 운영’에 관한 보편적이고 핵심적인 부분 들을 뽑아내어 정리하였으며, 자녀의 나이별로 적합한 수련거리 및 활동방안을 정리하였다.
- 2) 개별 자문: 가정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수련거리 기본형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다. 기존에 개발된 수련거리 기본형 중에서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실제 수련활동에 참여한 지도자나 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였다. 예로 ‘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모임’이나 ‘어머니회’ 운영과 관련된 전문인사, 청소년 단체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개별자문을 실시하였다.
- 3) 수련거리 시범운영: 열두 가정의 46명의 참여 하에 ‘경주가족자전거문화기행’을 개최하였다.
- 4) 사례: 현장의 정직하고 생생한 느낌이 살아 있는 내용이 수록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현장 적용자, 혹은 활동 체험자의 체험과 수련활동을 잘할 수 있는 방안을 진솔하게 하여 잘된 것을 그대로 싣도록 하였다. 될 수 있으면 구체적인 현장감을 살려서, 생생하고 세세한 상황을 그리려고

노력하였으며, 또한 쉽게 읽혀질 수 있는 문체를 사용하여 기술하려고 노력하였다. 사례들을 통하여 수련활동을 하는 방법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수련활동을 시행해 보고 싶은 동기도 유발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 5) 워크샷: 경주가족자전거문화기행에 참여하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부모지도자 워크샷을 실시하였다.

정책적 제언

- 1) 수련활동의 의의 및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2) 지역사회 여건 마련: 자전거 전용도로, 공원 및 공원 시설, 학교 등과 같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이용가능한 공공 시설 개방, 스포츠 시설, 청소년 센터 등 사회적 여건이 마련되어야만 국민의 정신건강과 신체 건강, 그리고 가정 복지가 향상될 수 있다. 이제는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가 주민의 여가생활 및 체험활동을 위한 여건 마련에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 3)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여가활동을 우리나라 현 실정에 맞게 잘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4)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여건 개선이 중요하다: 많은 청소년 지도자들, 특히 일선에서 청소년들의 수련활동을 지도하는 청소년지도자들의 직업 여건이 너무 열악하다. 그래서 많은 청소년지도자들이 청소년 수련활동 지도라는 일이 자기 적성에 맞아도, 나이가 20대 중반만 넘으면 떠날 생각을 한다고 한다. 수련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소년 지도자의 수련활동에 대한 동기, 관심, 정열이 필요하다. 같은 내용을 가진 수련거리라 하더라도 진행하는 사람이 얼마큼의 동기와 능력을 가지고 진행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청소년 지도자들의 작업 여건이 열악할 때, 수련활동에 대한 열의나 동기도 그만큼 감소될 수밖에 없다.

부모에게의 제언

이 연구를 해 오면서 가장 부각되어 나타난 것이 청소년들의 성장과 행복에 있어서의 자유와 자율의 중요성이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자율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 자녀들로 하여금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만들면서 살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자녀들이 자기 자신을 꽃 피어나게 할 여유와 자유를 가질 수 있고, 행복해 질 수 있다.

부모는 자녀가 긴장이완을 하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고, 또 온몸으로의 체험을 통하여 삶을 체득해 나갈 수 있는 활동들의 중요성을 깨달아, 적극적으로 찾아서 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체험활동을 하면서 자녀들을 수동적으로 지시를 따라야 하는 존재로 보지 말고 주체로 보고서 선택권과 자율성을 주며, 활동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미래의 사회는 문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요구하고 있다. 문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그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및 선택권을 주어져야 한다.

프로그램에 관한 제언

- 1) '경주가족자전거문화기행'에 참여한 가족 중에 한 사람은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를 둘러싸고 있는 산에는 아카시아 나무가 아주 많이 있고, 5월이면 그 꽃이 아름답다고 한다. 그런데 그 꽃이 피는 기간이 아주 짧기 때문에, 그냥 보내기 아까워 1994년부터 동네 사람들끼리 '아카시아 축제'를 열기로 하였다고 한다. 1994년에는 그냥 동네 사람들끼리 조촐하게 축제가 이루어졌는데, 1995년에는 서울 시립대 농악놀이도 참여를 하였고, 다른 동네 사람들도 참여하여 축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렇게 동네에서 축제라든가 건전한 놀이 문화, 레저 문화가 만들어지고 확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가족끼리의 체험활동도 다른 가족들과의 모임을 통하여 발전시키는 것도 좋다. ‘경주가족자전거문화기행’을 마친 후 평가모임에 참여한 가족들이 계속적인 가족 체험활동을 위한 조직을 위하여 회장 및 간사를 선출하였다.
- 3) 다음과 같이 경주가족자전거문화기행을 확대해서 ‘청소년 가족 캠프’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소년 가족 캠프

사업목적

청소년이 부모와 함께 가족캠프에 참가하여 대자연속에서 호연지기를 키우고 문화유적지를 탐방하면서 우리 문화에 대한 긍지를 갖게 하며 인간관계훈련을 통해서 청소년자녀와 부모간의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로 삼는다.

사업의 필요성

청소년자녀와 부모간의 대화시간의 부족으로 부모의 자녀지도가 소홀해지기 쉽다. 청소년자녀와 부모가 서로 다른 휴가계획을 세우고 있어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휴가프로그램이 절실한 실정이다.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청소년 가족 캠프로 오락위주의 여름 휴가를 지양하고 다른 가족과 상호교류하여 공동체 생활을 체험하게 하고, 새로운 가족 문화를 개발하여 널리 보급해서 청소년 지도에 부모를 참여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사업 내용

- ▶ 생활권 단위로 ‘청소년 가족캠프’를 주관
 - 한국청소년개발원이 주관·총괄
 - 시도에서 1개씩의 주관 시설이나 단체를 선정
 - 전국에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과 청소년 단체가 해당지역의 캠프를 주관
 - 각 시·도에 주관 수련시설을 미리 지정해 놓고 매년 같은 곳에서 실시

- 참가가족이 비용의 일부를 회비로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역의 기업체 등으로부터 협찬
 - 기업은 직원가족들의 참여도 장려하여 기업직원들의 복지도 향상시키며, 청소년 복지에 투자하고 있다는 홍보활동을 통하여 기업 이미지를 높일 수 있다.
 - 참여가족 모집은 매스컴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매스컴을 통하여 모집할 때, 협찬 기업의 이름을 내세워 기업의 이미지를 높여줌
- ▶ 청소년자녀와 부모가 함께 하는 사업 진행
- 한국청소년개발원이 개발한 수련거리의 적용
 - 낮에는 야외수련활동과 문화유적지 탐방
 - 밤에는 인간관계훈련으로 가족간의 격의없는 대화
 - 청소년 지도사, 문화예술전문가 등 전문가의 참여로 전문적인 프로그램 진행
- ▶ 제1차년도 청소년 가족캠프의 진행
- 시·도에서 한 개씩의 주관 단체 선정
 - 한 지역에서 5가족을 한 팀으로 4개 팀 신청을 받음
 - 여름방학 중에 실시하고, 첫해는 4박 5일로 함
 - 지역별로 가족모임을 만들고 전국가족모임으로 유도
 - 15개시·도 × 5가족 × 4 팀 × 가족당 4명 = 1,200명
- ▶ 청소년 가족캠프를 연례사업으로 실시
- 매년 청소년 가족캠프를 실시
 - 전년도의 참가가족이 함께 참여하여 규모를 확장
 - 궁극적으로 가족문화운동을 발전시킴

▶ 소요 예산

총 산업비: 315백만원

- 숙박비 $50,000\text{원} \times 4\text{일} \times 300\text{가족} = 60\text{백만원}$
- 식비 $15,000\text{원} \times 5\text{일} \times 1,200\text{명} = 90\text{백만원}$
- 교통비 $600,000\text{원} \times 5\text{일} \times 15\text{지역} = 45\text{백만원}$
- 진행경비 $1,600,000\text{원} \times 5\text{일} \times 15\text{지역} = 120\text{백만원}$
(60백만원은 참가비로 충당 : $50,000 \times 1,200\text{명}$)

참고문헌

단행본

- 권두승(1994), “프로그램의 실행”,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한국청소년개발원.
- 권이종 외(1987), 청소년활동프로그램백과,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김정철(1986), 여가와 레크리에이션, 보경문화사.
- 김성수, 권일남(1994), 청소년 수련활동 지도론,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성호(1994), 지금 당신의 자녀가 흔들리고 있다, 문이당.
- 김은경(1994), “프로그램의 설계와 실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정명 외(1991), 청소년활동동기부여방안, 한국청소년연구원
- 김정명(1993), “청소년활동의 전개의 방향과 과제”, 청소년활동론, 한국청소년개발원.
- 남세진(1992), 집단지도방법론, 서울대학교출판부.
- 문사라 엮음(1995), 노는 게 배우는 것이다, SBS프로덕션.
- 문화체육부(1994), '94 청소년 수련활동 사례집, 문화체육부.
- 문화체육부(1995), 세계화를 위한 청소년정책의 방향, 문화체육부.
- 박명운 외(1991), 청소년 수련거리 실태조사 및 개발방향연구, 한국청소년연구원.
- 박성득, 이재택, 소기옥(1995), 자! 이제 자전거로 갑시다, 글사랑
- 박성희(1994), “청소년활동 프로그램개발의 기초”,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한국
청소년개발원.
- 박윤빈(1991), 종합레크리에이션, 금광.
- 배호순(1994), “프로그램 평가의 실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한국청소년개발원.
- 세광음악출판사 편집국(1993), 레크리에이션 대백과, 세광음악출판사.
- 윤구병(1995), 실험학교이야기, 보리.
- 이무근(1994), “프로그램의 계획”,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시형(1982), 배짱으로 살아라, 집현전.
- 이옥분(1994), “집단 및 집단활동의 이해”, 집단지도론,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재택·김동열(1994), 한올타리 가족 이야기, 상조사.
- 이종각(1990), 현대사회와 레크리에이션, 보경문화사.

전국재(1993), “청소년활동의 관리와 운영”, 청소년활동론, 한국청소년개발원.
 전재일(1991), 집단지도론, 형설출판사.
 전략기업컨설팅 조직학습 연구회(1995), 게임학습리더, 전략기업컨설팅.
 조용하(1990), 야외교육활동론, 교육과학사.
 조용하(1993), “청소년활동의 기초”, 청소년활동론, 한국청소년개발원.
 진용석(1991), 현장에서 본 프랑스 교육, 서당.
 한국걸스카우트연맹(1992), 대활동 우수프로그램 자료집, 한국걸스카우트연맹.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1992), 프로그램 개발 세미나를 위한 계획,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1992), 대원 프로그램 개발방법,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한국청소년개발원(1994), '94 청소년 수련광장 사업보고서,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1994), 청소년수련거리개발 기본계획,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1987),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백과,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연맹(1986), 누리활동사례집, 한국청소년연맹.
 홍영희(1992), 새부모교육, 학문사.

논 문

김지영(1984), 청소년단체의 집단활동 프로그램 기능에 관한 연구, 이화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신인숙(1989), 시설아동의 집단활동 프로그램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번역서

가나모리 우라코 지음, 장운정 옮김(1995), 이런 엄마가 아이를 망친다, 동풍.
 니일 지음, 김은산 옮김(1992), 서머힐, 양서원.
 니일 지음, 김은산 옮김(1994), 방종이 아니 참자유, 서원.
 니일 지음, 김영숙·조정아 옮김(1992), 문제의 부모, 양서원.
 버트란트 러셀 지음, 김영숙 옮김(1989), 러셀의 자녀교육론, 서광사.
 리차드 바이햄 외 지음, 이상욱·장승권 옮김(1995), 자율경영팀, 21세기북스.

마이클 램, 편저, 김광웅·박성연 옮김(1995), 아버지 역할과 아동발달, 이화여대 출판부.
 스포크 지음, 박순황 옮김(1989), 청소년 교육, 정음문화사.
 존 가드너 지음, 이철희 옮김(1979), 자아혁신, 탐구신서.
 주디스 보그타·케네스 머렐 지음, 김성구 옮김(1995), 경영혁신 임파워먼트, 고려원.
 칼릴 지브란 지음, 강은교 옮김(1992), 예언자, 문예출판사.
 토마스 고든 외 지음, 김인자 옮김(1989), 부모역할 배워지는 것인가, 한국심리상담연구소.
 토마스 고든 지음, 이형득 외 옮김(1988), 부모교육, 형설출판사.
 피츠 도오슨 지음, 이원호 옮김(1983), 아버지의 자녀교육, 탐구신서.
 하임 기너트 지음, 이순일 옮김(1994), 10대를 둔 부모가 알아야 할 135가지,
 경제신문사.
 하임 기너트 지음, 김순희 옮김(1987), 부모와 아이들 사이, 종로서적.

국외문헌

Clark E. Moustakas & Cereta Perry (1973), Learning To Be Free,
 A Spectrum Book.
 Dorothy Corkille Briggs(1986), Your Child's Self-Esteem: The Key to
 Life, Dolphin Books.
 Fitzhugh Dodson(1969), How to Parent, A Signet Book.
 Grace Rotzel(1971), The School in Rose Valley, Ballantine Books.
 John R. Kelly(1987), Recreation Trends, Sagamore Publishing.
 Lee Bennett Hopkins(1969), Let Them be themselves, Scholastic Book
 Services.
 Leo B. Hendry, etc.(1993), Young People's Leisure and Lifestyle,
 Routledge.
 Michael E. Cavanagh(1980), Make Your Tomorrow Better, Paulist Press.
 Oscar Lewis(1963), The Children of Sanchez, Vintage.

(부록1: 체험담)

인류학자인 오스카 루이스는 “산체스의 일가”라는 연구에서 똑같은 사건을 보는 여러 식구들의 시각이 얼마나 다른가를 아주 흥미 있게 제시하였다. 자전거문화기행에 참여한 여러 사람들이 여러가지 다양한 시각과 느낌을 그 분들 자신의 글로 제시하는 것도 의미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가족과 함께 문화기행

구창모 아버지(강남구 대치동)

정말 처음 있는 일인 것 같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 노릇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았는데 이번 문화기행은 기회가 아주 좋았다. 가족 모두가 찬성이었다. 모두 조금은 들뜬 마음으로 한국청소년개발원에 도착하였다. 낯선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우리를 태우고 갈 관광 버스가 서 있었다. 아버지가 된 나로서는 조금은 걱정이 되었다. 모르는 사람들 어린 자녀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족이 낯선 사람들과 관광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회의실에서 간단한 인원확인 및 주위 사항을 듣고 차에 올랐다. 서로 초면인 상태라 서먹서먹하다보니 차안은 조용하였고, 가끔 이재택 선생님의 안내 말씀을 들은 채 경주 하일라 콘도에 도착하였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3일동안 타고 다녀야 할 자전거였다. 나는 또 하나 걱정이 생겼다. 우리 혜련이와 능현이는 자전거를 잘 타지만 나의 부인 김정희 여사(간이 작은 남자이기 때문에 부인을 존칭) 자전거를 전혀 타지 못하는 상태에서 오직 가족이 자전거 문화기행을 할 수 있다는 욕심에 신청을 했다. 그런데 몇 시간의 연습으로 차도에 나설 수 있을 지...? 혹시 홀아비가 되는 것은 아닌지.... 숙소에 올라가 여장을 풀고 자전거 앞에 도착. 각자 자기가 탈 자전거를 선택하고 집합 그러나 모든 질서가 엉망이었다. 연습으로 조그마한 언덕길을 다녀 왔다. 이런 상

대로 도로를 주행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었다. 이재택 선생님과 정희옥 박사님의 지휘아래 지금부터 예정된 코스를 주행한다고 했다. 그러나 내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는 마누라는 자전거를 타고 나선다. 우리 마누라 자전거 운전 면허는 “완전 초보” 과연 할 수 있을까? 우리 대원을 지휘하는 이재택 선생님이 힘차게 페달을 밟고 출발!

이제부터 자전거 문화기행은 시작되었다. 해련이와 능현이는 선두 대열에 서서 출발하였고 중간의 마누라를 돌보아야 하는 나는 그 쪽은 전혀 신경을 쓸 수가 없다. 초보운전 마누라 뒤를 쫓아가야 하기 때문에...조금은 다행인 것이 출발 지점에서 목적지까지는 내리막 길이기 때문에 힘이 덜 들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의 의지력이라도 테스트하시는 것인지 무척이나 뜨거운 날씨였다. 아이들은 날씨는 아랑곳없이 오직 신나는 자전거 여행이었다. 한 명의 낙오 없이 김유신 장군 동상이 있는 공원에 도착. 다음 목적지 분황사, 황룡사지. 찬란한 신라 문화의 유적지 경주 몇 군데 구경하고 돌아오는 길 날씨 타인지 아이들의 생각은 오직 수영장뿐이었다. 오후 열 시까지 알았던 개장시간이 오후 여섯 시란다... 물에 들어갔다 관리인의 통제에 아쉬움을 남긴 채 나와야 했다. 숙소에 들어오니 삼조에 계신 할아버지께서 벌써 우리들의 마음을 다 읽으시고 시원한 맥주를 가져다 주셨다. 정말 시원한 마음으로 쭉 ~ 한잔. 속이 시원하였다. 역시 어른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 젊은 사람들과는 다르다. 서먹서먹하던 분위기는 잠시뿐 어느새 같은 형제들처럼 다정한 모습들....

다음날 일찍 다시 시작되는 자전거 타기... 나에게는 또 걱정, 첫째 날은 멋모르고 다녀왔지만 오늘은 코스도 긴 여행인데 과연 우리 마누라가 잘 견딜지...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출발한다. 그래서 오늘은 질서 지키기에 내가 나서야 하겠다고 결심했다. 우선 자전거 주차시키기 연습. 출발할 때 거리간격 유지. 사실은 우리 마누라 때문에 더욱 필요했다. 왜냐하면 초보운전이다보니 속도 조절이 어려우니까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둘째 날도 열외를 하지 않고 출발. 온 몸을 비틀며 출발하는 모습을 보며 불안한 마음으로 뒤를 따른다.

출발하기 전날 국민학교 운동장에서 한시간 정도 연습을 했지만 제대로 정지도 못하고 쓰러지기 일쑤였다. 하여간 대단한 사람이다. 한번 한다면 꼭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 적극적인 행동에 나는 다시 한번 놀랐다. 그런 실력으로 만일 돈을 버는 일이라면 또는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라면 뜨거운 날씨에 자전거를 탈 것인가...

첫날보다 훨씬 더 질서정연하게 미끄러지는 자전거 대열은 정말 대견스러워 보인다. 어느덧 경주 박물관 앞에 도착. 자전거를 질서 있게 주차하고 도보로 이동. 그러나 날씨가 무척이나 뜨겁다보니 유적지에 역사 공부에 관심밖이었고 인압지, 반월성, 석빙고, 제림, 첨성대를 구경하고 자전거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 즐거운 점심시간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먹는 것은 즐거운 것이요. 식후 MBC에서 촬영을 한다. 역시 나는 촌놈이라는 것을 느꼈다. 왜 내가 긴장을 해야 하는가. 만약 나에게 소감을 말하라면 무어라 대답할 것인가? 괜히 쓸데없는 걱정을 했다. 그래! 느낀 대로 몇 가지 준비를 하고 출발하였다. 몇 군데 돌아서 천마총에 도착하여 내부를 돌아보고 나와보니 몇몇 사람에게 인터뷰가 시작되었다. 혹시 나에게 묻지 않을까...? 그러나 나한테 오지 않았다. 섭섭한 마음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TV에 나올 기회를 놓쳤으니 섭섭할 수밖에...

마지막 날 삼일 췌 불국사로 출발. 이틀 동안 쌓은 실력으로 우리 자전거 대열은 질서 정연하게 움직여진다. 그러나 불국사로 가는 길은 험한 차도밖에 없었다. 어린 학생들과 단체로 움직이는 대열에 평음을 내며 지나치는 대형 트럭과 관광버스. 그냥 지나치면 좋으련만 왜 그리도 경적 소리를 내는지...물론 좁은 도로를 달리는 그들에게는 무척이나 큰 장애물로 귀찮은 존재가 됐겠지...그러나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더욱 풍요로운 사회가 이룩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험준한 고갯길을 오르내리다보니 불국사...정말 힘들었다. 그러나 나의 목적은 다 달성한 것 같다. 자전거는 끝. 어린 아이들과 초보운전으로 도전한 마누라...모두 아무 사고없이 목적지까지 도착하였으니 정말 고맙다.

신라 문화의 대표적인 불국사...석가탑과 다보탑을 돌아보며 위로 올라가 내

려다보니 기와 추녀 밑에 날씬한 곡선이 옛선조들의 열이 새겨져 있는 듯했다. 여기서 현인 선생님의 “신라의 달밤”이라도 한번 불러 봤으면...역시 분위기는 아니었다.아쉬움을 남긴 채 내려와 흥가분한 마음으로 관광버스에 올랐다. 자전거가 없으니 부담이 없었다.

이제는 마지막 코스인 문무대왕 수중릉... 대왕암으로 향해 버스가 움직인다. 창밖을 내다보니 곡식들이 시들시들 말라있고, 경주시에 식수원이라는 저수지가 거의 바닥을 드러내 보인다. 이런 심한 가뭄에 우리는 편하게 관광을 한다는 것이 조금은 마음에 걸린다. 여기는 수중릉 동해바다...관파바다 넘실거리는 파도...정말 시원해 보인다. 그러나 달을 담그는 순간...이게 아닌데...물이 너무 차가워서 들어갈 수가 없었다. 또 시간도 여유치 않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너무나 즐거워하는 아이들...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마냥 흐뭇하기만 하다. 우리의 문화기행은 여기서 끝을 내고 아쉬움을 남긴 채 서울로 향했다. 조금만 여유 있게 시간을 편성했으면...하는 아쉬움이 든다. 아이들과 유적지를 돌아보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없었고, 같이 참석한 모든 분들과 간단한 오락 시간이라도 있었다면 더욱 가까운 친분이 이루어졌을 텐데...하는 아쉬움...그러나 주체한 청소년 개발원의 한박사님, 정박사님, 이선생님께 정말 감사 드린다.

경주 가족 자전거 문화기행을 참가하면서...

김정희 어머니 (강남구 대치동)

한글 청소년 개발원 주최로 가족과 함께 보고 가고 싶은 경주를 떠날 수 있다는 점에 조금은 들뜬 마음이 었다. 사실은 자전거로 문화기행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나에게서는 큰 걸림돌이 었다. 식구들 중에 나만 자전거를 탈 줄 몰라 며칠밖에 시간여유가 없으니 이번 기회에 자전거도 배울 겸 꼭 참가하겠다는 목표가 있었기에 6시간동안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자전거를 탈 수 있었다. 우리 가족은 문화기행을 떠나기 전까지 충분한 토론을 가졌다. 준비물,

보고 싶은 것,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등 집에서 하듯 잔소리하는 사람,듣는 사람없이 각자가 할 일을 잘하도록 자기 물건을 잘 챙겨 가져오고 가기 자전거 제일 못한 엄마를 걱정 해주며, 서로가 도와주기로 하고 우리 집 두 아이가 주체로 하고 대장은 아들로 정했다. 아들은 선두가 되어 가고 댄 나중에는 아빠가 엄마를 보호하기 위해서 순서를 그렇게 정했다. 항상 아이로만 생각했던 아들은 대장답게 너무 능률한 행동을 해서 엄마 아빠가 아들이 많이 컸구나 생각하며 흐뭇했었다. 각 지방에서 온 참가자들이 초면인데도 어찌면 이렇게 빨리 친해 질 수 있을까? 전생애 인연이 있는 것 같았다. 숙소에 조장을 정하여 조장 지시아래 남자 방 여자 방 나눠 잠을 자면서 밤이 새도록 이야기 꽃을 피우며, 어떻게 참가 했느냐 왜 참가 했느냐..등으로 우리의 우정을 다짐하면서 서로의 의식이 비슷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역사의 맥을 이어주는 유물·유적지들, 화려했던 신라가 산천은 의거하되 인물은 간데 없네..신라 천년 그 문화의 정화를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는 불국사. 석재를 목재보다 정밀하게 진흙보다 부드럽게 다듬어 논 다보탑과 석가탑은 세계의 탑사 속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정교한 것이다. 나의 시조 경주 김가 계림 파를 탄생시킨 뿌리 깊이 자리한 경주. 수많은 유물유적이 발굴되어 역사에 맥을 잇는 자료로써 일반인에게 귀중한 관광지. 아직도 찾지 못한 유물과 유적이 얼마나 더 있는지 가늠하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더위와 시간상 다 구경하지 못했지만 다시 찾아보고 싶다. 자전거 도로에는 안전하게 탈 수 있어 좋았지만 자전거도로가 아닌 차도로 갈 때와 내리막길,울퉁불퉁 보도 블록을 지날 때 정말 위험했었다. 어른도 올라가기 힘든 언덕길을 땀을 닦으며, 자전거를 끌고 국민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힘들게 끝까지 올라 갈 때 새삼 인내심을 찾아 볼 수 있었다. 한결 같이 부모들은 우리자녀들을 과속 평가했지만 우리 자신과 자녀들에게 감추어진 그 진기한 색깔들을 마음껏 발휘 할 수 있도록 전인적인 교육에 힘썼으면 한다.

월요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일찍 일어나 준비를 한다. 점심에 먹을 김밥을 싸느냐고 우리 식구 모두 분주하게 움직였다. 다 준비를 하고 양재동에 있는 청소년 개발원으로 떠났다. 그 곳에서 초록색 티를 받고, 이름표를 달고, 9시 5분 차에 올랐다. 사람들 얼굴 속엔 왠지 모를 흥분이 느껴졌다. 약 5시간 남짓 지나 2시 15분에 경주에 도착했다. 화랑의 동상이 우릴 반겨주어, 확실히 경주라고 알 수 있었다. 3시에 하일라 콘도에 도착 집을 풀고, 아가주었던 초록색 티로 모두 갈아입은 다음 자전거 있는 곳으로 향했다. 자기 키에 맞고, 브레이크가 잘 드나 본 후 출발하게 됐다. 콘도를 떠나, 자전거 길로 들어서니 가기가 더욱 쉬웠다. 옆으로는 산들이 둘러져 있고, 서울에서 보던 높은 건물이 없고, 멋있는 기와 건물들이 내 눈을 즐겁게 해 주었다. 또 눈이 즐거우니 마음도 자연스레 평온을 찾았다. 황성공원에서 김유신 장군의 상을 보고 분황사에가 책에서 그토록 많이 보던 분황사 석탑을 보게 되었다. 책으로 보던 것 보다 훨씬 더 웅장했다. 분황사 옆으로는 황룡사 절 터가 있었는데, 그 터들이 뒤로 갈수록 크기가 더 커짐을 알 수 있었다. 이 건물들이 다 짓는데 무려 93년이나 걸렸다고 한다. 그 상태로 유지되었으면 아주 웅장하고 멋있는 건축물이었을 텐데 몽고 침략군에 의해 불타버렸다는 것이 참 안타까웠다. 황혼 녘에 다시 자전거에 오르면서 흰하 트인 황룡사 절터를 보며 난 생각에 잠겼다.

둘째날 안압지에 도착, 석빙고를 둘러본 후 첨성대 있는 곳으로 갔다. 석빙고는 들어가는 구멍에 가까이 가보니 어디서 부는지 모르겠지만 한기를 느낄 수 있었다. 또 그 한기에서 우리의 선조들의 지혜도 느낄 수 있었다. 왕이 여름에 여름을 먹기 위한 저장고라... 첨성대는 보는 순간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콜라병과는 비교가 안 될 만치의 아름다운 곡선에선 이름 모를 고풍이 느껴졌다. 하지만 첨성대는 그 곡선뿐만 아니라 돌 하나하나에도 깊은 뜻이 있었다. 신라 27대 선덕여왕때 건조되었는데 꼭대기 네모진 이중의 장방

형 석재는 정확히 동서 남북을 가리키고 있고,여기에 사용된 화강암 숫자는 365개, 한해의 일수와 맞아떨어진다. 밑 돌레 기단12개는 1년의 12개월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전체 층은 27개 였는데 선덕여왕이 신라 27대 여왕이라는 것파도 연관이 있는게 아닌가..하는 설도 가지고 있었다. 우린 그곳을 여행하면서 MBC에서 나온 촬영 팀도 만날 수 있었는데 그 촬영차가 나오니 모두들 TV에 나온 다는 긴장감 때문인지는 몰라도 줄을 딱딱 맞추고 앞의 자전거와 거리를 적당히 유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역시 카메라의 힘은 대단했다. 우리 모두들 긴장시켰으니까... 다음엔 천마총에 갔다. 천마총의 주위엔 큰 무덤들이 많았는데 혹시 그 무덤들 중에 내 전생의 무덤이 있지 않았나.. 라는 장난스런 생각을 해 보았다. 하여튼 나도 죽어서 그런 무덤하나만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다시 콘도로 지친 몸을 이 끌고 자전거에 올랐다. 저녁엔 사람들과 어울려 게임도 하고 재미있게 놀았다.

마지막날 내리막길이 많다고 해서 무척 좋아하였다. 오르막길에선 자전거에 내려 자전거를 끌고 올라 가야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짜증이 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역시 내리막 길이 많다는 건 오르막길이 있는 후부터 였다. 불국사로 넘어가는 고개는 정말 힘들었다. 또 그냥 차도 였기 때문에 관광버스나 덤프트럭 같은 큰 차들이 큰소리로 경적을 울렸을 땐 놀래서 몇 번 넘어지기도 하였다. 산을 넘어 드디어 불국사에 도착. 모두들 음료수 사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다. 너무나도 갈증이 났기 때문에 평소에 음료수를 안 드시던 어머니께서도 마다하지 않으셨다. 다시 기운을 차리고 올라갔다. 불국사엔 석가탑과 다보탑이 있었다. 몇백년 동안 비 바람 맞으며 견뎌왔을 것이다. 그 석탑은 말은 안하고 있지만 우리의 역사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 웅장한 석탑을 보니 나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졌다. 다 본후 우린 다른 길로 찾아 내려왔다. 그런데 그 곳이 더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다른 사람들을 10분이나 더 기다리게 했다. 단체생활하는데 그런 개인적인 활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피해 주는지 새삼 깨달았으며, 다신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우린 자전거와 이별을 한 뒤 버스를 타고 문무왕의 수중룡으로 향했다. 동해대본 해수욕장에 위치한 수중룡은 죽어서도 용이 되어 동해를 지키겠다는 문무

대왕의 의지에 의해 거기에 건립되었다고 한다. 그 옛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몇 백년이 흘렀어도 물 한 방울 틈새 없이 만들어진 능... 너무나 대단했다. 그 시대엔 시멘트 같은 발달된 도구도 없었을 텐데 지금에 철근과 시멘트로 지어져 무너진 삼풍 백화점 보다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을 했다. 하여튼 그 바다에서 해수욕을 즐긴다고 모두들 내려갔는데 생각 외로 바다가 깊고 너무나 차가워 발이 저릴 정도 였다. 몇 분 동안 물가에서 놀다가 아쉬운 마음을 남긴 채 다시 서울로 향했다.

이 문화기행 덕분에 명이 안 든 곳이 없어 땅바닥에 앉기조차 힘들지만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다시 한번 엿볼 수 있는 좋은 여행이 었다. 여기서 단체 생활의 재미와 힘든 점도 느껴 보았고, 자전거 타는데 이제 자신이 생겼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 친해 질 수 있었고 많이 웃고 떠드는 가운데 헤어지가 아쉬웠다. 난 이 여행을 통해 내 자신은 노력하면 어떤 일이든 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고, 무슨 일이든지 부닥쳤을 때 적극적으로 일을 한다면 세상에 두려울 일은 없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이런 좋은 경험을 하게 해 주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 감사들이고 이 기행에서 힘쓰신 여러 박사님들과 선생님들, 아줌마들께 감사 들인다.

경주 자전거 문화기행

구능현(대치국민학교)

한국 청소년 개발원에서 주최하는 경주 자전거 타고 문화기행이 있다 길래 반대없이 우리가족 모두 참가하기로 했다. 8월 7일부터 9일 까지 2박 3일 동안 지내기로 했다.

8월 7일 오전 8시 30분에 청소년 개발원에서 기념 티와 이름표를 받은 후 출발하기로 되 있었는데 늦은 사람들 때문에 9시 5분에 출발하였다. 생전 모르는 사람과 2박3일을 지내야 했다. 우리가 2박 3일 동안 경주 하일라 콘도를 3방 예약해 놓았는데 1방에 15명씩 묶어야 했다. 나는 방이 좁을 줄 알았는데

전혀 좁지 않았다. 짐도 풀고 자전거 탈 준비도 하고 또 나가서 자전거 이상 있나 살펴보고 드디어 출발! 자전거를 한참 타고 가다가 5시 45분에 김유신 장군상이 있는 황성공원에 도착하였다. 김유신 장군 상은 아주 거대하고 멋있었다. 다음은 분황사 석탑을 보고 황룡사터를 갔는데 여러 기둥은 무엇이었는데 짐작이 가는데 어느 산 같이 높은 곳은 짐작이 안 갔다. 그렇게 돌고 하이라 콘도로 도착해 보니 벌써 8시 였는데 너무 힘들어 쪽 들어 누웠다. 둘째날 6시에 모닝 콜을 받고 기상하였다. 아침밥을 빨리 먹고 9시에 출발하였다. 10시 55분, 안압지에 도착하였다. 나는 안압지에서는 유적 유물보다는 안압지 수입 구에 사는 고기에 제일 관심이 많았다. 다음에는 석빙고에 갔는데,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가지 않고 석빙고에서 쉬고 있었다. 석빙고안은 어두워서 볼 수 없었지만, 차가운 한기가 느껴졌다. 다음은 첨성대를 갔는데 첨성대는 책으로 본 것 보다 훨씬 멋있었다.

다음은 점심을 먹고, 국립경주 박물관을 갔는데, 여러 유적 유물들은 아주 볼만했다. 그런데 아쉽게도 시간이 없어, 예뮐레 종을 자세히 못 봤다. 다음엔 대능원에 갔는데, 대능원에는 큰 무덤들이 많았는데, 그 중 한 무덤, 천마총에만 들어 갈 수 있었다. 여러가지 왕이 쓰던 물건과, 뿔가투를 봤다. 나는 무덤 안이라고 해서 따뜻할 줄 알았는데, 추웠다. 오늘은 아이들이 졸라서 일찍 콘도로 돌아갔다.

세째날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불국사로 간 다음 동해 대본해수욕장으로 버스 타고, 거기서 바로 서울로 간다.

오늘은 오르막 길이 많아서, 긴 코스 보다 더 힘들었다. 드디어 불국사. 불국사에는 다보탑과 석가탑이 참 멋있었다. 그리고, 다보탑 앞에 있는 사자상도 멋있었다. 다음엔 동해 문무대왕의 수중릉 대왕 암으로 갔다. 바다에서 노노라고 문무대의 수중릉은 보지 못했지만 바다가 무척 차가워 발 담그기조차 힘들었다. 나중에 버스 타고 갈 때 대왕 암을 볼 수 있었다. 이제 서울로 가니 정이 들었는지 아쉬웠다. 이번 문화기행이 나의 좋은 추억이 되었다.

하루 왕복 3시간씩 출퇴근하는 남편이 밤10시가 넘어서야 지친 모습으로 들어오곤 하는데 하루는 만면에 웃음을 머금고 들어오면서 ‘여보! 우리 경주 구경하게 생겼어’ 하는 것이다.

7월 중순에는 어머니 회갑으로 시골에 다녀왔고, 8월초에는 이웃집과 휴가 계획이 잡혀있는 터라 남편의 갑작스런 경주행에 의이해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더위에 무슨 경주까지 여행을 가느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다니는 청소 년개발원에서 수련거리 개발 차원에서 경주로 가족자전거문화기행을 간다고 한다.

씩 내키지 않았지만 평소 아이들을 방목하다시피 키워 자전거도 제법 잘 타고 나도 신도시 자전거전용도로 덕에 작년에 자전거를 배워서 서툴지만 한 이틀 연습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라면 기본적으로 공동목표를 가지기에 여러 가족들 간에 쉽게 친숙해질 수 있으리란 생각에 참가하기로 했다.

우선 일정표를 받아보니 2박3일 동안 경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유적지는 다 둘러볼 모양이다. 그런데, 도로사정과 유적지간의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참가대상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40여명 이상의 단체가 자전거를 타고 문화기행을 한다니 조금은 걱정이 되었다.

8월7일 아침 개발원에서 출발하기로 된 관광버스를 타기 위해 우리 가족은 이른 아침을 먹고 짐을 챙겼다. 개발원에 도착해 간단한 주의사항을 듣고 인원점검이 끝난 후 곧 바로 출발했다. 진행자는 차안에서 참가가족을 3개조로 나누고 조별로 구체적인 활동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아직 얼굴도 제대로 안 익힌 터라 우리 가족끼리 앉아 얘기를 나누었다. 차는 예상보다 빨리 달렸다. 높은 산자락 밑에 웅기종기 엮여있는 주택들이 버스와 경주를 함께 하였다. 휴게소에서 조별로 늦은 점심을 해결하고 서둘러 경주에 도착했다.

방을 배정 받고 곧 바로 자전거가 있는 콘도앞 도로에 집결했다. 각자 자기

에게 알맞은 자전거를 고르고 비교적 한적한 콘도 뒷길을 오르내리며 몸을 풀었다. 그런데, 국민학교 1학년인 딸 다울이는 자전거가 너무 맞지 않아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잡지 못해 겁을 먹고 안타겠다고 짜증을 부렸다. 또 다른 애도 자전거가 너무 커 못 타게 되어 결국 내가 콘도에서 아이들을 돌보아야만 했다.

전업주부로 살아가면서 동요 산토끼 곡에 가사 말을 붙여 부르곤 하는 노래가 있다.

자식이 자라나 국민학교 들어갈 제
어떤 선생 만날까 두근두근 뛰는 마음
돈 봉투 안 바치면 내자식 땀보일까
선생님께 아양떨며 손을 짹짹 비벼본다
수업 끝나 집에 온 아이 아이 일이 내일이니
아이시간 감시하기 그 또한 못할 노릇
피아노다 태권도다 시간 맞춰 보내주고
툼툼이 간식 먹여 사육하기 힘들구나

이러한 주부정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내게 가족이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기에 경주까지 왔는데 첫째 날부터 동참할 수 없게 되자 조금은 화가 나기도 했다. 어쨌던 아이들을 데리고 풀장에서 두어 시간 놀아주고 숙소로 들어와 어르신들과 얘기를 나누었다. 한 할머니께서는 이 불별더위에 무슨 자전거여행이냐며 손녀들을 걱정하셨다. 공동목표 설정과 대상간에 다소 차질이 있는 셈이지만, 가족끼리 서로 걱정해주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

첫째날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기에 자전거 키를 주려고 밖으로 내려갔다. 대로에서 나를 본 남편은 나를 의식하지도 않은 채 불에 뽀뽀를 하며 안으려했다. 아마 여기까지 와서 아이를 보게 한 미안함과 땀을 뺄뺄 흘리며 하루를 마친 뒤 가족을 보니 반가운 모양이다.

우리는 아침 일찍 출발해서 여유없이 보냈기에 지쳐있는 터라 저녁밥이 너

무 맛있었다. 저녁을 먹은 후에 우리 가족은 콘도에서 내려다보이는 풀장 벤치에 자리를 잡고 하루를 뒤돌아보며 아이들의 반응도 훑었다. 다행히 둘다 만족해했다. 평소 물놀이를 좋아하는 다울이는 춘천에서 온 언니뻘 되는 아이와 사귀어 같이 수영을 할 수 있어 좋았다고 하고 모험을 즐기는 승재는 힘은 들어도 차도를 열을 지어 달린 게 신났던 모양이다.

휴식을 취한 후 들어와보니 제2조 방에 모두 모여 있었다. 하루를 보내며 간단한 평가를 하나보다. 서로 의견교환이 끝난 후 각자 취침에 들어갔는데 잠자리가 불편해 잠을 설쳤다. 가능하다면 가족이 한방을 쓰는 게 좋을 듯 싶다.

둘째 날은 5시30분에 기상해서 도시락을 챙기고 아침을 먹었는데 오늘부터 참가키로 한 한 가족이 늦게 도착해서 출발이 다소 늦어졌다. 오늘은 자전거를 타지 않은 사람은 차로 이동하기에 나도 자전거대열에 끼 수 있었다. 우리는 10시가 다되어 목적지로 향했다.

차도를 처음 주행해 본 나로서는 여간 힘이 들지 않았다. 남편과 승재가 뒤에서 도로사정에 따라 기어변속 코치를 해주었다. 나도 아들이 뒤에서 보호해주니 어머니가 잘 달릴 수 있다고 승재를 격려해 주었다. 4차선 도로에선 차들이 피해가니까 비교적 수월했는데 2차선 도로의 내리막길과 다리를 건널 때는 무척 조심스러웠다.

우리는 안압지, 반월성, 계림, 침성대를 거쳐 박물관 주차장에서 점심을 먹었다. 계림에서 하늘이 보이지 않을 만큼 우거진 고목을 보고 왔기에 점심을 거기서 먹었으면 좋을텐데 하는 아쉬움을 남기고 촉박한 시간을 재촉해 신라의 문화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박물관을 구경했다. 좁은 공간이라 차례로 줄지어 보아야만 하는데 15분이라는 시간 제한 때문에 들성들성 몇 군데만 보고 나오니 영 개운치가 않다. 이토록 바쁜 일정인데 지방 MBC에서 취재를 나와 거기에 응하느라 상당한 시간을 빼앗겼다. 물론 홍보는 되겠지만 원래의 목표달성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느낌이 든다. 우리는 천마총과 오름을 둘러보고 숙소로 돌아왔다.

둘째날 역시 느낌을 교환하고 다음날 일정에 대해 토론했다. 자전거를 어디

까지 교통수단화 할 것인가와 어디를 들릴 것인가가 초점이었다. 나는 거리와 도로사정을 전혀 몰라 예측할 수 없었다. 체험으로 이루어지는 행사를 앞두고 사전답사를 철저히 했을 텐데 왜 현지에서 이런 토론을 해야만 하는지 답답했다. 마지막 날은 귀가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제안으로 일단 불국사까지만 자전거를 타고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가장 기본적인 일정을 잡는데 무려 두시간이 걸려버렸다. 어떤 분은 소중한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하는 유익한 시간을 갖지 못하고 아이들끼리 방치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음날 8시에 집결할 것을 약속하고 취침하였다. 전날 조금 신경이 예민해져서인지 약속한 8시까지 모두 모였다. 차를 탈 사람과 자전거를 탈 사람을 점검하고 서둘러 불국사를 향해 출발했다. 불국사로 가는 길은 전날과 다르게 상당히 난 코스였다. 우선 노면이 고르지 못하고 내리막길과 오르막길이 많았으며 일부 구간은 좁은 2차선 도로에 차들까지 많이 다녔다. 화물차들이 뒤에서 연신 빵빵거리는데 가슴이 철렁거리려 자꾸 핸들을 꺾다가 넘어져 무릎을 깨기도 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위험요소가 많으면 재고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순간 머리를 스쳤다.

콘도에서 불국사까지 1시간 걸릴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2시간정도 걸려 목적지에 도착했다. 시간 계산 착오인지, 2시간 걸린다고 하면 차를 탈 사람이 많을 것 같아 그랬는지는 모르겠다. 불국사에선 1시간의 자유시간이 주어졌다. 우리는 불국사에서 다보탑과 석가탑을 둘러보고 경내 이곳 저곳을 구경한 다음 차에 올라 무열왕릉이 있는 대본해수욕장에 둘러 점심을 먹었다. 잠깐 발을 담구었는데 물이 어찌나 차가운지 더위를 식히는데는 그만이었다. 다시 차를 타고 오는 동안 각자 돌아가면서 노래도 부르고 소감도 얘기하며 2박3일을 정리했다.

나는 차안에서 좀더 여유 있는 일정과 치밀한 사전답사가 있었더라면 알찬 문화기행이 되지 않았을까란 생각을 해 보았다. 그러나 처음 시도해 본 것이고 평가와 시행착오를 거듭하다보면 더 나은 방안이 마련되어서 좋은 가정수련거리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는데 이번 문화기행의 의미부여를 해 본다.

끝으로, 참신한 가정수련거리를 개발하고 있는 한국청소년개발원의 한승희

실장님과 정회욱 박사님, 그리고 아이디어를 제공한 이제택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아울러 참가 가족 모두께 안부를 전한다.

1995년 8월 17일 새벽

이 승 재(백석국민학교 3학년)

우리 아버지께서 다니시는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가족자전거문화기행을 갔다. 우리는 2박 3일을 다녀왔다.

서울에서 경주까지는 용마고속관광버스로 갔는데, 휴게소에서 점심을 먹고 경주에 도착했다. 짐을 풀어놓고 난 후에 나는 자전거를 탔다. 자전거로 기본코스를 왔다 갔다 하고 다른 길로 가 황성공원에 있는 김유신 장군 동상을 구경한 후에 분황사와 황룡사지를 관람했다. 나는 자전거를 제자리에 돌려놓고 우리 콘도에 들어와 잠을 잤다.

다음날은 아침 일찍부터 자전거를 탔다. 어제보다는 더 빨리 나갔다. 오늘은 어제와 다른 곳에 갔는데 거기 이름은 안압지라고 했다. 안압지에서 많은 것을 보았다. 신라의 옛 성인 반월성과 김알지가 태어났다는 계림을 구경하고 첨성대도 보았다.

그리고 박물관을 관람한 후에는 MBC에서 취재 팀이 와서 인터뷰도 하고 촬영도 많이 했다. 나도 보니까 카메라에 찍혔다. 오후 5시쯤 콘도로 돌아와서는 수영장에서 수영을 했다. 땀을 흘리고 나서 훨씬 더 시원했다.

세제날에도 일찍 일어나 떠날 준비를 했다. 자전거를 타고 불국사까지 가서는 다보탑과 석가탑을 구경한 후, 문무왕릉이 있는 대본해수욕장에서 물장구를 치고 논 후에 서울로 향했다. 오면서는 차에 있는 노래방 시스템으로 노래를 신나게 불렀다.

자전거를 타면서 힘도 들었지만 즐거웠고 또 경주에 놀러가고 싶다.

경주에서 다시 탄 자전거

이동호 (선덕중학교 1학년)

8월 7일

우리가족은 짐을 챙겨 청소년개발원으로 향했다. 청소년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경주 자전거 문화기행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다. 사실 경주는 작년 수학여행때 갔다 왔지만 시간에 쫓겨 자세히 볼 수가 없었다. 이번에는 자전거를 타고 경주의 문화유적을 돌아본다고 하니 나는 마음이 부풀었다. 경주하면 생각나는 것이 많다. 불국사, 첨성대, 많은 왕릉, 다보탑 등등. 나는 이번 기회에 경주를 확실하게 알고 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경주는 사회교과서에도 나온다. 이번 기회에 신라 문화에 대해서 많은 탐색을 해야겠다.

관광버스를 타고 출발! 경주를 향해 우리가 간다. 경주는 약 다섯 시간 걸린다고 한다. 모두들 자전거를 빨리 타고 싶은 나의 마음과 같으리라. 경주속소에 도착해 자전거를 타러 모였다. 모두들 끝까지 자전거를 타겠다는 각오를 하는 것 같았다. 드디어 출발, 처음에는 더워서 짜증도 났지만 내리막길을 달릴 때는 선풍기 바람은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시원했다. 분황사에 도착했다. 이곳은 선덕여왕 3년에 건립되었다고 한다. 분황사 석탑은 크고 모양이 독특했다. 주변엔 4마리의 돌 사자가 있었는데 석탑을 지키는 사자라 그런지 아주 힘차게 보였다. 우리는 첫날 자전거를 타고 분황사, 황룡사터, 황성공원을 돌아보았다. 황성공원은 작년에 아버지와 자전거 일주를 하면서 들렸던 곳이다. 이곳에서 낮잠을 자다가 일행이 먼저 출발을 하여 쫓아가느라 힘이 들었던 추억이 있는 곳이다. 첫날 좀 피곤하였지만 재미도 있었다. 저녁때는 밥이 그렇게 맛이 있을 수가 없었다.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서일까? 다들 잘 먹었다. 저녁때 우리들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처음 보는 사이지만 금방 친구가 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하루를 보냈다.

8월 8일

날이 밝았다. 오늘은 아침부터 자전거를 탔다. 엉덩이는 약간 아팠지만 전

덜 수는 있었다. 안압지에 도착하는 동안 많은 땀을 흘렸다. 목이 말라 물을 찾으니 물이 없다. 음료수 판매대에도 목마른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다. 물의 소중함이 느껴졌다. 이제부터는 물을 아껴 써야겠다는 마음도 들었다. 안압지를 한바퀴 돌아보았다. 덩기는 했지만 우리 문화재를 살펴본다는 것이 좋았다. 다음은 경주 박물관을 갈 차례이다. 어제 사권 같은 조의 누나, 동생과 함께 요즘 최신 유행곡인 상상 속에서, 다 포기하지만, 날개 잃은 천사 등의 노래를 신나게 부르면서 가니 지루하지도 않고 재미있고 신이 났다. 경주 박물관 앞에서 자리를 잡고 점심식사를 했다. 야외에서 여럿이 함께 먹으니 더욱 맛이 있는 것 같다. 경주 박물관 안에는 에어컨이 들어와 시원했기 때문에 나가기가 싫었다. 경주 박물관에 있는 많은 유물들을 보고 삼국통일을 한 신라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MBC TV에서 따라나와 촬영을 하였다. 나는 좀더 많이 나오려고 추월을 하려 했지만 양심상 질서를 지켰다. TV에 좀더 많이 나오고 싶었는데 ... 천마총에 들어가니 좀 무시무시한 분위기가 들었다. 오늘은 조금 일찍 하일라 콘도에 왔다.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니 살 것 같았다. 저녁식사 후 능현이와 함께 오락실에 갔다. 나는 한판으로 1시간쯤을 버텼다.

8월 9일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불국사를 거쳐 해수욕장에 간다고 한다. 신이 났다. 야호~~ 불국사에 도착할 때까지 다른 날 보다 좀 힘이 들었지만 작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이곳은 10원짜리 동전에도 찍혀 있는 그 유명한 다보탑, 그리고 석가탑이 있는 곳이다. 불국사 경내에 있는 약수물 맛이 좋았다. 가물다고 하는데도 물이 많았다. 불국사를 구경하고 해수욕장에 갔다. 점심후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바다로 뛰어 들어 갔는데 바닷물이 무척 차다. 들어갔다 싶으면 물이 너무 차기 때문에 금방 나와야만 했다. 해련이 누나 능현이 그리고 나는 누가 더 오래 건디나 내기를 했는데 이기려고 계속 앉아 있으니 파도에 밀려오는 물이 뼈를 깎는듯 차가웠다. 해수욕장에서 다시 관광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며 노래도 부르고 즐겁게 올라 왔다. 3일 동안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경주에 대하여 많은 것을 배웠으며 친구들도 사귀며 즐겁게 지냈다. 자전거 경주여행이 오랫동안 나의 기억에 남을 것이다.

조 용 린(조흥규 가족, 서울 면남 국민학교 2학년 4반)

8월 7일 월요일 날씨 맑음

오늘 아침은 다른 날보다 훨씬 일찍 일어났다.

아빠 엄마와 경주로 자전거 타러 가기로 한 날이기 때문이다.

동생 용준이와 아침부터 동네 아이들에게 자랑을 하러 다녔다.

그러다가 옆집 아줌마한테 혼났다 조용히 하라고.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한참을 가서 경주에 도착했다. 가는 도중 힘들어서 고생했지만 경주에 와보니 참 좋았다.

처음 보는 형들과 누나들이 많았다. 처음에는 서떡서먹했지만 금방 친해져서 같이 뛰어 놀았다.

콘도에 들어가서 가방을 내려놓고 나와보니 어떤 아저씨가 자전거를 많이 갖다 놓았는데 나는 그 중에서 노란 자전거를 골랐다.

자전거를 타보니 서울에 있는 내 자전거와는 틀렸다. 너무 높아서 중심이 잘 안 잡혀서 자꾸 넘어졌다.

한참을 연습하니 좀 나아졌다.

그런데 호루라기를 부는 아저씨가 너무 힘들어서 못 타겠다는 사람을 빠지라고 하셨다. 나는 얼른 못 타겠다고 빠졌다. 콘도에 있는 수영장에 가서 동생과 놀고 싶어서 였다.

아빠는 자전거를 타고 가시고 나는 엄마와 동생과 함께 풀장에서 신나게 놀았다.

그런데 풀장에는 어린이용과 어른용 풀장이 따로 있었다. 나는 어린이용에서 놀다가 재미가 없어서 엄마가 있는 어른용으로 갔다.

그래서 풀장에 뛰어 들었다가 죽을 뻔했다. 거기는 내 키의 두 배가 넘는데

내가 모르고 들어갔기 때문이었다. 큰일날 뻔했지만 참 즐거운 하루였다.

8월 8일 화요일 날씨 맑음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 아빠가 오늘은 나도 자전거를 타야 한다고 하셨다.

경주까지 자전거를 타러 왔는데 풀장에서만 놀면 뜻이 없다고 하셨다.

그래서 나는 어제 내가 연습했던 노란 색 자전거를 다시 골랐다.

동생은 너무 어려서 자전거를 못 타니 버스로 돌아다닌다고 했다. 나는 동생이 무척 부러웠다.

하지만 다른 어른들과 형들에게 지지 않으려고 나는 열심히 자전거를 탔다.

아빠는 뒤에서 따라 오시면서 계속 길옆으로 바짝 붙어 가라고 말씀하셨다.

한참을 가니 차들이 다니지 않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나왔다.

나는 그때부터 자전거를 힘껏 달렸다.

아빠 엄마보다도 내가 훨씬 빨리 앞으로 갔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땀이 많이 났다.

경주 박물관 앞에서 자전거를 세워놓고 점심을 먹는다고 했다.

나는 박물관 안에 에밀레종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아빠 엄마와 그전에 와 본 곳이어서 재미가 별로 없었지만 에밀레종 속에 어떤 아이가 들어 있어서 엄마를 부른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 괜히 무서워졌다.

학교에 가면 우리반 아이들에게 꼭 얘기해줘야겠다.

점심을 먹고 나서부터는 방송국에서 나와서 우리가 자전거 타는 것을 촬영했다.

나는 카메라가 나를 찍을 때마다 부끄러워서 도망갔다. 하지만 TV에는 많이 나오고 싶었다.

나를 많이 찍어주었으면 좋겠다.

콘도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너무 힘들어서 아빠가 자전거를 내 것까지 끌고 가셨다. 아빠는 기분이 썰렁하겠지만 나는 편하게 걸어서 콘도로 돌아왔다.

콘도에 도착해보니 동생이 나보다 더 빨리 와있었다.

동생을 보니 알미웠지만 반가웠다.

그러나 일기 쓸 것이 많아서 참 좋았다.

8월 9일 수요일 날씨 맑음

오늘은 경주에서 마지막으로 자전거를 타고 불국사까지 간다고 했다.

그래서 힘이 들었지만 열심히 자전거를 타고 불국사까지 갔다.

가는 도중에 커다란 산이 있어서 굉장히 힘이 들었지만 불국사에 도착하니 기분이 참 좋았다. 등수를 세어보니 내가 7등을 했다.

내 친구들과 자전거 대회를 했으면 보나마나 내가 일등을 했을 것이다.

불국사에서부터는 버스로 돌아다녔다.

버스를 타고 해수욕장에 도착해서 바다로 들어갔다. 그런데 물이 차가워서 금방 나왔다.

집으로 오는 길에 버스 안에서 노래자랑을 했다. 나와 동생은 핑계를 불렀다.

사람들이 박수를 쳐서 참 좋았다.

아빠는 나에게 이 다음에 또 자전거 타러 올 거냐고 물어 보셨다. 그래서 나는 또 오겠다고 대답했다.

집에 도착해 보니 그 동안 친하게 지낸 형들과 누나들이 금방 또 보고 싶었다.

이 다음에 다시 만나면 더욱더 사이좋게 지내야겠다고 다짐했다.

힘들게 즐거웠던 여름

최남신 어머니

이렇게 신이 날 수가....

언제부턴가 한 해가 저무는 걸 아쉬워하던 내 감정에게 대충 실자고 얼버무리며 보내기 시작했다. 주부가 갖는 일상의 가사와 육아는 가정이란 든든한

테두리와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보람은 있지만 개체로서의 명쾌한 성취감이 없기 때문에 살아온 날에 대한 되돌아봄은 빈 주머니에 손을 넣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청소년개발원에서 주최하는 '가족자전거문화기행'에 참여하여 이색적이고 의미 있는 여름휴가를 보낸 것 같아 뿌듯하다.

사실 자동차문화에 편승하여 이곳 저곳으로 돌아다니며 먹고 마시고 하던 게 가족 여행의 고작이었다. 물론 기동성과 편리함도 있지만 언제나 되돌아보면 밋밋하고 추억거리가 빈약했다. 해서 좀더 의미있고 교육적인 가족여행문화를 모색하던 차에 이 모임을 알게 되었고 우리 가정의 여행문화도 그 조형의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평소 아이들이 할 줄 아는 건 나도 할 수 있어야 함께 느끼고 즐길 수 있다는 생각에 서른 다섯에야 자전거를 배웠다. 어렵게 배웠지만 우리 가정에 많은 즐거움을 준다. 일요일엔 가족 모두가 자전거를 타고 근방에 여행을 가기도 하고, 새벽 공기를 가르며 꽃시장에 둘러 안개꽃 한 다발을 싣고 달리던 우리의 모습들은 언제나 내 추억의 어느 켠에선가 맑고도 선명하다.

그렇게 저렇게 늘게 된 실력(?)은 이번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직장 때문에 남편이 함께 할 수 없어서 서운했지만....

8월 7일

서울서 버스로 약 6시간만에 반도의 한 귀퉁이인 경주에 도착했다. 스페인에 가면 이슬람문화가 찬연히 스쳐간 그라나다를 봐야 하듯이 우리나라에선 경주를 빼놓을 수 없다고 한다.

콘도에 여장을 풀고 첫날의 자전거 여행이 시작되었다. 복천을 따라 잘 닦여진 자전거도로를 달리노라니 천년을 넘은 고사가 떠올랐다.

신라때 어떤 왕이 후사가 없이 죽자 왕손과 귀족간의 왕위 쟁탈전이 벌어졌는데 화백회의에서 다음 왕을 결정하기로 했다. 당시 경주에 비가 많이 와 이 복천에 물이 넘쳐 건너에 살던 왕손이 올 수가 없게 된 틈을 타 귀족이 왕위에 오르고 왕손은 명주 산골짜기로 임명되었다는 이야기다. 인간의 운명

도 우주만물의 작용으로 바뀔다고 생각하니 경주의 하늘이 예사롭지 않고 쏟아지는 햇빛, 스치는 바람에도 겸허해진다.

김유신 장군의 묘를 보고 분황사에 들른 다음 황룡사터를 찾았다. 높이 80미터의 황룡사 석탑터도 93년간에 걸쳐 완성됐다는 절터도 푸른 풀로서 밭길에 밟힐 뿐이다. 이 역사의 황당함이라니....어린 시절 술거가 그랬다면 황룡사 노송도 벽화 설화는 어린 감성에 점점이 먹어 들어갔지만 허구같은 역사의 비존재적 실재성만을 강요하는 것 같다. 황룡사터는 평지에 있어 주변에는 농지가 많은데 개발의 여파로 건물들이 들어서 역사적 유적지가 후손에게 더 왜소해지지 않을까 염려되는 밭길로 돌아섰다. 돌아오는 중에 우리 아이가 차도로 튀어 나가 사고는 없었지만 위험했던 순간이 있었다. 주최측에서는 각자에게 자율성을 주었지만 추월과 안전거리 미확보 등 다소의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8월 8일

오늘은 우리의 행사일정을 포항MBC에서 촬영 나온다고 했다. 어제의 자율적인 주행과 달리 오늘은 안전과 밀도있는 진행을 위해 번호를 지정해 주었다. 주자들의 실력차이 때문에 불만도 있었지만 안전성이 있었고 인내심을 갖고 질서의식을 배우는 계기도 됐다고 본다.

일렬로 간격을 맞추며 달려가는 삼각구도의 모습은 많은 이들의 시선을 받으며 안압지를 거쳐 반월성에 도착했다. 몽고 침입으로 소실돼 궁궐은 흔적도 없고 잡초만 나부끼는 이 곳이 궁궐이었다니....

점심 후 경주 박물관에 도착했다. 역사적 유물들이 많았지만 전시가 평면적인데 입체적인 전시를 한다면 어린 관람자들에게 분명한 이미지를 줄 수 있을 것 같았다.

제한된 시간으로 잠깐 돌아보고 왔는데도 10분이나 늦었다. 삼대가 참가한 맥의 할아버지가 시간관념이 없다고 화가 나셨다고 했는데 죄송하면서 고마웠다. 오늘날 도시인들에겐 마을의 개념이 사라져 자연스럽게 사회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이 없어졌고 따라서 남에게 싫은 소리하기 두려워하는 윗세

대와 싫은 소리 듣기 싫어하는 세태가 돼 버린 세상에 할아버지의 지적에 존경스런 마음을 느끼며 적석총을 향해 갔다.

8월 9일

이번 여행 일정의 마지막 날이다. 불국사까지 자전거로 가는데 내리막길이 많다니 사고가 나면 크게 나고 아니면 스틸 만점의 코스다. 얼마쯤 달렸을까? 언덕진 산길이 끝이 없었다. 내려서 끌고 가야만 했다. 폭염에 목이 타들어 가고 팔다리는 축축 늘어졌다. 앞번호이던 아들아이는 자전거를 내팽개치며 고통스럽고 짜증섞인 포기선언을 하곤 했다. 옥박지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지만 서로가 지쳐있었다. ‘아이구 이게 웬 고생이냐. 어린 자식까지 끌고 와서, 집에서 밥이나 하구, 밥이나 먹구 그렇게 살걸’ 후회의 여지도 없이 뒤쫓아오는 대열에서 낙오할 수 없다는 자존심에 죽을 힘을 다해 드디어 불국사에 당도했다. 아....

힘들게 바퀴를 굴려보지 못한 사람은 모른다. 고생 끝에 목적지에 도달해서 바퀴를 멈출 수 있을 때의 그 장쾌한 휴식의 쾌감을.... 어린 나의 아들이 정말 자랑스럽다.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불국사는 아홉살짜리 아들에겐 잊혀지지 않을 명승고적이 될 것이다.

가족간의 닫힌 마음을 열고 바람직한 가족 놀이 문화를 추구하려는 사람들에게 이번 행사는 신선한 테마였다. 여행지의 모든 것을 긴 호흡으로 느낄 수 있어 좋고 건강이나 교육적 측면도 얻을 수 있어 더욱 좋았다. 이런 행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경험의 기회가 주어지길 바란다.



올해 피서는 나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이 될 것이다. 다른 해에 비해 휴가를 갈 수 있는 계기가 특별했기 때문이다.

가게 된 동기는 엄마가 아침 TV를 보시는데 자막으로 자전거 경주 문화기행 가족과 함께라는 것을 보시고 부지런히 전화를 했는데 번호가 틀려 114에 확인 후 다음날 전화를 걸었더니 인원이 45명이 다 찾다고 했다.

청소년 개발원의 목적은 가족자전거문화기행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못 타면 안된다고 했다. 엄마가 보조바퀴 달린 것은 탈 수 있다고 해서 겨우겨우 승낙을 받았다. 전화를 끊고 전화를 받은 분이 너무너무 좋으시다고 하셨다. 그 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 정희옥박사님 이셨다.

드디어 7일 청소년 개발원 앞에 여러 가족이 모였다. 9시 30분에 출발하여 경주 보문단지 하일라 콘도에 2시 30분에 도착하여 짐을 내려놓고 자전거로

문화유적지를 돌아온다고 했다. 내려 와서 자전거를 보니 발이 닿지 않고 보조 바퀴 있는 것이 없었다. 나는 눈물이 핑 돌아 올었다. 그런데 정박사님이 “오늘 못 가신 분들을 위해 내일 봉고차로 유화유적지를 돌게 하겠습니다.” 그제야 마음이 풀렸다. 숙소로 돌아와 수영복을 갈아입고 콘도 내에 있는 수영장에서 신나게 뽀내면서 수영을 하고 났더니 팔이 아팠다.

엄마가 자전거 타는 가족들이 힘들거라며 우리는 일조인데 얼른 들어가 밥이라도 해 놓는다고 하셨다. 7시쯤 가족들이 들어왔다. 여럿이 밥을 먹으니 밥맛이 좋았다.

다음날 9시에 우리가 타고 온 버스로 분황사, 황룡사, 천마총에 갔는데 천마총은 왕의 무덤에서 출토된 여러 장신구와 유품들이 전시돼 있고관이 안치된 내부를 우리를 통해 들여다 볼 수 있어 좋았다.

다음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로 알려진 첨성대로 향했다. 우리 조상들의 슬기와 지혜를 엿볼 수 있었다.

다음은 불국사를 갔는데 책으로 보던 불국사를 가까이 가보니 빨갛고 초록색 단청들의 아름다움을 알 수 있었다. 입구 옆으로 사천대왕의 무시무시한 인상을 보니 꿈에서 나타날 것 같아 두려웠다.

정교한 다보탑과 간결한 석가탑을 보니 아사달과 아사녀의 슬픈 전설이 생각났다. 다 보고 석굴암을 가는데 그 길이 굽이굽이 8km를 올라가는데 갑자기 귀가 ‘뽕’뽕했다. 기압이 높아지기 때문이라 했다. 차에서 내려 석굴암까지 걸어 30분 가량 갔더니 본존 불상이 있는 곳에 다다랐다. 그런데 실망이었다. 교과서에서 배운 것으로는 굴속으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였다.

4시 30분쯤 숙소로 돌아왔다. 그리고 자전거 팀은 5시에 와 수영장에 갔지만 나는 어제 수영을 해 팔이 아파 수영을 하지 않았다.

다음날 짐을 챙겨 차에 싣고 일부는 자전거로 또 일부는 차로 가 불국사에서 만나 자전거를 반납하고 다같이 차로 대왕 해수욕장에 가기로 했는데 자전거 코스가 위험해 엄마는 걱정을 하셨다. 그런데 다들 무사히 도착해 대왕 해수욕장에 갔다.

나는 문무 대왕 수중능을 보고 싶어 배를 타고 그 곳을 갔다 오려고 했는데 시간이 여의치 않아 그만 두었다. 좀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3시에 서울로 향했다.

오는 도중 눈을 감고 우리 선조들의 지혜로운 면을 생각하였다. 수영과 단체 생활을 할 때 나 개인 한 사람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사람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을 배웠다. 이번 여행을 통해 좋은 경험을 쌓게 되어 보람이 있었다.

청소년 개발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자전거문화기행문

박종금(춘천시 김천안 가족)

월요일

어제 방에서 며칠 가게를 비워야 하는 까닭에 이것 저것 챙기다 12시가 되어 집에 들어왔다. 서울 시내 막히는 까닭으로 새벽같이 떠나야 하지만 오늘 먹을 2끼분 김밥이랑 밑반찬도 준비해야 한다. 완벽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자리에 누우니 새벽 2시. 뒤척이면서 잠을 이루려는데 오히려 예전 생각이 잠을 쫓는다.

대학 2학년 가을 답사때 수업을 빼먹고 놀러간다는 생각에 하도 가슴이 두근거리 아예 밤을 새기로 작정하고 놀다가 그만 늦잠을 자서 꼴찌로 고개를 푹 숙이고 교수님 앞에 나타나던 기억, 그때는 여행정비를 모두 내가 갖고 있어 나를 기다려줄 것이란 배짱도 있었지만 지금은 더욱 불안하다. 어찌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라는 신창의 말은 꼭 저승사자같다. 흥- 이 귀한 아침잠을 방해하다니, 10분만 하는 느긋한 마음을 꿰뚫어 보고 겁을 준다. 세수하고 가게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나니 5시 10분! 이제는 정말 시작이다.

상쾌한 아침을 달려가면서 잠시 상념에 잠겼다. 예정된 선생발령을 건너차고 농사 짓겠다고 나선 결혼생활, 그 속에서 태어난 경이가 어느새 커서 엄마

의 뒤를 이어 역사전공을 하겠다는 제법 어른스러운 발언을 하고, 그 꿈을 조금이나마 맛보여 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한겨레 신문의 자전거 문화기행은 한마디로 거절 못하는 달콤한 유혹이었다.

그 꿈이 이제 실현단계로 접어들었다. 아침도 점심도 길에서 대충 때워도 평소 그렇게 까다롭던 작은 아이도 군소리 없다. 처음 신문을 보고 ‘이것이다’고 느꼈던 그 감동이 작은 아이의 행동을 보고 다시금 일어났다.

청소년 개발원에 돌려 이름표를 받고, 볼펜, 단체 티까지 받고 두근거렸지만 차에서 보내는 몇 시간 동안 점차 퇴색되려는데 지도자 선생님은 간간이 양념을 쳐서 계속 긴장시킨다.

드디어 경주에 도착!

짐을 풀고는 부리나케 뛰어나와 자전거에 올랐다. 콘도 야외 풀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부러운(?) 시선으로 우릴 본다. 행, 아무렴 아무나 이런 모임을 갖는 줄 아니! 씩 웃으며 예행연습을 끝내는데 왜 자만심?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싶으면서 도망치고 싶었다.

그래 돈은 참 잘 냈구나. 본전 생각이 나고 내 앞에 버티어 선 두 분신들 때문에, 지금까지 허구한 날 부르짖었던 말들이 ‘참’임을 증명하기 위해 더욱 신나는 얼굴을 만들었다.

남회에게 맞는 자전거가 없어 풀장의 유혹으로 떼어놓고 경이만 데리고 첫날의 문화기행을 떠났는데 아이까지 꿈무늬에 매달고 씩씩하게 다니는 서화엄마 앞에서 창피했다. 하지만 덤고 짜증나고 다리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우리 식구끼리만 있었으면 본전이고 양심이고, 두 분신이고 간에 쉽고 편할 수 있는 다른 길을 찾았을 것이다. 그래서 단체란 참 좋다. 황성공원에서 아이들이 벌을 맞히겠다고 던진 돌에 맞았을 때는 아픔보다 더 큰 짜증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한참을 옹드려 있어야 했다. 황성공원을 돌아 분황사를 갈 때는 꿈쩍 그 자체였다. 고지가 바로 저긴데 예서 말수는 없다는 오기로 자전거를 타면서도 순간적으로 머리를 굴렸다. ‘정 힘들어서 안되면 어떻게 해야하나? 그레 택시를 부르면 되겠구나.’

분황사에서 사먹은 음료수는 지금까지 먹은 먹거리 중에서 제일 맛있었다.

그 음료수의 짜릿함과 산들바람의 시원함에 택시안의 유혹은 조금씩 누그러뜨릴 수 있었다. 그리고 죽겠다든 감정을 표현하는 경이를 격려해 가면서 황룡사지를 돌아본 후에는 처음 신문을 봤을 때의 그 감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돌아오는 길은 생각보다 훨씬 쉬웠다.

저녁을 먹고 밤 9시에 풀장에서 객기부리다 청소하는 분에게 쫓겨나와 샤워를 끝내고 마신 맥주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었다. 그냥 온 세상천지를 내 손이 쥔 듯한 느낌. 경이랑 의미있는 눈짓을 교환했다. ‘우리는 해냈다!’

밤은 새로 관계를 맺은 우리 식구들과의 첫날밤이다. 모든 역사는 밤에 이루어졌듯이 우리도 그 역사행렬에서 빠질 수 없지. 춘천에서 학교 졸업한 동갑내기 서화엄마, 참교육학부모회의 회원인 혜련엄마, 올곧게 키우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혹독한 자전거여행 시킨 동호엄마, 아들 속에서 나는 자연스레 참 괜찮은 엄마로 동참했다. 낮에 택시생각했던 적은 추호도 없는 아주 훌륭한 생각을 지닌 엄마로.

내일의 혹독한 자전거 기행도 오늘 저녁 우리의 달콤한 수다를 이길 수 없다고 자신하던 우리는 누가 먼저인지도 모르게 잠이 들어갔다. 아주 달콤하게.

다음날

장유유서 정신에 입각해 젊은 세대가 아침밥을 짓기로 자원을 해 놓고선 제일 늦게 일어났다. 부랴부랴 밥을 해 먹고 점심을 챙기고..... 집에서는 자고 일어난 이불도 마누라 저녁에 다시 피려면 못 개준다는 신랑이 설거지를 한다. 끼기 경희야 남희야 너희들의 진짜 맛있는 아빠 모습 좀 보렴.

어제 풀장의 유혹이 오늘은 약이 되지 않는 남희는 자전거를 배운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고집을 꺾는다. 억지로 달래서 아빠 뒤에 태우고 다시금 대장정에 올랐다.

차를 타고 지나가는 많은 무심한(?) 사람들이 봐주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괜히 자꾸 어깨가 올라가고 목이 기브스한 것처럼 뻣뻣해지고 헛기침도 나온다. 지도자 선생님이 자율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오늘은 제법 대오가 갖추어져

질서정연해졌다. 초록 옷차림도 함께 환경문제를 생각한다는 취지에 참 잘 맞는 듯하다.

하루가 지나니 다리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이 된 듯, 많이 편하다. 오늘 코스는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보니 어제 갔던 분황사 길을 지나 계속 가게 되어 있었다. “어머 경아 코스모스 좀 봐, 벼가 참 많이 컸다. 근데 참 가물었다 그치?” 육체적 고통에서 해방되고 나니 주변 경치가 아름답게 느껴졌다. 박물관 앞에 자전거를 주차시켰다. 깃발을 앞세우고 걸어서 다니는 코스로 가는데 아침에 자전거를 못 타 화가 난 남희가 혼자 정박사님 바로 뒤를 바짝 따르고 있다. 얼마나 뽀로통한 모습일까 생각하니 웃음이 절로 나와 혼자 깔깔댔다.

안압지를 보고 반월성에 올라 보리차 한잔을 500원에 사먹도록 남희는 저만치서 전보대의 매미마냥 정박사님만 따르고, 그래서 엄마는 혼자서 온전히 차지해 신나는 경이와 팔짱을 끼고 느긋하게 성터를 돌아 멀리 첨성대를 보면서 잠시 쉬었다. 계림 앞에 도착하고서야 어제부터 계속 ‘이상하다’는 머리속을 괴롭히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

‘경주’쪽 문화기행을 보면 시내 한 복판에 있는 박물관부터 보고 문화기행을 시작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가 시냇까? 여기가 시냇까? 했던 생각들. 나무가 많고 개발이 안되어 여느 시골 풍경같은 이 경주시가 왜 개발이 되면 안되는지를.

그러자 다시금 이 경주를 다시 보게 되었다. 아이를 키우는 환경으로는 참 좋구나 하는 생각과 시멘트 문화보다는 숲이 많아 자전거여행에도 적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계림에서 경주 김씨의 시조인 김알지를 보며 자신이 경주 김씨임을 자랑스러워하는 아이들을 앞세워 첨성대를 향했다. 참 그렇구나 하면서도 첨성대는 역사책에서 계속 봐와서인지 생각만큼 진한 감동이 들지 않았다.

자전거를 세워놓은 곳으로 점심 먹으러 이동하면서 오후에 있을 MBC TV 촬영 얘기를 들었다. 이걸 순전히 처음 이 기행에 참여하면서부터 키워온 내 차랑스런 허영심(?)을 더욱 키워주고 있다.

쭈뼌쭈뼌. 제일 신나는 점심식사 시간! 바쁜 중에도 김밥을 싸서 한 조의 식구들끼리 풀밭에 둘러앉아 모자라는 식수와 함께 먹는 이 위대한 점심식사를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기억하지,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 궁금해하면서 박물관으로 향했다. 그런데 글썽 하루종일 봐도 제대로 볼까 말까 하다는 박물관을 15분 동안에 다 헤치우란다. ‘농담도’ 하는 마음으로 들어갔더니 역시 꿀찌를 해서 만인의 눈총을 맞고 쓰러지기 일보직전, 그래도 경주 MBC의 예쁜 리포터 아가씨로 인해 경우 정신을 차렸다. 드디어 카메라 앞에 서는거다.

처음 들른 최씨 고가택!

기와장 한장 서까래 하나 내맘대로 고칠 수 없는 환경, 천년 문화유적지의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 참 많은 사람들이 참 많이 힘들게 생활하는걸 보면서 여기서도 젊은 세대들은 빠져나간 자리가 가슴 아프게 다가온다.

천마총을 구경하고 오를을 지나오면서 찌는 더위를 서로 물을 끼얹으며, 깔깔대며, 우리 식구들의 건강하게 살아있음에 부처님께 감사했다.

돌아오는 길에서 드디어 우리 경이가 엄마의 피를 이어받은 자랑스런 딸임을 증명했다. 아무도 나서지 않은 자리에 덩석 나서서 춤추고 노래부르는 모습, 고등학교에 입학한지 두달만에 연극공연으로 봄소풍 현장을 배꼽잡게 했던 일, 사범대학 전체의 명물로 꼽혔던 대학시절을 생각해 내곤 빙그레 웃었는데 뒤돌아 본 신랑의 모습에는 인제 마누라의 주책이 나올까 긴장된 표정이다. 씩씩한 딸애의 모습에 있는 힘껏 박수를 보냈다. 그 덕분에 고무한 경이는 돌아오는 길에서도 여전히 씩씩하다.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내고 풀장으로 향했다. 신나하는 아이들 옆에 있어주다 샤워하고 저녁먹고 마지막 밤을 맞았다.

회의시간에는 나자신도 객기인지 알지만 석굴암 일출구경을 고집했다. 약속을 한 이후에는 어떻게든 지키려는 마음이 강해져서 일정정도 성과를 보이는 게 사람의 능력 아닌가.

마지막 날

처음 출발을 해서 불국사로 갈 때는 ‘막 이력이 내려는데 마지막이구나’ 하

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건 잠시 동안의 착각이었다. 다시금 주저앉고 싶게 힘들었다. 불국로에서 서화는 끝내 울음을 터트렸다 하고, 우리 경이도 짜증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어찌 우찌 가다보니 불국사에 도착했다. 첫날만큼 요행 필 생각 안한 게 참 다행이다. 서화 엄마랑 내일은 차로 돌아보자고 우스개 농담까지 하면서, 미지근한 물도 감지덕지였다.

웅장함! 다시금 가슴 벅차게 차 오른다. 천년 세월에도 그 자태 그대로 온갖 풍화를 견뎌내고 서 있는 그 모습에서 경주 사람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느꼈다. 예전 답사시절에는 이런 대역사의 뒤편길에서 스러진, 피땀 흘린 민중들에 대한 착취에 대해 성토했다 아름다움에 대해 보지 못한 부분도 많았는데 한참 세월이 흘러 딸아이를 앞세운 이번 답사길에서는 다시금 새롭게 보였다. 앞뜰에 놓여있는 다보탑과 석가탑에 얹힌 슬픈 사랑의 얘기를 생각하려니 문득 불에 와 닿는 산들바람이 아사달의 속삭임같다. 그리고 그 많은 관광객 속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불도정진하는 스님의 모습이 참 아름다웠다.

얼마나 절 경내가 넓은지 절 입구를 지키는 사천왕상은 오히려 나오는 길에서 마딱뜨렸다. 이때 이미 알아봤어야 하는데 그냥 계속 무심코 내려오다가 화장실을 다녀온 이후에는 길까지 잃어버려 잠시 당황했다. 또 꼴찌하고 우울한 감정으로 감읍사지를 지나 문무대왕 수장릉이 있는 마지막 행사지인 대왕해수욕장에 다다랐다. 정말 문무대왕의 지킴 덕분인가? 한여름의 날씨에도 발이 얼어들어온다.

시원섭섭하고 단체생활 이박삼일을 끝내고 돌아왔다. 참 좋았다.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떠났지만 아이들은 가르침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나아가면서 느끼는 또 다른 인격체이다. 그리고 타율보다는 자율을 많이 강조하신 지도자 선생님 덕분으로 우리는 키가 조금 더 클 수 있지 않았을까.

차 안의 시원한 에어컨보다 땀 찌든 자전거가 더 재미있다면 사람들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 이 말에 대해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직접 체험해 보는 것은 많이 틀리다. 그래서 더욱 감회가 새롭다.

그리고 환경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얼까 생각하며 주부모임을 꾸

러 환경에서 핵까지 공부는 했지만 실천은 바쁘다는 핑계로 게을리한 자신을 반성하며, 작은 거라도 딸들과 함께 시작하리라.

하지만 가장 큰 보람은 뭐니뭐니해도, 솟아오르려는 생각들을 접어 눌러 놓았는데 지금부터는 그러지 않기로 했다. 국내여행에서의 이 경험을 토대로 5년쯤 후에는 유창한 영어실력을 쌓아 유럽 배낭여행을 식구 모두 다녀오는 것이다. 나이란 결코 생물학적인 나이만 존재하는게 아니라는 걸 이번 여행에서 절실히 깨달았다. 이런 여러 깨달음을 얻게 해준 청소년 개발원 식구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린다.

경주자전거문화기행

김남희(충천시 김천안 가족)

우리가족이 경주로 자전거 여행을 가기로 했다. 가기 전엔 그냥 고생한다고생한다 그러니까 그냥 뭐 조금 고생하겠지 했는데 갔다 와보니 정말 달랐다. 이런 더위에 자전거를 탄다니 말이 아니었다. 나는 그때 혼자 타보지를 못해서 너무 서운했다. 엄마 아빠는 왜 반대를 했나하면 내리막길 오르막길이 많다고 반대를 하셨다. 자전거를 타고 난 후 수영장에서 물장구를 치며 수영을 했다.

맨 먼저 석가탑과 다보탑의 슬픈 전설 이야기를 내가 쓰겠다. (아사달이 석가탑과 다보탑을 짓기 위해 영지라는 연못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라 했다. 탑이 완성되면 그 못에 그림자가 비춘다고 했다. 아사녀가 기다리다 연못에 그림자가 비추어서 너무 기뻐 연못 속에 뛰어들고 말았다. 아사달도 연못에 뛰어들어 죽었다.)

나는 마지막날까지 친했던 서화랑 떨어져야 한다니 너무 서운해서 서로 전화번호를 적어 두었다.

나는 자전거를 탈 때 나혼자 타지 못했던 것이 너무 서운했다.

잘 타기 위해선 연습해야지!

‘경주’ 자전거 문화기행

만땅 김 경 (춘천시 김천안 가족)

월요일! 달콤한 꿈을 꾸고 있던 나. 엄마, 아빠의 합동 고향으로 나는 깨었다. 세수를 하고, 이빨 닦는 것이 순서이지만 허둥대는데 시간이 더 걸린 것 같다.

5시 10분쯤이라고 해야 하나? 원래 모이는 시간은 8시 30분. 3시간이나 앞서 출발하였다. 설레임과 부푼 가슴을 앓고....

어느새 도착하였는지 6시 30분쯤 서울에 와있었다. 그때부터 지루한 기다림이 지속되었다. 어느덧 한두 가족이 오더니 다 모였고, 4층 청소년 개발원에 가서 T셔츠와 볼펜, 그리고 이름표를 받고 9시쯤 경주로 출발하였다. 처음 30분은 여러 아이들과 이야기도 하였는데 그 후 거의 달콤하고도 달콤한 꿈을 꾸면서 지속되었다. 어느새 잠이 깨었을 때에는 경주 톨게이트 조금 못 들어온 지점이었다.

웬히 좋아서 싱글벙글되던 나. 이제 고생문이 열린 것도 모르고 좋아하였던 나. 그런 나는 흥분 50% 기대감 50%였다. 그런 것도 잠시. 콘도에 짐을 정리하고 싱글벙글한 얼굴로 자전거를 탔다. 내 동생은 자기 키에 맞는 자전거가 있었는데 브레이크를 못 잡는다는 이유로 억압되고 아빠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한바퀴를 돌고 다음 코스는 5배 더 힘들다는 겁을 이기고 나는 자전거에 올랐다.(물론 내 동생은 풀장에서 놀았지만....)

하지만 그리 힘들지는 않았다. 황성공원에서 멋있게 단체사진 한장 박고 독사진 몇장 박고 분황사, 황룡사터를 거쳐 콘도에 돌아왔다. 그리고 아주 맛난 밥을 먹었다. 그리고 고이고이 잠이 들었고....

정신없이 자고 일어난 나. 풀지에서 1, 2등을 한 명예를 얻을 만큼 실컷 자서 그런지 갯분하였다. 그리고 아침을 먹고 출발하였다. 첫번째 코스는 안압지였다. 여러 유물들과 연못이 인상 깊었으며, 반월성에서는 느긋한 마음으로 둘러보았고, 석빙고를 보았으며, 거금 500냥을 들여가며 냉보리차 한잔을 마셨다. 그리곤 우리의 영원한 경주 김씨의 시조 경주 김씨의 우상 김알지 할아

버지가 태어나신 제림도 보았고 첨성대도 보았다. 그리고는 다시 자전거 주차시킨 풀밭으로 가서 맛난 김밥을 먹었다. 경주국립박물관을 둘러보고 그제야 다음 코스인 최씨 고가택을 둘러보았다. 드디어 천마총. 내가 꼭 가 보고 싶던 곳이다. 꿈에 그리던 천마총을 구경하였고, 또 길에 스쳐 본 것이지만 오름도 보았다. 그리고 오늘은 일찍 돌아가 수영도 하였고....그리고 어느새 나는 잠이 들었다.

마지막 날

내 동생은 서화와 주소 주고받는데 연연하였고 나는 빈동대는데 연연하였다. 그것도 잠시 잠깐. 우리는 다시 자전거에 오르고 불국사를 향해 출발하였다. 그런데 다른 날보다 오늘은 3배 아니 4배정도로 더 힘들었다. 앞길이 막막할 정도였다니까.....

어느새 나는 불국사에 와 있었다. 섬세하고 아름다운 다보탑, 무영탑이라고 불리는 석가탑이 나란히 있었고 스님도 보았으며 푸른 하늘이 나를 반겨 주었다. 불국사에서 나오면서 석굴암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사천왕이 달래주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이제야 에어컨이 나오는 시원한 차에서 1시간쯤 후 마지막 코스인 문무대왕 수중릉이 있는 해수욕장에서 해수욕을 하였다.

생각 같아서는 수중릉도 가보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얼마 후 차안의 시간을 보냈다. 노래도 부르고 주소 교환도 하다보니 어느새 서울에 와 있었다. 혜련언니는 지하철역에서 먼저 가버리고 우리는 일동계약 빌딩에서 모두 헤어지고 춘천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쿵쿨 잤다.

2박 3일,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경주에서 많은 유적, 유물을 보았다. 그리고 친구도 알게 되었고, 보람있게 보낸 것 같다. 다음 기회에 또 가보고 싶다.

경주기행 소감문

송지영(송헌섭 가족, 신촌국교 5학년 2반)

우리가족은 경주로 자전거를 타면서 문화기행 하는데 참석하여 8월 7, 8, 9
2박 3일로 떠나기로 하였다. 처음에는 무척 힘들고 내리막길 오르막길을 잘
가지 못했지만, 내리막길은 이제 자신이 있다.

8일은 본격적으로 자전거만 탔다. 10시에 출발해 첨성대까지 가는 길은 여
간 힘든 길이 아니다. 천마총에 들러 박물관도 가보고 그리고 MBC에서 촬영
을 한다고 하여 멋을 낸 우리. 나는 아빠랑 천마총 의자에 앉아 쉬고 있는데
취재를 한다가에 정말 떨리고 말이 안나왔다. 촬영이 끝난 후 콘도로 돌아가
수영을 하는데 얼마나 날씨가 더웠으면 물이 뜨거웠다.

마지막 9일 오늘 하루는 자전거를 타지 않는 줄 알았는데 또 불국사까지
자전거를 탄데니깐 힘이 다 빠졌다. 오늘은 오르막 길이 없어 그다지 힘들지
않다고 하기에 할 수 없이 자전거 의자에 앉고 말았다. 근데 땀이 어제보다
더 많이 났다. 힘이 든 우리 가족은 불국사에 도착하자마자 물부터 꿀꺽 꿀
꺽 마셨다. 불국사에서 1시간 동안 구경을 한 후 우리 12가족들은 동해 바다
로 떠났다. 12시 30분쯤 도착해 바다로 뛰어들어갔는데 생각보다 물이 차가워
들어가지 못하고 발만 담그고 있었다. 2시에 동해바다에서 서울로 출발하였
다. 그렇게 긴 시간이 너무도 짧게 느껴졌다.

느낀 점: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 뜻깊었고, 즐겁고 내가 365일 중에서 가
장 땀을 많이 흘렸을 것이다. 힘은 들었지만 무척 재미있었고 이런 행사가 또
있었으면 좋겠고, 또 참가하고 싶다.

경주 가족 자전거 타기 기행문

송헌섭 아버지(경기도 일산)



여름방학을 맞아 공부보다 우선 몸을 튼튼하게 하고, 가족과 함께 모처럼 땀을 흘리면서 자전거를 타고 역사가 깊은 경주 명승고적을 돌아다보면서 아이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청소년 개발원에서 본인은 기교육을 받아서 좋은 감정으로 이 행사에 참석했다.

요즈음은 많은 형제와 자랄 때와 달리 자녀 수가 하나나 둘이기 때문에 서로 돕고 양보하는 마음이 결핍되기 쉬우며, 컴퓨터로 혼자 학습하고 게임도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또래끼리 어울리는 가운데 형성되는 정보는 사회성의 결핍이 생기기 쉽다.

산과 들로 자유분방하게 자연을 만끽하던 옛날과 달리 값비싼 장난감, 전자오락기까지 풍족하게 다 가지고 놀면서도 성이 안차고 불만이 많고, 모래흙을 가지고 놀 때보다 더 쉽게 짜증을 내고 싫증을 내며 인내심도 적어지고 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다. 공동체 생활이나 또래끼리 어울리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키운 자녀는 불편하거나 힘든 상황에 익숙하지 못하다. 이번 경주가족자전거타기 기행에 참석한 목적은 가족이 함께 하는 좋은 추억거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시원한 자동차를 타고 구경하는 것보다는 폭염 속에서 땀의 가치를 일깨워주고 싶었고, 인생살이가 올라가는 언덕이 있으면 내려가는 내리막길이 있다는 평범한 교훈을 주고, 많은 친구와 사귀게 도와주어야겠다는 것이었다.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 놀도록 해주는 것이 건강과 지적, 정서적인 모든 면에서 바람직한 성장하게 한다. 항상 밝고 건전한 쪽으로 또래끼리 어울리며 살아가는 기지를 안겨줘서 강건한 정신의 아이로 자라게 하는 것이 내 가정의 행복이며 밝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번 행사에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 문화기행이 일회성이 아니고, 널리 홍보하여 좋은 파급효과가 있으면 좋겠다. 두서없는 줄필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시길...

가족자전거문화기행

송은주(송현섭 가족, 오마 중학교 2학년 7반)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던 우리집은 호들갑스럽게 차에 올랐다. 왜냐하면 바로 오늘이 ‘가족 자전거 문화기행’에 참가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이번 여행은 나에게 매우 뜻 깊은 여행이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참가한 여행이기 때문이다. 언제나 할머니께서 차멀미를 이유로 여행을 피하시기 때문에 가족 모두가 떠난 여행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둥둥 떠있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버스에 올랐다. 버스는 막힘 없이 신나게 달려 버스에서 보내는 시간이 지겹지 않게 숙소에 도착했다. 숙소에 짐을 풀고 우리가 처음으로 자전거를 타고 간 곳은 분황사였다. 분황사는 역사가 오랜 절이라서 원래 많은 유물이 있었을 텐데 몽고의 침략과 임진왜란 등으로 모두 유실되었다는 소리에 안타까웠다. 그 다음으로 간 곳은 분황사와 담장을

같이하고 있는 황룡사터였다. 황룡사는 비록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건물과 탑 그리고 불상자리를 알려주는 초석뿐이지만 그 규모를 보아 대단히 웅장한 절임은 틀림없었다. 그리고 현재 국내에 전해지고 있는 범종 가운데 가장 큰 것이라는 성덕여왕 신종보다 무려 4배나 크고 17년이나 앞서 주조된 종인 황룡사에 있었다는 기록이 삼국유사 3권에 전해진다고 한다. 정말 대단한 절이다. 이 절의 온전한 모습을 한번만이라도 보았으면 하는 바램이 굴뚝같았다. 이런 바램을 뒤로 한 채 지친 몸을 자전거에 싣고 우리는 숙소로 향하였다. 평소 자전거를 좋아하던 터라 좀 힘들었지만 신나게 달렸다. 숙소로 돌아와 맛있는 밥을 먹고 잠을 청했다.

다음날 아침엔 6시에 일어나 자전거를 타고 안압지로 향하였다. 안압지는 사적 18호로 문무왕 14년(634)에 축조된 궁전으로 영화의 꽃을 피웠던 곳이었다고 한다. 또 안압지에서 발굴된 유물들은 의식용 부장품으로 묻혔던 능의 유물과 달리 일상생활에 사용하던 용품들이어서 그 가치가 크게 평가되었다고 한다. 안압지의 크디 큰 연못은 자전거를 타느라 달구어진 내 몸을 시원하게 감싸주는 듯 했다.

우리가 그 다음으로 간 곳은 반월성이란 곳이었다. 지형이 반달같다 하여 반월성이라 불려졌다고 한다. 그 밖에 동양에서 제일 오래된 천문대로 널리 알려져 있는 첨성대, 계림, 신라문화의 대표적인 유물을 2,500여점이나 진열하고 있는 박물관, 신라 적석목곽분인 천마총을 다녀왔다. 우린 모두 꺽꺽거리며 자전거를 타고 숙소로 돌아왔다. 숙소로 돌아와 3형제의 오빠, 언니, 동생들과 신나게 수영을 했다. 그런데 수영장 물은 미지근하다못해 뜨거웠다.

드디어 마지막 날이 돌아왔다. 마지막 날은 정말 힘든 날이었다. 오르막길이 많은 이 코스는 불국사로 향하는 코스였다. 정말 너무 너무 힘들었다. 한편으론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자전거를 끌고 오기로 밀어 붙였다. 하지만 이렇게 불국사는 멀지 하는 마음이 뜨거운 햇빛과 함께 투정이 되버리고 말았다.

드디어 불국사에 도착해 사진을 찍고 버스에 올라 무열왕릉으로 갔다. 무열왕릉은 해저 고분으로 참 신기했다. 무열왕릉 옆에 있는 해변가에서 파도를 보며 경주를 등지고 집으로 향했다.

이런 기회가 더욱더 많아지고 다음 기회에 이런 기회가 생긴다면 꼭 한번 더 참가하고 싶다. 요번 여행은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힘든 만큼 내 머리 속에 깊게 깊게 오래 오래 남을 것이다.

(부록2: 프로그램 사례)

여 행

1. 활동 개요

여행은 가정에서 가장 많이 하는 체험활동 중 하나이다. 우리는 늘 익숙하여 온 주변에 대해서 날이 갈수록 참신미가 감소된 지각력을 가지고 바라보게 된다. 우리가 매일 보는 사람들의 얼굴이나 일상세계의 다른 어떤 특종사건에 대해서도 눈여겨 보려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은 우리들에게는 생생한 경험이 되는 것이다. 집에서는 우리들은 눈 앞에 있는 것도 볼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다가 여행은 우리들을 뒤흔들어 무관심에서 벗어나게 하며 또한 모든 경험의 가치를 높이는 주의력을 되찾게 하여 준다. 여행이 즐거움을 주는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는 특히 우리가 어린 시절에 가지고 있던 순진무구한 의식을 되찾는데서 오는 것이라고 하겠다.

여행은 삶을 풍요롭게 해주며 특히 청소년에게는 인생의 산 교실을 제공해주는 훌륭한 교육과정이다. 청소년 자녀들이 스스로 여행을 계획하고 준비하여 실천함으로써 자연을 배우고 정서를 순화시켜 자신의 인격을 수련하며, 여러가지 환경에의 적응력을 키우고 어려움에 도전하여 역경을 극복하는 경험을 갖게 하는 것이다.

2. 활동 목표

- 스스로 여행을 계획하고 준비하여 실천할 수 있다.
- 여행을 통해 자신의 인격을 수련하고 교양을 높인다.
- 여러가지 환경에 대한 적응력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강인한 정신력을 기른다.

3. 준비 사항

- 계획 단계: 대한민국 전도, 각종 안내서(지도, 교통 수단, 숙박 시설 등), 체험담
- 실천 단계: 의복, 세면 도구, 각종 안내서, 사진기, 비상 약품, 필기 도구, 취사 도구, 식사 도구, 식품, 배낭 등과
 - 천막을 이용할 경우는 배낭, 텐트, 야영 공구, 침구
 - 숙박 시설을 이용할 경우: 작은 배낭

4. 유의 사항

- 일반 사항
 - 가족간의 의사소통(가족 회의)을 통해 여행에 관한 가족 간의 합의를 이끌어낸 후에 계획하고 실천한다.
 - 가정의 형편과 능력에 맞게 계획을 세우고 실천한다.
 - 전문가들이 하는 여행이나 탐험은 제외한다.
- 안전 수칙
 - 여행시 각종 질병 및 유해한 동·식물에 유의한다.
 - 여행시 교통 안전에 유의한다.
- 생활 수칙
 - 일정표에 따라 실천하고 행동한다.
 - 활동시 문제가 발생하면 서로 협력하여 해결책을 찾는다.

5. 활동 과정

가. 준비활동

- (1) 가족 간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여행에 합의를 이끌어 낸다.
- (2) 가족이 모여 여행 계획을 수립한다.
 - ① 장소의 선정
 - ② 일정 및 프로그램

- ③ 교통 수단, 숙박 및 취사 방법(숙식 방법)
 - ④ 필요한 비품 및 장비
 - ⑤ 필요한 경비 및 비용 마련
 - ⑥ 역할 분담
- (3) 가족 간의 역할 분담을 한다.
- (4) 역할 분담에 따라 여행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한다.
- (5) 여행 비용을 마련하고, 필요한 비품과 장비를 마련한다.
- (6) 장비의 사용 방법을 함께 익힌다.

나. 중심 활동: 계획하고 준비한 내용에 따라 실천에 옮긴다.

- (1) 여행 목적지 답사: 계획된 일정에 따라 목적지를 찾아 필요한 내용을 기록하고 사진에 담는다.
- (2) 분담된 역할 수행: 여행시 계획된 역할에 따라 전체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 ① 장비 담당: 장비를 보관·관리하며, 훼손 시에는 수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식량 담당: 식단에 따라 필요한 식품을 적시에 구입·보급한다.
 - ③ 재무 담당: 여행에 소용되는 금전을 관리하며, 매일매일 결산을 내고 가족들에게 보고한다.
 - ④ 수송 담당: 교통 사정을 조사하여 수송 계획을 세우고 실천한다.
 - ⑤ 레크리에이션 담당: 여행시 가족끼리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⑥ 기록 담당: 여행 도중 발생하는 중요한 일들을 일지로 기록하여 여행 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⑦ 당번: 식사 준비와 같이 한 사람이 전담하기에 부담이 되는 일들은 당번을 정하여 하도록한다.
- (3) 교통 수단 이용: 교통 수단 이용은 항공기, 선박, 기차, 버스 등 여러가지가 있다.

- ① 항공편: 목적지에 빨리 도착할 수 있지만 비용부담이 크다.
 - ② 선박: 도서 지방을 여행할 때 이용하며, 특히 육지에서 자란 아이들에게는 넓은 마음과 해양의식을 고취하는 데 도움이 된다.
 - ③ 철도: 철도는 우리 나라 전국 각지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고 있어 매우 편리하다.
 - ④ 버스: 가장 대중적인 교통 수단으로 열차가 닿지 않은 곳을 여행하는 데 많이 이용한다.
- (4) 숙박: 천막을 이용하는 방법과 기존 시설물(여관, 산장, 민가, 유스호스텔 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 ① 천막을 이용하는 경우
 - 목적지를 답사하는 데 편리한 지역에 건조하고 평탄한 곳을 정하여 바르게 천막을 치고 편안한 잠자리를 만든다.
 - ②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 가정의 형편에 맞는 시설을 선택하도록 하고, 사치스러운 곳은 피하는 것이 좋다.
 - 숙박 시설이 없는 산골이나 절 또는 민가에서 숙박할 때, 절에서는 경내에서 지킬 점에 유의하고, 민가에서는 그 집의 생활 양식을 존중한다.

다. 정리 활동

- (1) 여행의 결과에 대해 평가하고 반성한다.
 - ① 계획 수립과 준비는 적절하였는가?
 - ② 여행 중 미흡한 점, 생각하지 못한 점은 무엇이었는가?
 - ③ 다음 여행을 위해 어떠한 점이 도움이 되었는가?
- (2) 여행에 다녀온 소감(기행문, 감상문 등)을 써 본다.
- (3) 여행 중에 찍은 사진을 장소 또는 내용별로 정리하고 자세한 설명을 덧붙여 사진첩을 만든다.
- (4) 여행 중에 사용한 각종 장비를 정리하여 다음 활동에 대비하여 보관한다.

가족 회의

가족 회의는 보통 토요일 저녁에 개최한다. 하지만 긴급한 안건이 있어서 토요일까지 기다릴 수 없다면 가족 구성원들 중에 누구라고 긴급 가족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가정 안에서의 규칙을 부모가 일방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가족회의를 통하여 정하는 것이 좋다. 물론 어른이 정해야만 하는 것이 물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족 회의가 흥미있고 의미있는 회의가 되려면 가족 회의가 중요한 결정들을 할 수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돈집행하는 문제와 같이 부모들이 정해야만 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자녀가 건의나 의견을 말할 수는 있을 것이다.

대부분은 아니라도 가정 내의 많은 규칙들을 가족 구성원이 각각 한표씩을 행사하는 가족회의를 통하여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가족 회의에서는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이런 갈등을 합리적인 주장과 토론과 투표를 통하여 해결해 나가는 방식은 아이에게 중요한 자기애와 자기 가치감을 심어주고, 사고력을 길러주며, 가족 회의에서 결정된 일들을 실행할 동기를 부여해 준다. 가족 회의를 통하여 자신의 평소 경험과 지식, 생각 등을 발표함으로써 가족간의 화목과 단결, 상호존중 태도, 발표능력 향상 등을 고취시켜 장차 유능한 민주시민의 역량과 자질을 기를 수 있다.

가정 내의 갈등과 불평을 가족 회의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이러한 갈등과 불평이 쌓이지 않고 해결하고 해소할 수 있게 된다. 가족 회의는 또한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의 고칠 점 같은 것을 다정하게 이야기해 주고, 또한 좋은 점은 격려해주는 시간이 될 수 있다. 자녀들 또한 부모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면 서슴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

가족 회의 후에는 외식을 한다던가 특별 음식을 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즐거운 행사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 가족회의의 의장은 가족 구성원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좋다. 가정 내에서 해야하는 결정사항, 가정 내 규칙 만들기, 혹은 사회 내의 여러 사회 문제들을 가족 회의의 주제 혹은 소재로 삼을 수 있

다. 가족 체험활동에 관한 의견도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정 내의 규칙을 어겼을 때 어떤 벌을 부과할 것인가도 가족 회의서 결정할 수 있으며, 상이나 선물에 관한 것도 가족회의의 소재로 삼을 수 있다. 의장에 사회를 겸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런 여러 안건들에 대해서 가족 구성원은 자기의 주장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논거를 피고 가족들을 설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서기를 정해서 가족회의를 기록하게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것이 곧 가족사의 일부가 되기 때문이다.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개발한 수련거리 기본형

발행연도	연 번	수 련 거 리 기 본 형
1992년 (총7종)	1	문화권 탐방 활동
	2	바들산 체험 활동
	3	예술 감상 활동
		(부록) 「아름다운 세계」
	4	독서교실 활동
		(부록)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5	명절쇠기 활동
1993년 (총21종)	6	도시·농촌 교환봉사 활동
	7	역사연극활동
	8	청소년 국토탐사 활동
	8-1	그림 그리듯 떠나는 여행
	9	청소년 안전사고 대비훈련 활동
	9-1	안전 지킴이
	10	청소년 민속놀이 교실 활동
	10-1	민속놀이 이야기
	11	청소년 호연 훈련 활동
	11-1	청소년 호연 훈련활동자료집
	12	청소년 자연농장 활동
	12-1	사랑으로 가꾸는 작은 농장
	13	청소년 모의 지방의회 활동
	13-1	신세대 청소년을 위한 토론 광장
	14	청소년 수상 훈련활동
	15-1	청소년 지역사회 명사 만남 활동
	15-2	청소년 노래광장 활동
	15-3	청소년 놀이 한마당 활동
	15-4	부모와 함께하는 역할놀이 활동
	15-5	청소년 모의법정 활동
	15-6	청소년 환경캠프 활동
	15-7	청소년역사 인물 기행 활동

발행연도	연번	수련거리기본형
1994년 (총10종)	16	전통문화사랑방 활동 - 우리노래익히기 -
	17	전통문화사랑방 활동 - 우리노래익히기 -
	18	전통문화사랑방 활동 - 우리노래익히기 -
	19	전통문화사랑방 활동 - 우리노래익히기 -
	20	전통문화사랑방 활동 - 우리노래익히기 -
	21	가치관정립 활동
	22	바른시민생활 활동
	23	환경살리기 운동
	24	지역사회봉사 활동
	25	정신건강 활동
		수련거리 기본형 개발보고서 5종
1995년 (총6종)	26	지역사회공개토론회활동
	27	가족캠프 활동
	28	국제교류준비 활동
	29	전통축제한마당 활동
	30	영상음악캠프 활동
	31	생활법률이해 활동
총 계		44종